

제12기 박물관대학 상반기과정

우리 역사 속 여자의 이야기

- 조선시대, 여자들은 어디에 있었나? -

차례 / Contents

교육일정 •	1
조선시대 재산·제사상속과 여성_임학성 •	3
노비들의 삶과 사회변혁운동_안승준 •	11
조선시대 혼인의 의미와 여성_이순구 •	21
조선시대 여성의 일과 생활_한희숙 •	33
조선시대, 경계를 넘은 여성들_정지영 •	53
조선후기 풍속화에 그려진 女俗과 여성의 美意識_이태호 •	63
한국문학 속의 여성이미지_정창권 •	95

제12기 박물관대학 상반기과정 교육일정

- ◆ 주 제 : 우리 역사 속 여자이야기
- 조선시대, 여자들은 어디에 있었나? -
- ◆ 기 간 : 2010년 5월 7일 ~ 7월 2일
- ◆ 장 소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석남홀

구 분	날 짜	강 의 주 제	강 사
제1강	5/7	조선시대 재산·제사상속과 여성	임 학 성 (인하대학교)
제2강	5/14	노비들의 삶과 사회변혁운동	안 승 준 (한국학중앙연구원)
휴강	5/21	휴강(석가탄신일)	-
제3강	5/28	조선시대 혼인의 의미와 여성	이 순 구 (국사편찬위원회)
제4강	6/4	조선시대 여성의 일과 생활	한 희 숙 (숙명여자대학교)
제5강	6/11	조선시대, 경계를 넘은 여성들	정 지 영 (이화여자대학교)
제6강	6/18	문화유적답사	-
제7강	6/25	조선후기 풍속화에 그려진 女俗과 여성의 美意識	이 태 호 (명지대학교)
제8강	7/2	한국문학 속의 여성이미지	정 창 권 (고려대학교)

조선시대 재산·제사상속과 여성

임 학 성

(인하대학교)

조선시대 재산·제사상속과 여성

- 상속제 운영에서의 딸(女)의 '권리'와 '의무' -

◆ 목 차 ◆

1. 혼인 풍습
2. 상속제도

1. 혼인 풍습

1) 조선시대 이전의 혼인 풍습과 부처제(夫妻制)

(1) 고구려의 혼인 풍습

- ‘서류부가혼속(婿留婦家婚俗)’ 또는 ‘솔서혼속(率婿婚俗)’ : 여자 집에서 뒤뜰에 작은 집을 지어 사위 부부를 거주시킴. 이를 ‘서옥(婿屋)’, 즉 ‘사윗집’이라 칭함
- 혼인 시 사위가 돈과 옷감 등의 혼수(婚需)를 지참
- ‘장가든다’ : ‘장가(丈家)’는 처의 부모가 사는 집
- 결국, ‘처가살이’ 또는 ‘데릴사위’의 풍습을 지님

(2) 고려의 혼인 풍습

- ‘남귀여가혼속(男歸女家婚俗)’ : 고구려 ‘서류부가혼속’의 또 다른 표현
- 처가살이 풍속이 지속됨
- 자녀가 외가에서 출생, 성장하여 외가 친척을 은혜롭게 생각함

(3) 부처제(夫妻制)

- 고려시대까지 국왕을 제외한 왕족과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가 기본
- 몽골의 압제기에 들어와 몽골 풍속의 영향으로 다처제(多妻制)가 발생
 - 충렬왕 때의 재상 박유(朴楡)가 ‘일부다처(一夫多妻)’를 주장하여 여성들의

- 집단적인 시위와 반발이 있었던 사례가 있음
- 몽골의 영향으로 일부 관인층을 중심으로 일부다처의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
 - ※ 이러한 혼인 풍속의 결과 고려시대까지는 여성의 이혼과 재혼이 비교적 자유웠다고 여겨짐

2) 조선시대의 혼인 풍습과 부처제

(1) 혼인 규제

- 근친금혼(近親禁婚)
- 동성불혼(同姓不婚) → 동성동본불혼(同姓同本不婚)

(2) 조선 전기

- 전통적인 혼인 풍속인 ‘남귀여가혼속’, ‘술서혼속’이 관행적으로 유지됨
- 자녀들이 외가(母系)에서 성장함에 따라 부계(父系) 중심의 친족결합이 형성되지 못함
- 『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 규정한 혼례 정형(定型)인 ‘친영(親迎)’, 즉 신랑이 신부의 집 근처에 가서 신부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 혼례를 치르는 방식과 어긋남

(3) 조선 후기

- ‘半친영’, 즉 신랑이 신부 집에서 혼례를 치른 다음 날(또는 3일 후) 신랑집으로 데리고 오는 방식으로 변함 → 고유의 풍속과 『주자가례』의 ‘친영’방식을 절충하는 형태
- ‘현구고례(見舅姑禮)’ : 친정에서 혼례를 치른 후 시댁으로 온 며느리가 시부모님께 드리는 의례로 이 때 폐백(幣帛)을 올림
- ‘시집간다’: ‘시집(媿宅)’은 남편의 부모가 사는 집
- 결국, 혼인 풍속이 ‘시집살이’로 바뀜
- 딸은 ‘출가외인(出嫁外人)’이 되어 처가 및 외가와 단절됨
- “처갓집과 변소는 멀리 떨어질수록 좋다”, “겉보리가 서 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하지 않는다”
- 부계(父系) 중심의 친족결합이 형성, 강화되고 남계(男系) 위주의 친족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집성촌(集姓村 : 同姓마을)’과 문중(門中)이 형성·확대되기에 이름
- ‘종손(宗孫)’ 형성

- (4) 부처제 : 고려 말 때 일부층에서 유행한 일부다처제가 금지되는 대신 ‘처첩제(妻妾制)’로 변질, 정착됨

2. 상속제도

1) 상속의 두 가지 유형 : 재산상속(財産相續)과 제사상속(祭祀相續)

- 자손에게 재산(田畓과 山, 奴婢, 家屋, 家具 등)을 상속하는 행위는 제사를 받들게 하는 의무를 포함
- 상속 재산의 종류 : 노비와 토지, 집, 소와 말, 그리고 술이나 농기구 등
- 자녀 간의 반목 불화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의 균질·형평성을 철저하게 계상하여 상속함
 - 노비의 경우 : 성별(奴, 婢), 나이, 노동력, 비의 경우 임신 여부 등을 계상
 - 토지의 경우 : 종류(田, 畓), 면적, 위치, 비옥도, 수확량 등을 계상

2) 조선 전기의 상속제

(1) ‘제자녀균분상속(諸子女均分相續)’

- 아들 딸, 출생 순서에 차등 없이 모든 자녀에게 재산을 골고루 나눠줌. 단, 모친의 신분에 따라 적서(嫡庶) 간에 차등 지급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상속 규정(「刑典」私賤條)

“부모가 소유하고 있던 노비(奴婢)를 그 부모가 사망한 후에 자녀들끼리 나눌 때, 적실 소생의 자녀들(衆子女)은 골고루 나눠 갖되(‘平分’) 가계를 이은 아들(承重子)에게는 평분한 몫의 5분의 1을 더 준다. 예를 들면 중자녀가 각각 5명씩의 노비를 차지한다면 승중자는 6명을 갖는다. 단, 평민 신분의 첩실 소생 자녀(良妾子女)에게는 적실 소생 자녀 몫의 7분의 1만 주고, 천민 신분의 첩실 소생 자녀(賤妾子女)에게는 10분의 1만 준다. 예를 들어 적실 소생 자녀가 각각 6명씩의 노비를 갖는다면 양첩자녀는 각각 1명씩만 갖는다”

- 분재기(分財記) 자료를 통해 본 재산 균분상속의 양상
- ▶ 15세기 후반(1474년)

자녀 재산	장녀 (長女)	이녀 (二女)	장남 (長男)	이남 (二男)	말녀 (末女)
노(奴)	14명	14명	16명	17명	13명
비(婢)	14명	13명	11명	10명	14명
계	28명	27명	27명	27명	27명

- ▶ 17세기 초반(1618년)

자녀 재산	장남	장녀	이남	삼남	사남
노비	5명	5명	5명	5명	4명
畓	4마지기	4마지기	6마지기	4마지기	4마지기
田	半日耕	半日耕	半日耕	½日耕	½日耕

- 재산상속은 부(父)로부터 뿐 아니라[‘부변전래(父邊傳來)’] 모(母)로부터도[‘모변전래(母邊傳來)’] 받음 → 부부 간에도 엄격하게 재산이 구분되었고, 여성의 재산권 행사가 안정적으로 보장됨
- 처가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에게 균분상속하고, 자녀가 없는 경우 친정(親庭)으로 귀속됨



조선 전기 분재기(1474년)

(2) ‘제자녀윤회봉사(諸子女輪廻奉祀)’

- 자녀에게 재산이 균분상속되었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그에 따른 의무도 같았음을 의미함
- 아들 딸, 출생 순서에 상관없이 모든 자녀가 순번을 정해 공평하게 제사를 돌아가며 지냄. 단, 서출자녀는 예외
- 혼인한 딸이 제사 의무를 지니게 됨에 따라 ‘외손봉사(外孫奉祀)’가 관행

※ 이러한 조선 전기 상속 관행의 결과 자손의 대수(代數)가 내려 갈수록 점차적으로 재산이 분산(分散)되고 결과적으로 영세화(零細化)를 초래함. 아울러 자년 간 봉사(奉祀) 의무도 제대로 준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3) 조선 후기의 상속제

(1) ‘자녀차등상속(子女差等相續)’, ‘아들 우대상속(子優待相續)’

- 아들과 딸 간에 재산을 차등하여 상속하는 방식을 택하게 됨
- 표면적으로는 균분을 내세우지만 실제적으로 딸에 대한 차별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함. * 혼인 풍속에서의 ‘출가외인’ 인식과 부합
- 여성의 재산권이 축소되기 시작함

(2) ‘적장자우대상속(嫡長子優待相續)’

- 유교윤리가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고, 가족형태도 부계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도 적장자(嫡長子)를 중시·우대하는 경향으로 변화
- 결국, 조상에 대한 제사는 적장자가 전담하게 되고, 그 의무에 상응하여 재산 상속에 있어서도 봉사의 명목으로 더 많은 상속을 받게 됨
- 분재기(分財記) 자료를 통해 본 재산 차등상속의 양상
 - ▶ 18세기 전반(1736년)

자녀 재산	장남	장녀	이녀	삼녀	사녀
노비	11명	3명	3명	3명	3명
전답	65마지기	25마지기	28마지기	25마지기	28마지기

▶ 18세기 후반(1779년)

자녀 재산	장남	딸 4명
노비	56명	0명
전답	451마지기	10~11마지기

(3) ‘아들 윤회봉사(子輪廻奉祀)’

- 아들만 돌아가면서 조상의 제사를 맡는 형태가 일반화됨
- 재산상속에 있어서 ‘권리’를 축소·상실한 여성은 조상에 대한 봉사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됨. 시집에 대한 봉사의 의무만 남게 됨

(4) ‘적장자단독봉사(嫡長子單獨奉祀)’

- 이에 더하여 봉사도 적장자가 단독으로 맡게 되는 형태로 변화함

※ 위에서 열거한 양상들은 종법(宗法)제도의 확산과 양반사족의 재지화(在地化) 경향이 나타나는 17세기경을 전환점으로 하여, 대체로 18세기에 이르면 양반사회의 정형으로 나타남

시기 관행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친족 및 혼인 관행	· 외가 및 사위 동일시 · 남귀여가혼	· 父系중심 · 출가외인, 半친영례
재산 상속 관행	자녀균분상속	자녀차등상속, 아들 우대상속 → 적장자우대상속
제사 관행	자녀윤회봉사	아들 윤회봉사 → 적장자단독봉사
족보 기재	자녀 출생 순	‘先子後女’, ‘詳内外略’, 女 무기재

노비들의 삶과 사회변혁운동

안 승 준

(한국학중앙연구원)

노비들의 삶과 사회변혁운동

- 검계·살주계·향도계 -

◆ 목 차 ◆

1. 노비들의 삶의 길
2. 시민운동 단체의 효시, 서울의 향도계(香徒契)
3. 검계(劍契) 계원, 그들은 누구인가

1. 노비들의 삶의 길

KBS 드라마 <추노>에서는 노비 추쇄 과정, 특히 양반과 노비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극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드라마처럼 조선정부와 양반들이 하층민의 저항을 물리력으로 대처할 리가 없었다.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없었다면 조선왕조는 100년도 유지되지 못했을 것이다.

<추노>의 시대적 배경은 노비 숫자가 인구의 절반을 넘었던 1600년대 중반이다. 역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시기는 노비의 사환과 납공(納貢)이라는 노비의 성격이 급속하게 변질되던 시기였다. 즉 재산으로 취급되면서 사환이라는 인신지배 중심에서 몸값(身貢)의 납부라는 경제 관계로 이행되던 시기였다. 이같은 변화는 임진, 병자 양란이 초래한 결과였다. 이에 양반의 노비 지배는 느슨해질 수 밖에 없었다. 소유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하면서 양반들은 노비를 대량 매각하였다. 그 직접적 원인은 주인과 떨어져 사는 노비, 즉 외거노비들이 거주를 빈번히 옮기면서 더 심화되었다. 이들이 옮겨 간 곳은 산간 혹은 도서 벽지가 많았다. 이러한 지역은 주인의 직, 간접적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간척지 등 생계 여건이 비교적 갖추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주(移住)는 노비들의 입장에서 보면 생존을 위한 거주지 이동이었다. 하지만 소유주 양반의 입장에서 보면 ‘도망’이었고, 양반 호적에도 도망이라 기입하였다. 도망이란 소유자 입장에서 쓴 용어이며, 추노(推奴) 또한 상전의 언어였다.

드라마의 제목, 추노(推奴)는 도망간 노비를 찾거나 잡아오는 단수한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추노의 ‘추(推)’ 자는 추심(推尋), 추쇄(推刷)를 줄여서 쓴 말이다. 국가 혹은 양반이 추진하는 노비 추쇄는 노비의 출생과 사망, 노장약(老壯弱)과 같은 노동력의 다과, 신분 및 소유권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행위, 바꾸어 말하면 노비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이었다. 효종 대에 대대적으로 실시한 추쇄도감(推刷都監)은 이러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었다.

1) 평민의 마지막 생계 대책, ‘구활(口活)’ 노비

남의 종이 된 사람의 장점도 있었다. 그들의 생계를 소유주인 양반이 책임진다는 점이 일반 평민이 가지지 못한 장점이었다. 조선후기에 평민이 노비가 되는 경우가 흔한데 그 이유는 생계 때문이었다. 생계를 잇기 위해 본인 또는 가족의 몸을 파는 문서를 이른 바 ‘자매명문(自賣明文)’이라 하였다.

평민들 가운데는, ‘춘궁기를 만나 살아갈 방도가 없어(當此窮春 生理爲難)’, ‘칠십 노부모가 춘궁기를 만나 목숨을 보전할 길이 없어(七十老父母 當此窮春 無保命之道)’ 혹은 ‘수많은 채무를 갚을 길이 없어서(許多出債 報償無路)’ 스스로 몸을 팔았다. 이 때 양반들은 재산이 불렀다고 마냥 쾌재를 불렀던 것은 아니었다. 도망이 횡행하여 고가의 동산(動産)인 노비를 한순간에 날리는 경우도 빈번했고, 감정을 품은 종들이 살주계(殺主契), 검계(劍契)를 결성하여 상전의 목숨을 노리는 경우도 허다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매문기에는 매매자 사이의 이해가 맞아 거래하기도 했지만 노비 자신이 애걸 복걸하여 겨우 매매가 성사되는 경우 또한 많았다. 어찌 보면 양반이 최후의 사회보장의 일익을 담당했다고도 볼 수 있다. 조선전기기의 경우 압량위천(壓良爲賤)이라 하며, 이를 금지하였으나 흥년이 심했던 조선후기에는 자매(自賣) 행위를 허용하기도 하였다. 양반들은 평민이 자매하여 노비가 된 사람들을 ‘구활(口活)’ 노비로 불렀다. 매입함으로써 목숨을 살려주었다는 뜻이었으나 몸을 판 당사자 입장에서는 비록 몸은 남의 종이 되었지만 목숨은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2) 상생을 위한 노사화합, 노주계(奴主契)

노비를 합법적으로 소유하면서 그 이익을 배가하기 위해서는 노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방법 밖에 없었다. 그 방법 중 최고의 대책은 소유 노비와 계(契)를 맺는 것이었다. 계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다. 서원이나 향교의 동기 모임인 학계(學契), 같은 나이의 모임인 동갑계(同甲契), 같은 동리에 거주하는 사람끼리의 동계(洞契), 문중 모임인 종계(宗契), 장례를 치를 때의 상계(喪契)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이러한 계 가운데 요즘의 노사 화합을 목적으로 한 계가 노주계이다. 노주계는 상전이나 노비들이나 각각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데서 결성되었다. 다음은 경주 어느 양반가에 남아있는 노주계 문서이다.

일선(日先) 차봉(次奉) 화리동(禾里同) 등 노비 10명이 이씨가 종손 이희성과 계를 맺은 것은 1801년(순조 1)이었다. 관아의 노비, 곧 공노비가 해방되는 바로 그 시점이었다. 이들은 계금으로 4석의 벼를 마련하였는데, 주인과 노비들이 각각 2석씩 그 절반을 부담하였다. 이들은 이 돈을 재원으로 이식(利殖)을 계속하여 계금을 불렀나갔다. 이렇게 계를 만들고 계금을 불린 이유는 양쪽 모두 이익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주인에게는 무조건적인 노비 도망을 예방하고 사환을 용이토록 하는 바램이 있었고, 노비들은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노비의 안정적 생활여건은 노주(奴主)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던 것이다. 상전과 노비 양쪽이 출연하여 마련한 기금은 주인 집의 담장 수리와 같은 빈번한 잡역에 대한 임금으로 쓰였다. 원래 이러한 일은 노비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였다. 계를 설립한 이후에는 자신들이 마련한 기금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시켰던 것이다. 주인과 노비 관계가 단순히 신분 관계에서 일정한 임금을 지불하면 되는 경제적 관계로 이행되는 순간이었다.

18세기 후반 19세기 초 유행했던 노주계의 신분제 혼돈 속에 나타난 매우 의미심장한 사회 현상이었다. 노비에게 있어서는 굴레였던 신분관계를 임금이라는 경제관계로 진전시키는 한 단면이었다. 우리의 역사는 이렇게 하여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고문서집성』 65 - 경주 옥산 여주이씨 독락당편, 2003, 한국학중앙연구원)

2. 시민운동 단체의 효시, 서울의 향도계(香徒契)

태어나면 죽는 것은 인간사의 이치. 그 주검으로 인해 생긴 단체가 향도계, 우리 말로 상두계였다. 향도계는 양반이나 양인 천민의 경우를 물론하고 운구(運柩)와 무

덤 조성을 담당하였는데, 서울이나 지방을 물론하고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가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상례인 사상(四喪), 즉 부모의 상과 본인 및 아내의 상이 났을 때는 향도계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주검을 위해 동원된 사람들, 즉 향도계 계원들은 대부분은 중인층 이하 평민이나 천민 등 하층민이었다.

향도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회비, 쌀(米)과 베(布)를 납부하고 계의 조약에 동의하여야 했다. 계의 설립 취지는 상장(喪葬) 즉 주민 가운데 초상이 났을 때 서로 돌보아 주고 기금을 통해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었다. 우리의 전통적인 계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토속적 요소가 많이 스며들어 있다. 여씨향약과 같은 중국의 향약이 보급되기 이전 삼국시대부터 있어온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었다. 우리 향도계를 여씨향약 등 중국적 요소가 짙은 것과 대비하여 ‘조선적 향약’이라 하였다.

17세기 중엽이래 향도계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된 곳은 한성부, 즉 서울이었다. 한성부 향도꾼은 동네 주민 중심의 인적 구성을 벗어나 이웃 동네, 나아가 한성부 전체를 지역적 기반으로 하는 대형 조직으로 변모하였다. 이들 향도꾼에는 순수한 계원으로서 동네 주민도 있었지만 주인을 배반한 노비(叛主奴婢), 부모를 배반한 사람(背父者) 등 기존 사회 질서에 불만을 가진 하층민들이 대거 가입하였다. 뿐만 아니라 향도계 핵심 주도층은 중인(中人) 이하 집안의 노복들은 그 많고 적음을 묻지 않고 계에 가입하도록 협박하였다. 주인이 이를 거부하면 차사(差使)를 파견해 해당 노비를 잡아와 강제적으로 가입시키기도 했다. 또한 노비의 입계를 허락하지 않는 가문은 계원들 다수가 그 집에 쳐들어가 쌍욕을 해대는가 하면 그 집 처녀를 보쌈을 해와 형제들끼리 나누어 가질 정도였다. 이같은 무리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계원의 세력이 너무나 강해 항의조차 못할 정도였다. 향도계 계원들의 숫자는 많은 경우 수 백명에 달했고 적은 계일지라도 100 여명에 이르렀다.

향도계 최고 우두머리를 존위(尊位)라 불렀다. 존위는 초상이 나지 않을 때는 계원들을 동원해 자기 집을 짓거나 담을 쌓는 일을 시켰다. 또 초상이 났을 때는 무료로 해주어야 할 운구(運柩) 행위에 대해 과도한 금전을 요구해 받아 챙겼다. 또 이들은 운구 거리를 40리로 제한하기도 하였다. 장지가 멀지 않은 곳까지 운구하는데도 7, 8일 혹은 10 여일을 끌어 상주들의 애간장을 태우기도 하였다. 운구가 끝나면 주인에게서 역가(役價)를 받아 향도꾼의 집합소인 도가(都家)에다 바쳤다. 이렇게 모은 기금은 이식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다졌다. (영조 12년 4월 17일 (신사) 원본824책/탈초본45책 (19/21) 1736년 乾隆(淸/高宗) 1년)

이들 모임의 중심지가 도가(都家)였다. 이 가운데는 기와집 10 여칸이나 되는 큰 집을 지어 집합 장소로 삼기도 했다. 도가는 유사(有事) 등 소임들이 근무하였는데, 이들이 향도계의 대, 소사를 도맡아 보았다.

향도꾼은 서울의 거리를 무리지어 횡행하였다. 양반들이 지나가면 눈을 옆으로 비스듬히 뜨고 꼬나보았다. 동네 사람들이 사납고 포악한 사람들을 보면 으레 향도꾼으로 여길 정도였다. 이는 어디까지나 양반이나 조선 정부 입장에서 본 부정적 시각이었다.

향도계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선정부에서는 중국에서 들어온 향약을 범 국가적으로 보급하고자 하였다. 16세기부터 보편화되는 향약 보급운동은 어디까지나 양반 중심의 사회질서 구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한성부 향도계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자 조선 정부에서는 향약을 통해 그 기능을 대체하고자 했다. 조선후기 향약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상장(喪葬)에 대한 상호 부조에 대한 조항이 추가된 데에는 이같은 배경이 있었던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한성부 향도계가 사회적 불만 세력으로 성장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요소를 꼽을 수 있다. 첫째, 그들의 상전 등 주위 양반들과 경제적 이해 관계가 직접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주의 상전이나 양반들의 논밭을 경작하는 노비, 또는 하층민이라면 감히 토지소유주의 이해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둘째, 익명성이 보장되고 회합이 용이한 도회지에서 활동했다는 점이다. 17세기 중엽 서울은 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유동 인구, 특히 도망 노비, 소작인들이 대거 이동함으로써 향도계원의 불법 혹은 도덕적 비난으로부터 일정부분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향도계 조직이 수백명에 달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보다 깊은 사회적 모순, 예컨대 임진, 병자 양란 이후 양반층의 분열과 대립 그리고 그들의 부도덕성, 한번 노비가 되면 영원히 그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는 노비세전법, 능력 위주 사회를 가로막는 서얼차대 등 사회적 불안요소야말로 하층민이 사회의식에 눈을 뜨게 하는 촉매제였던 것이다. 한성부 향도꾼이 사회적 연대조직으로서 부각된 것도 이같은 사회 경제적 모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검계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정부측 기록에는 부정적 시각으로 점철되어 있다. 하지만 왕과 신하들 사이에 오간 토론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불만으로 가득 찬 하층민들의 시선이 곳곳에 배여 있다. 조금 과장해 말한다면 한성부 향도꾼이야말로 사회모순을 고발하고 자기 권익을 위해 쫓겨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운동단체로 불려도 무방할 것이다.

3. 검계(劍契) 계원, 그들은 누구인가

1735년 5월, 국정에 대해 신하들과 토론하던 영조 임금의 신하들 사이에서 검계(劍契)라는 이름을 들먹이자, 그 명칭이 왜 생겨 났는지 궁금해 하였다. 도대체 칼을 만들기 때문에 부르는 이름인지 아니면 이들이 칼을 쓰기 때문에 생긴 것인지, 또 어떤 자들이 검계에 가입하는지 몹시 의아해 하였다. 이에 좌의정 서명균(徐命均)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칼로 사람을 죽이기 위해 만든 단체가 검계이며, 주로 양반가의 사나운 종이나 머슴들이 가입한다’고.(승정원일기, 영조 11년 5월 25일 (갑자) 원본801책/탈초본44책 (28/28) 1735년 雍正(淸/世宗) 13년

1624년 인조반정 이후 조선 정부는 서울의 향도계 해체를 위해 대대적 강공책을 편다. 초상시 상여를 매는 조직인 향도계가 반 양반적 조직으로 변모해왔기 때문이다. 향도꾼들은 이에 부단히 저항하였다. 그 일부는 해체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조직적이고 과격한 단체를 탄생시켰다. 바로 이 단체가 검계였다. 이들은 향도계 중심이었던 도가(都家)를 모임의 중심으로 삼았다. 그 구성원들은 주인과 부모를 배반한 노비와 양인 청년들이었다. 이들의 인적 규모는 향도계보다는 적지만 통상 40명, 60명이 한 단위였다. 이들은 밤낮으로 모임을 가져 조직력을 키우는가 하면 주민들의 개와 돼지 닭을 잡아먹거나 서울과 지방의 도적들과 연계하는 등 그 세력을 키워나갔다. 정부의 포도청에서조차 이같은 행위를 걱정만 할뿐 금지하지 못할 정도였다. 하지만 사대부들 초상 때의 필요성 때문에 완전히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당시 국정을 총괄하였던 영의정 남구만조차 이들 조직 혁파는 어렵다고 하였다.(숙종 20년 9월 3일 (무진) 원본361책/탈초본19책 (20/24) 1694년 康熙(淸/聖祖) 3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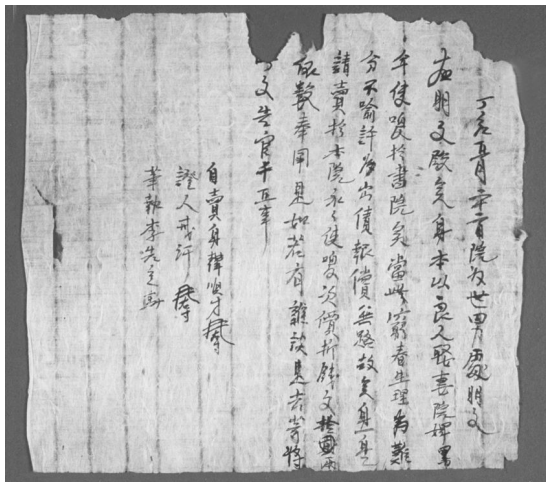
검계는 각각 조직마다 오늘날의 조폭처럼 특정한 명칭을 붙였다. 별자리를 가탁해 ‘28수(宿)계’, 고상한 선비들을 흉내내어 ‘죽림칠현(竹林七賢)’이라 하기도 했다.(승정원일기, 영조 11년 5월 23일 (임술) 원본801책/탈초본44책 (15/16) 1735년 雍正(淸/世宗) 13년)

검계 조직원들은 한편으로는 향도계와 연계하여 사대부들의 행상(行喪)을 가탁하면서 그 존립기반으로 삼았으며, 또 한편으로는 중앙과 지방의 사회 불만세력과 연계하여 사회 변혁을 꿈꾸었다. 상전의 부당한 대우와 노동력 착취에 우는 노비,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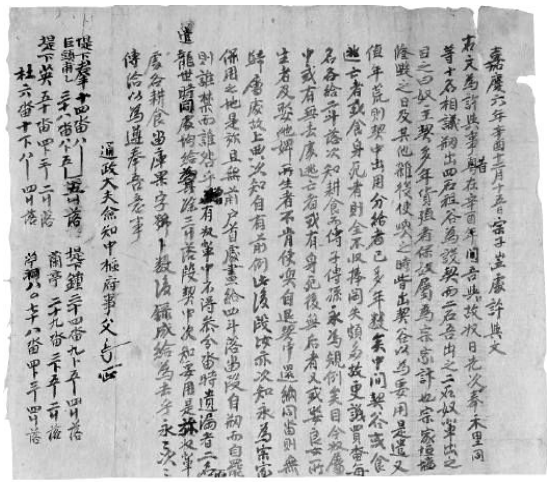
리고 가부장적 유교질서에 숨막혀하던 하층민들은 그 탈출구로서 검계 조직을 구성하고 활약하였던 것이다. 숙종대를 중심으로 노론과 남인의 대립, 혹은 같은 당파내의 경쟁과 분쟁은 이들 검계 세력이 정치세력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검계의 발생은 조선조 양반사회에 대한 하층민의 사회적 불만이 그 배경이지만 보다 직접적 원인은 따로 있었다. 첫째, 기아와 도탄에 빠진 민생을 외면한 채 벌이는 양반들간의 당파 싸움이 그들의 눈에는 너무도 한심해 보였다. 둘째, 과거제 특히 무과에서의 무더기로 합격자를 양산하는 만과(萬科) 등과 같은 국가 기강의 문란이었다. 세 번째는 이른바 ‘전화지행(錢貨之行)’ 즉 화폐의 유통으로 양반들의 부정부패, 이로 인한 일반 서민의 박탈감이었다. 네 번째, 호패법 실시에 따른 이서배의 농간이었다. 인구를 파악하고 거주를 제한하는 호패법은 하층민의 발을 묶는 것으로서 이들의 삶의 동력을 빼앗는 일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승전원일기, 숙종 13년 11월 24일 (기해) 원본326책/탈초본17책 (20/20) 1687년 康熙(淸/聖祖) 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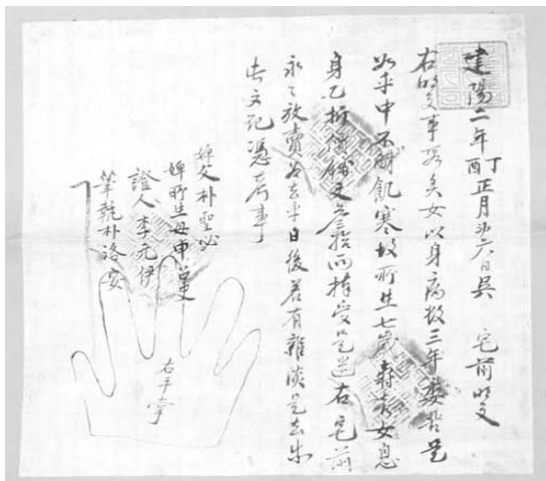
향도계가 양반에 대한 비교적 온건한 비판세력이었지만, 검계는 폭력을 무기로 하는 강경한 사회조직이었다. 이 때문에 정보에 보고되는 즉시 일망타진되곤 하였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19세기 초반 순조 대까지 그 활동이 지속되었다.



1767년(영조 43) 자매명문(自賣明文)



1801년(순조 1) 노비와 상전이 맺은 노주계 문서



1897년 자매명문



무술년 구할비 명문

조선시대 혼인의 의미와 여성

이 순 구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시대 혼인의 의미와 여성

◆ 목 차 ◆

1. 혼인의 의미
2.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혼인인가
3. 누구와 혼인했는가
4. 처가에 거주한 실례
5. 부부 관계

1. 혼인의 의미

“혼례라는 것은 두 성(姓)의 좋은 점을 합쳐, 위로는 종묘를 받들고 아래로는 후손을 잇는 것이다.” 『예기(禮記)』에 나와 있는 혼례에 대한 정의이다. 조선은 성리학의 수용과 함께 이를 ‘올바른’ 혼인으로 받아들였다. 이 구절의 내용은 이성지합(二姓之合), 즉 두 집안이 합친다는 것과, 또 종묘를 받들고 가계를 계승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우선은 역시 이성지합, 즉 두 집안의 결합이다.

중국에서는 남자 가족이 며느리나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은 취(取)한다고 한다. 그리고 신부 쪽에서는 누군가에게 ‘딸을 주었다 [여(與)]’거나 누군가에게 ‘신부 [처(妻)]’로 주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때로는 여자를 주어로 하여 여자가 ‘(시집)가 버렸다 [실(室)]’고 말하거나 혼인해서 시집으로 오는 것을 ‘돌아왔다 [귀가(歸家)]’라고 하기도 한다.

그리고 처(妻)는 아내에 대한 법률 용어로서 첩과 확연하게 구분된다. 언어학자들은 처라는 것은 ‘신원 확인(identity)’을 의미한다고 한다. 여성은 혼인함으로써 자신의 이전 신원을 잃어버리고, 남편의 신원에 흡수되어 한 세트의 일부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내를 얻는 것을 ‘실(室)을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아내를 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젊은 남자가 혼인했을 때 자신과 아내를 위해 방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의

미한다. 또한 남자들은 평상시 자기 아내를 내자(內子) 즉 안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내외(內外)를 구분 짓는 개념에서 나왔다. 중국의 혼인과 관련 용어들은 남자 위주로 부계 중심, 부권 중심, 시가(嫗家)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선의 현실은 어떠했을까?

“아침에 오수 찰방 정지(丁至)가 들었는데, 그에게 1월에 광선이 남원 김 사과(金司果) 집에 실(室)을 얻을 때, 위요(圍繞)가 되어 줄 것을 부탁했다. 그가 말하기를, ‘좋습니다. 신랑을 맞아서 오수에서 재우고 옷을 갈아입혀 역마를 태워 입장(入丈)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의 『미암일기(眉巖日記)』 한 대목이다. 여기에 있는 ‘실을 얻는다’는 표현이 혼인을 뜻하는 것은 중국과 같다. 그러나 방을 얻는 곳이 남자 집이 아닌 여자 집이다.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혼례식을 하고 여자 집에서 살림을 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에서 혼인은 ‘아내를 취(取)하는’ 것이기 보다 ‘장가드는’ 행위이다. 지금도 고문헌 국역(國譯)에서 ‘취’ 자를 ‘장가든다’로 번역하는데, 이는 우리 문화에서는 ‘취’를 ‘장가든다’로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만큼 남자가 움직이는 혼인 특성을 가졌던 것이다.

조선 초기 조정에서는 ‘남귀여가(男歸女家)’ 논쟁이 자주 등장한다. 중국 혼인에서 ‘귀(歸)’란 여자가 결혼해서 시집으로 오는 것인데, 조선에서는 ‘귀’라는 말이 남자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현실은 중국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조선의 혼인은 두 집안의 결합이 중국과 같이 부계 중심적이지 않고 비교적 대등한 관계로 이루어진다. 조선에서 여자가 혼인을 해도 자신의 성(姓)을 바꾸지 않았던 것은 바로 여자 집안의 대표성이 혼인 뒤에도 계속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나 혼인은 양쪽 집안의 공조(共助)를 바탕으로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관계가 비교적 대등하고 긴밀하며, 상호 의존적인 경우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답이 없지만, 그 관계는 꾸준히 지속되어 남귀여가혼으로 남았던 것이다.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총각들에게 ‘언제 장가가나?’라는 말로 여전히 생활 속에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혼인인가

“친영의 예는 법의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드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행한 지 오래되어 쉽게 고칠 수 없다. 태종 때에 친영의 예를 행하려 하였는데, 신료들이 이것을 듣고 꺼려하여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를 맞이하여 사위로 삼는 일이 있었으니, 그 싫어함이 이와 같아서 행하기가 어려웠다.”

세종은 친영이 좋은 법인 줄은 알지만, “우리나라에서 행한 지 오래되어 쉽게 고칠 수 없다”며 오랜 지속성이나 관성이 친영 도입의 장애 요인이라고 보았다. 사람들은 뭔가 남귀여가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남귀여가혼은 친영에 따른 혼인보다 기본적으로 혼인하는 두 집안의 관계를 긴밀하게 해 준다. 활동이 제약된 여자가 남자 집안으로 시집가면, 다시 친정에 갈 기회가 많지 않고 따라서 사돈끼리 만날 일도 거의 없게 된다. 그러나 남자가 여자 집에 가면 남자가 본가와 처가를 오가게 되기 때문에 두 집안은 자연스럽게 계속 접촉하고 유대를 긴밀하게 이어가게 된다. 당시 사람들이 친영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이렇게 유지해오던 협력 관계 또는 지원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8세기 영남의 대표적인 관직자였던 권상일(權相一, 1679~1759)이 쓴 『청대일기(淸臺日記)』를 보면 며느리를 들이는 과정이 흥미롭다. 1725년 2월 7일에 아들은 처가로 떠나 다음날 여자 집에서 혼인례를 치른다. 그리고 혼례 다음날인 9일, 신행(新行)에 따라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5일 뒤인 12일에는 아들이 돌아오는데, 이때에 며느리는 그대로 친정에 머물러 있다.

그 뒤 아들은 주기적으로 대략 한두 달에 한 번씩 처가에 오간다. 그리고 권상일 자신은 며느리를 보지 못한 채 아들이나 노비를 통하여 사돈이나 며느리와 편지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혼인 2년 5개월 만인 1727년 7월 22일에야 비로소 며느리의 신행을 맞는다. 그 사이에 며느리는 아들을 낳아서 7, 8개월이 되었다.

18세기 양반가의 보편적인 혼인 형태는 혼인식을 여자 집에서 하고 혼인 후 여자가 그대로 자신의 집에 머물다가 아이를 낳고 대략 1, 2년이 지내서야 신행 또는 ‘우귀(于歸)’라는 이름으로 시집에 가는 형태였다. 이는 이른바 ‘해묵이’로 불리는 남귀여가혼의 유제(遺制)이다. 해묵이 관습은 20세기 중반까지도 지역에 따라 유지되었다.

조선에서 국가가 아무리 한쪽 집안, 즉 부계 쪽에서 사회를 주도해 나가기를 바란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두 집안의 공조에 바탕을 두는 혼인을 원한 것으로 보인다. ‘사돈과 측간은 멀수록 좋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실제로 사돈 간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조선 후기 부계 위주의 가문 의식이 자리를 잡아가게 된 것과는 별개로 혼인에서는 친영례가 끝내 정착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친영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 외에 조선이 올바른 혼인의 요건으로 생각한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중매혼, 동성불혼, 상중을 피할 것, 금혼령 준수, 혼인 사치 금지, 혼기를 놓치지 말 것, 과부재가금지, 양친교혼 금지, 3년 내 사대부 재혼금지 등이 있다.

3. 누구와 혼인했는가

조선의 양반은 기본적으로 문벌 있는 가문과 혼인하고 싶어했다.

“제 고향에는 두 집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전일 남평관에서 말한 홀아비 이언눌(李彦訥)입니다. 그는 전 훈도 이림(李琳)의 아들이고 새로 급제한 언양의 형인데, 인물이 단정하고 가업(家業)이 풍족하며 나이도 겨우 40세이니 혼인하면 일생 근심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저의 외현조(外玄祖) 최유중의 자손 최응의 아들인데 인물이 영명하고 또 학기(學氣)가 있으며 산세(産勢)가 온족(溫足)하고 나이 이제 18살입니다.”

유희춘의 이종사촌 나사순 등이 추천한 혼처에 대한 평이다. 여기에서 학기란 학문할 수 있는 자질이며 ‘산세(産勢) 온족’은 재산이 넉넉하다는 말이다. 유희춘은 최생 쪽으로 기운다. 즉 사위는 재산보다는 관직자가 될 가능성이 중요했다.

유희춘의 처남 송군직(宋君直: 송정수)은 7품 관직에 있는 박사 조경중(趙景中)을 사위로 삼는 데에 대단한 집착을 보여 유희춘의 비난을 샀다.

“군직은 집이 부자고 다만 딸 둘뿐이니 딸과 나이 비슷한 사위를 맞이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반드시 관직자를 구해 눈앞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사위가 늙어 딸과 어울리지 않는 건 생각지도 않는다.”

유희춘의 반대에도 송군직은 결국 조경중을 사위로 맞아들였다. 조선은 관료사회이고 벼슬길은 곧 주류 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했기 때문에 과거 합격자나 관직자는 가치가 높았다.

여자에 대해서는 남자와 달리 그 집안의 재산 정도가 혼인의 요건으로 중요했다. 유희춘의 조카 광문(光雯)의 혼사에 혼처로 거론된 김항(金沆) 집안이 혼인할 만한 것은 ‘가문이 평평(平平)하고 재산이 넉넉하다’는 점이었다.

그렇다고 여자의 됴됨이를 전혀 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광문의 혼사에서 “처녀가 사람이 좋다”라거나 “처녀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것이 처녀의 인품을 애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장 집안에 대해서처럼 아버지의 인물됨을 본다든지 가문, 가행(家行)을 살핀다는 것이 여자들의 성품을 알아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4. 처가에 거주한 실례

늙으신 어머님을 고향에 두고
외로이 서울로 가는 이 마음
이따금 머리 들어 북촌을 바라보니
흰 구름 떠 있는 곳에 저녁 산만 푸르네

이 시는 신사임당이 38살, 혼인한 지 거의 20년(1541) 만에 비로소 친정을 떠나 시택으로 가면서 지은 것이다. 즉 이제 잠시 시택에 다녀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시택으로 완전히 살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이별이 그렇게까지 애절했던 것이다.

신사임당은 남편을 따라 봉평에서 살았다든가, 율곡이 1536년 강릉에서 태어나 만 5세인 1541년 서울로 오게 되었다는 기록 등으로 볼 때 혼인 후 20년 동안 거의 친정이나 그 근처에 살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오랫동안 친정에 머물렀던 것은 당시에 혼인 관행상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아버지 신명화가 서울 사람이지만 서울과 강릉을 오가다가 끝내 강릉에 살게 된 것, 신명화의 막내 사위 권화(權和)가 결국은 장모 이씨 부인을 모시고 산 것 등은 모두 당시 혼인 후 처가 쪽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비교적 조선 초기 인물인 김종직의 거주지 변화도 흥미롭다. 김종직은 어머니의 고향인 밀양에서 태어났다. 김종직의 아버지 김숙자(金叔滋)가 선산이 고향이지만 박씨와 혼인한 후 밀양에서 계속 생활했기 때문이다. 김종직은 21세에 김산(金山)의 조씨와 혼인한 후, 관직생활로 서울에 있는 동안 외에는 대체로 김산에 머물렀

다. 아들 목아(木兒)가 죽자 김산의 장모 이씨의 묘 곁에 묻었으며, 어머니 여묘살이를 마친 후에도 늘 김산의 농사(農舍)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관직을 그만둔 후에는 노년을 김산이 아닌 밀양에서 보내는데, 이는 처 조씨가 먼저 죽어 재혼했기 때문일 것이다.

김종직은 52세에 부인을 잃고 55세에 18세인 문극정(文克貞)의 딸과 재혼한다. 이때는 서울 명례동에서 생활하였는데, 혼인 후 바로 부인을 우귀(于歸)하게 한다. 김종직이 문씨를 바로 우귀하게 한 것은 본인이 나이가 많고, 지역이 고향이 아니었으며, 재혼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송(宋)의 정이(程頤)는 부모가 며느리 선택보다 딸의 남편을 찾아 주는 일에 더 신경 쓰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송나라의 부모가 딸의 혼인에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딸은 집을 떠나 다른 집안으로 가서 적응해야 했기 때문이다. 즉, 남자들이 결혼과 관계없이 같은 집에 계속 머무는 반면, 여자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혼하기 위해 한번은 움직여야 했는데, 그것이 부모에게는 대단히 우려되는 일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적어도 17세기 이전까지 혼인은 남성들에게 더 큰 변화를 주었다. 즉, 결혼하면서 새로운 주거지가 생기게 되고, 그곳이 어찌면 자신이 일생 사는 곳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조선 남자들이 혼인으로 겪는 변화가 중국에서 여자가 겪은 변화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한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계의 대표성은 조선에서도 역시 남자 집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5. 부부 관계

1) 우호적 부부 관계의 가능성

조선의 부부들은 극단적으로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혼인의 결합성이 공고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남녀는 인륜(人倫)의 시작이기 때문에 혼인은 맺을 때부터 신중할 것이 요구되었고, 또 나아가서는 헤어지는 것이 거의 용납되지 않았다. 국가는 부계적인 가족 제도에 따라 사회가 운영되는 것을 이상으로 한 만큼 가족의 안정성을 절대시했다.

흔히 조선 시대에 ‘칠거지악(七去之惡)’이라고 해서 여자들이 쉽게 쫓겨났을 것으

로 생각하는데 실제 이 칠거지악으로 부인이 쫓겨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칠거지악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을 철저히 교육했을 뿐만 아니라 자식을 낳지 못하면 양자 제도 같은 대안을 두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혼 가능성이 희박했으므로 부부는 상황에 적응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그리고 혼인이 개인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집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조선의 부부를 더 심한 갈등 관계에 놓이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부부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부모는 충분히 숙고한 끝에 환경이 비슷한 사람과 혼인을 맺어 주었던 만큼, 부부는 문화적 배경이 유사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근대 이후에서처럼 개인적인 갈등으로 고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조선 시대에는 부부라고 해도 동거 비율이 매우 낮았던 것이 부부 갈등이 첨예화되는 것을 막아 주기도 했다. 조선에서는 남귀여가혼으로 혼인하면 남자가 처가와 자신의 본가를 오가는 생활을 꽤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는데, 이 동안 부부는 가끔 만나 합방하는 정도였다. 또 남편이 지방으로 파견 나가거나 유배라도 가게 되면 부부는 몇 년씩 떨어져 있어야 했다. 앞에서 소개한 윤희춘도 40년 동안 부부 생활을 했는데 동거 기간은 20년이 채 안 된다고 했다. 유배와 외직(外職) 파견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선 시대 부부에게는 계속 부딪치면서 갈등을 겪을 요인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 시대 양반 집은 아주 가난한 경우가 아니면 안방과 사랑방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부부가 나쁜 관계를 만들거나 지속시키지 않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공간 분리는 소원함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존중감을 유지하고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는 데는 오히려 유리했다.

또한 부부의 역할이 잘 분담되어 있었던 것도 부부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남자는 집안의 일을 말하지 아니하고 여자는 밖의 일을 말하지 아니한다.”는 『예기』 내칙의 원칙은 부부 역할 구분과 권한의 분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명확한 역할 구분은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즉 부부간의 역할 구분은 부부관계가 좋게 유지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건이 되었다.

2) 부부 관계가 돈독한 사례

“이 참의까지 나오고 나면 영감께서 혼자 남으시게 되니 그 심회가 더욱 어떠하실까 하고 헤아려 보니 숨이 막힐 듯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 어느 약으로 이 답

답함을 고치라. 영감께서 나오신다는 기별만 있으면 반드시 시원해지리라. 이리 헤아리고 저리 헤아리니 정신이 얼음장 같아서 산이나 하늘만 바라고 지내나, 누운들 잠이 오며 비록 음식이 있다 한들 먹을 마음이 있으리오.” “꿈에 영감을 뵈옵고 서로 희학(戲謔)하여 뵈오니 나오시는가? 이 기별이 심양으로 들어가는가?” 남편 조씨부인의 사례이다.

유희춘은 부인 송씨가 유배지로 찾아 왔을 때 첩 구질덕을 고향 해남으로 보낸다. 부인과의 대면을 피하게 한 것이다. 부인의 건강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부인 송씨의 월경(月經)이 47세에 끊어지자 유희춘은 걱정하여 대궐의 의녀 선복을 불러 이유를 알아보게 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만년에 태평함을 누리고 금슬이 더욱 좋아진다”고 만족해 했다. 송씨는 경사(經史)와 한시(漢詩)에 능해서 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지기(知己)의 관계도 가능했다.

19세기 여성 성리학자인 강정일당은 늘 남편과 학문적인 토론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척독(尺牘)이라고 하는 일종의 쪽지 편지로 사랑에 있는 남편과 성인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하고 또 서로 학문을 독려했다. 당시 남편 윤광연(尹光演)은 정일당이 자기보다 글을 더 잘 짓는다고 생각하여 외부에서 부탁받은 글을 부인에게 대신 쓰게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강정일당이 먼저 죽고 난 후에는 부인의 문집(文集)을 간행했다.

물론 모든 부부 관계가 이렇게 좋았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앞의 우호 관계의 가능성에서 봤듯이 조선의 부부는 부부 관계를 잘 유지하는 데 함께 노력했을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좋은 관계를 더 많이 확보했을 것이다.

3) 투기한 사례

16세기 중반 이문건의 처 김씨 부인의 질투는 유난했다. 1552년(명종 7) 겨울 이문건이 58세 되던 해에 부인 김씨는 종대(終代)라는 기생과 남편 사이를 의심하여 추궁했다.

- 부인이 밤새 해인사 숙소에서 이상한 일이 없었는지 자세히 물었다. 기생이 방에 있었다고 말한 까닭에 부인이 크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아침이 되자 베개와 이불 등을 모아 칼로 찢고 불에 태웠다. 그리고 두 끼를 먹지 않고 종일 질투하며 꾸짖으니 염증이 난다.

- 당(堂)에 들어가 처를 만났는데, 처가 크게 화내고 질투하며 말하기를 “멀지도 않은 곳인데, 어떻게 밤에 돌아오지 않고 기생을 끼고 남의 집을 빌려 잘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찌 노인이 할 일입니까? 제가 상심해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습니까?” 꾸짖는 것이 너무 심하니 몹시 귀에 거슬려서 나 또한 대답이 부드러울 수 없었다. 서로 격해져서 더욱 어긋나니 다시 가소롭다.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물밥을 먹고 잤는데, 처도 약간은 먹었다. 피곤하여 누워 있는데, 여전히 추궁하며 말할 때마다 종대를 거론하니 참 가소로운 일이다.
- 낮에 누워 (부인에게) 농담을 하기를 기생 중에 예쁜 애가 없다 했더니, 부인이 화를 내며 종대 생각하고 그런 것이라며 질책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초저녁에 달려 나가 아래 집으로 가 버리니 가히 ‘질투 잘 하는 사람’이라 할 만하다.
- 부인이 여기에 머물렀다. 종대를 투기하여 여러 차례 눈물을 흘리고 오열을 그치지 않았다. 부인의 재난이 이 지경에 이르렀도다.¹⁾

여기서 김씨 부인의 감정 표현은 적나라하고 적극적이다. 이는 김씨 부인의 본래 성격에도 기인하겠지만, 아직 조선이 유교적 도덕성에 매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문건은 종대와의 관계를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했다. 나름대로 타협이었다. 부부 관계, 가족 관계 유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래된 첩에 대해서는 질투하지 않았다. “천남이 어미가 오시(午時)에 아들을 낳았다. 영감 마음이 우쭐우쭐 하시다. 나는 어찌된 팔자가 딸 하나와 아들 넷을 낳았으나 종적도 없어졌는가. 나이도 많고 병이 드니 더욱 설위한다.” “차자(次子)를 얻으셔도 가지 못하시니 민망하다.” 『병자일기』에서 조씨 부인이 첩이 둘째 아들 낳은 것을 바라보고 적은 감회이다. 질투하기 보다는 오히려 바쁜 남편이 아들을 얻었는데도 가 보지도 못 하는 것을 민망해한다. 첩을 첩으로서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리고 사실상 조씨 부인은 첩에 대해 마음 쓸 겨를이 없어 보인다. “손님네들이 종일 오시니 다 기록하지 못하겠다.”, “손님이야 그칠 사이가 있으며 약주 아니 자실 리가 있으랴”와 같은 접빈객(接賓客), 또 시아버지, 양어머니, 친정어머니 제사 등의 봉제사(奉祭祀)로 늘 바쁘기 때문이다. 남편이 대사헌에 오를 정도의 집안에서 적처(嫡妻)는 적처로서의 역할과 위치가 있기 때문에 신분이 다른 첩과는 애초부터

1) 『목계일기』 1552년 10월 5일, 11월 21일, 11월 28일, 12월 7일.

경쟁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처와 첩의 갈등은 처첩 사이의 위계질서가 확고하지 않을 때 커질 수 있다. 가령 첩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남편의 사랑에 한정된다. 비록 첩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은 서자 신분이기 때문에 첩이 아들을 근거로 하여 누릴 수 있는 권한은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적서(嫡庶) 구분이 명확했던 조선에서는 처첩이 경쟁할 요인이 적었고 갈등은 극대화 되지 않았다.

그리고 기생에 대한 투기이든 첩에 대한 관리이든 여성들은 부부 관계를 극단으로 몰고 가는 것은 삼갔다. 당시 부부들은 국가가 갈등 관계에 있는 부부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도 가족이 주는 안정감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여성의 일과 생활

한 희 숙

(숙명여자대학교)

조선시대 여성의 일과 생활

◆ 목 차 ◆

1. 조선시대 신분과 여성생활
2. 특수직 여성의 일과 생활

조선시대 여성들은 가사를 주로 담당했을 것으로 짐작하지만 여성들의 일이 반드시 가사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여성들은 육아와 가사를 책임지는 것은 물론 그 외에 틈틈이 직조를 하여 의생활을 자급자족하고 세금을 충당하였다. 조선시대 여성은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살펴볼 때 신분에 따라 그 양상이 달랐다.

1. 조선시대 신분과 여성생활

1) 왕실여성 : 왕비와 후궁

○ **왕비** : 왕비란 왕의 정처이며, 국모를 지칭하는 호칭. 중궁, 모비(某妃). 모두 전(殿), 궁이라 칭함.

빈은 정1품. 세자의 정처인 왕세자빈과 왕의 후궁.

* **비빈의 수** : 고려는 빈의 수가 일정치 않고 적첩의 구별도 없어 여러 비는 동등한 신분적 위치에 있었던 것. 그러나 조선 건국 후 처첩, 적서의 구별을 분명히 할 것이 요구됨. 1비 이외에는 모두 후궁.

* **간택의(揀擇儀)** : 비나 후궁을 간택할 때는 전국의 처녀에게 금혼령을 내림. 세종은 15세 이상을 가혼 연령으로 삼았고 세조는 연령의 제한을 없앴지만, 금혼령 대상 연령은 대개 16세 이하에서 8세까지. 비, 후궁을 간택하게 되면 조정에서는 가례색을 설치하고 전국에 연령해당자에게 금혼령을 내림. 간택 대상은 대개는 사대부 규수.

세자빈의 간택조건은 가계, 부덕, 자색(미모) 등 3가지, 자색에 치우치지 않기 위한 간택방법으로 처녀의 집을 순방하여 택하고 다시 이들을 창덕궁에 모아 선발함. 간택은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으로 이루어짐.

동궁이 세자로 책봉되면 세자빈으로, 세자가 즉위하면 비로 승격됨. 또 비나 세자빈 자리가 비었을 경우, 재간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후궁 중에서 승격시켜 왕비나 세자빈으로 삼음.(숙종대 장희빈 사사 이후는 불허) 이씨는 본관을 불문하고 제외됨. 후궁의 경우도 간택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는 이씨가 없음.

- * **교육** : 최종 간택에서 낙점받은 처녀는 그날부터 별궁에 들어가 일정기간 궁중 예절과 왕비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음. 예의범절교육을 마치면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왕비나 세자빈이 됨.
- * **폐비** : 조선초 7대 동안 4,5차례 폐비문제가 대두되었고 3명의 세자빈이 폐출됨. 원인은 불의, 부덕으로 가법을 더럽힌 경우. 정치적 사건으로 왕 또는 세자가 폐위되었을 때 따라서 폐비 또는 폐빈이 됨.
- * **은전(恩典)** : 비의 경우 고향을 승격시키고, 향리 수를 증가시켜 줌. 후궁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후궁은 노비 전결 등을 급여함. 왕비의 아버지는 부원군에, 어머니는 부부인에 봉하고, 각종 물품을 내려주고 죽었을 경우 조의를 위한 장례용 물품 등을 내려줌.
왕비의 족친은 아주 무능한 자가 아니면 다 관작을 받음. 후궁의 근친에게는 1,2품에 해당하는 고관직을 부여하기도 함.
- * **생활** : 절검을 미덕으로 삼아 비빈들은 검소한 의식생활을 추구. 부덕이란 미명하에 정신생활의 제약을 받음. 왕비는 아들을 낳는 것과 상관없이 죽어서는 종묘에 신위가 안치됨.

○ 왕비가 하는 일은 :

- 왕비는 국모로서의 역할, 내·외명부를 거느림. 내명부에는 왕의 후궁과 상궁, 궁녀들이 속해 있었고, 외명부에는 종실의 처, 왕과 세자의 자녀, 문무반의 부인들이 속해 있었음. 왕비는 원칙적으로 무품계로, 품계를 초월한 존재.
- 양잠과 방직을 손수함. 친농과 같이 왕비가 직조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일반 부녀자들의 양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친잠(親蠶)을 강조함. 이때 친잠례는 부덕(婦德)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 이념적으로도 양잠의 활성화를 기대함. 친잠 때에는 중궁이 왕세자빈과 내외명부를 모두 인솔하여 채상단 밖에서 의

- 식을 거행함. 먼저 채상 즉 뽕나무 잎을 따는 일이 있고, 그 다음은 따놓은 뽕 잎을 모아 광주리에 담은 행위를 한다. 여기서 왕비가 실제로 노동을 하느냐 않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왕비 자신이 충실하게 이러한 의식을 수행한다는 사실에서 직조노동의 중요성, 그 보급 노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것.
- 여가를 이용하여 저술함. 소혜왕후 한씨 『내훈』, 혜경궁 한씨 『한중록』 등.

○ 후궁이 되는 방법 :

1. 왕의 승인을 입는 것.
2. 왕비처럼 간택을 거쳐 후궁이 되는 경우. 2-3명의 후궁을 정식 간택을 통해 들였다.

후궁은 정1품 빈, 종1품 귀인, 정2품 소의, 종2품 숙의, 정3품 소용, 종3품 숙용, 정4품 소원, 종4품 숙원으로 나누어짐. 후궁 소생이 세자가 되는 경우 특별한 대우를 받음. 정1품 빈의 품계와 궁호를 특별히 하사받았다.

-> 궁정동 칠궁 : 원궁, 경궁, 진궁, 장조, 영조, 순조, 영친왕의 어머니

표 1 조선시대 후궁의 품계

품계	정1품	종1품	정2품	종2품	정3품	종3품	정4품	종4품
칭호	빈	귀인	소의	숙의	소용	숙용	소원	숙원

2) 양반 여성

양반여성은 남편의 직위에 따라 외명부 직첩을 받음. 관료부인의 산직체계인 외명부에는 당상관 부인은 ‘부인(夫人)’이라는 말이 붙고, 당하관 부인에게는 ‘유인(孺人)’으로부터 ‘숙인(淑人)’까지 ‘인’자가 뒤에 붙음.

표 2 조선시대 외명부

품계	1품	2품	정3품 당상관	정3품 당하관	종3품	4품	5품	6품	7품	8품	9품
칭호	정경부인	정부인	숙부인	숙인	신인	영인	공인	의인	안인	단인	유인

○ 양반 여성의 최대 임무 : 제사 모시기(봉제사)와 손님접대(접빈객)

- * **봉제사** : 조선의 제사 범위는 본래 『경국대전』에 「문무관 6품 이상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의 3대를 제사하고 7품 이하는 2대를 제사하며 서인은 단지 죽은 부모만을 제사한다.」고 되어 있음. 대부분의 양반 집안에서는 4대 봉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 조선 후기에는 서민들의 경우에도 4대 봉사를 하기에 이름. 조선 중·후기 이후가 되면 윤회나 외손봉사가 줄어들고 여성들은 시집의 제사를 대부분 4대까지 담당하게 됨. 다례와 시제를 포함하면 많은 경우 10번 이상의 제사를 지내야 함.
- * **접빈객** : 조선 사회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곧 집안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 양반 사회에 있어서 ‘접빈객’은 필수불가결한 공조기능. 여성들이 접빈객을 담당한 것은 단순히 집안일의 연장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사회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유지시키는 핵심적인 바탕이 됨.
- * **가정 내 경제 관리** : 여성들의 가정 경제 관리는 크게 토지 관리와 노비 관리. 집안 내에서 남자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남자가 가정경제를 관리하는 경우도 없지 않음. 공간 열쇠를 여성이 가짐.

3) 양인여성과 노비여성의 일

○ **농업 분야의 여성 노동** : 실학자 유수원은 『우서』에서 「농가의 부녀는 농사일 하고 식사를 마련하느라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쁜데, 또 스스로 옷까지 짜서 입어야 하니 그 옷 짜는 것이 막히고 잘 나가지 못한다.」고 함.

조선시대 여성들이 농사나 가사 일을 하고 길쌈을 함.

가족노동에서 노동력을 제공해야 할 인원이 대략 4~5명 선으로 본다면, 여자들의 노동력이 투입되지 않고서는 농사를 짓기 어려웠을 것. 이양법 등 생산기술이 발달하고 농업형태가 집약농업으로 바뀌는 조선후기가 되면, 김매기의 감소 등으로 남성노동중심이 되며 여성노동의 몫은 줄어들게 됨.

밭농사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참여율이 더 높았고, 노동력 투입에서도 일시에 많은 노동력이 요구됨. 조선 초기 인정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일반농민의 경우 당연히 남녀의 구분 없이 동시에 보리 수확에 참여했을 것.

『농사직설』에는 게 첫 담구기, 식품저장, 장담구기 등 식생활의 가사일로서 여성들이 담당했던 일들도 수록되어 있음.

○ 직조(길쌈) 분야의 여성 노동 : 길쌈 즉 직조는 전근대 사회생활에서 농업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생산 활동. 조선시대에는 왕이 친농을 하는데 대하여 왕비가 친잠을 행함. 포는 화폐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한 것.

「남자는 밭 갈고 여자가 길쌈하는 것은 천하의 대업이다. 밭 갈지 않고 어찌 먹으며 양잠하지 않고 어찌 옷을 입을 수 있겠는가」 -> 견우와 직녀

당시 성역할 분담 형태를 대변해 줌. 길쌈은 신분의 차이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 여성이 해야 하는 일. 대체로 한 포를 짜는데 40시간이 걸림. 가사노동을 제외하고 하루에 2-3시간 잡는다면 15일 정도 걸림. 목화는 재배부터 수확까지 대체로 여성 노동의 비중이 큰 농사일. 누에치기에서부터 양잠까지도 여성의 일.

조선시대 사람들은 의와 식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필수품이라는 공통된 인식. ‘권농상(勸農桑)’을 수령 7사의 최우선적인 항목으로 하는가 하면, 국가에서 양잠을 장려하면서 일반적 권장책 외에 보다 구체적인 양잠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도 함.

견·면 이외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 직물은 麻, 즉 베로 화폐로 유통되어 쌀과 함께 인간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생활용품. 견직물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산이 적극 권장된 직물로서, 후비의 친잠례가 대표적인 여성 직조노동의 실례.

노비들은 신공으로 면주(綿紬)를 납부하거나 아니면 잠실의 잠모로서 역할을 수행하던 양잠에 관여함.

일반인들은 3월부터 실질적으로 양잠을 수행함. 누에의 종을 선택하는 것, 개미 누에를 섬세하게 보살피는 일, 뽕잎 채취, 손질, 먹이주기, 실켜기 등이 모두 여자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 양잠은 스스로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사나 육아, 농사를 하는 틈에 수행해야 했으며, 양잠이 시기를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양잠의 어려움이 있었다. 양잠은 면이나 베와 달리 방적까지가 여성의 몫이며 방직으로 이어지지는 않음. 일반민 여성들의 직조노동 즉 길쌈은 면이나 베를 짜는 일이 대부분이며, 견 즉 비단직조는 일반 여성의 길쌈에 포함되지 않음. 견직에서 여성노동은 양잠에 한정되며 견직직조는 중앙의 견공장에서 이루어짐. 양잠에 의해 생산된 실을 견사(繭絲)라고 하는데, 일반민들의 양잠활동은 이 견사를 생산하여 진상하는 데에 그침. 그런데 뽕잎 채취와 같은 단순노동에는 남자들도 참여하였지만 미미한 정도. 견사를 생산하는 일도 섬세함이나 근면성 외에 힘든 노동을 수반하였으므로 여자들에게는 쉬운 일은 아니었다.

면직에서도 예외는 아님. 다른 농작물에 비해 유난히 김매기의 기간이 길고 횟수

가 많았고, 목화 따는 일이나 실갠기 등의 일이 낙후성으로 인해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함. 당시 부녀자들은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을 하고 남은 시간에 직물생산노동을 행하였으므로 생산하는 직물의 양이 결코 많은 것은 아니었으며, 주로 저녁식사 이후의 시간을 이용.

또한 세금을 내기 위해 급하게 길쌈을 함. 남자들의 군포는 2필, 노비에게 책정된 신공은 1필. 국가는 이들 포에 등급을 매기고 화폐로 유통시킴. 조선 시대 유통되던 세금과 화폐의 대부분을 여자들이 생산해냈던 것. 여성 직조노동의 국가적인 기여도는 매우 큼.

4) 경제적으로 성공한 여성들의 등장

조선 후기에 이르러 농업은 물론 상업과 공업에서도 발전이 이루어짐. 여성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거나 경제력을 향상시켜 나감. 양인 여성들은 시전에서 직접 점포를 운영하기도 함. 여성이 운영한 점포를 ‘여인전’이라고 함. 18세기 말 정조의 문집인 『홍제전서』에 의하면 120여개의 시전 가운데 여인전은 18개가 있었다고 함.

여인전 : 상우전, 하우전, 전우전, 송현우전, 정릉우전, 문외우전(우전은 과일 파는 가게) 족두리, 백당전(엿, 사탕) 채소전, 내분전(종로 거리에 있었음) 외분전(서소문 밖에) -분전은 연지와 분. 침자전(반질 도구) 문내좌반전(간한 생선이나 젓같은 반찬류) 떡

거상 김만덕의 경우 : 10세 때 고아, 처음에는 기생집 의탁, 20세 넘자 양인 여성임을 관에 호소. 기생에서 벗어남. 이후 독신으로 지내면서 장사에 남다른 재주가 있음. 십수년에 만에 재산을 꽤 모음. 1792년(정조 16)부터 1795년(정조19) 사이에 제주에는 흉년이 들어 식량 사정이 매우 좋지 못함. 만덕은 재산을 빈민 구조를 위해 회사함. 정조는 특별히 만덕을 내의원 의녀로 임명하여 서울로 오게 함. 만덕의 나이 57세 때. 왕비에게 인사, 금강산 유람하고 옴.

양반 여성들도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하기도 함.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 여성들은 주로 샅바느질을 하여 생계를 꾸려감. - 허생의 처 통천의 김씨의 경우 여자로서 큰 재산을 모으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가짐. 빙허각 이씨는 차밭을 경영하여 가계를 꾸려나감.

-> 여성들은 장사나 상업적 발농사의 경영 또는 사채 행위 등 다양한 이익활동을 하여 돈을 벌.

1696년(숙종 22) 양반 여성이 동전을 주조하여 나라가 발각 뒤집힌 사건이 발생함.

2. 특수직 여성의 일과 생활

조선시대 직업을 가지고 있던 특수직의 여성으로는 궁녀, 의녀, 기녀, 무녀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신분상 천민이었지만 각각의 전문성을 가지고 특수직에 종사함.

1) 궁녀

(1) 궁녀의 설치와 선발 : 대궐내의 대전·내전·대비전·세자궁 등과 기타 각종의 별궁에서 일하던 여성. 내명부 가운데 정5품 상궁 이하의 궁인직에 해당하는 여성들. 국왕이나 세자의 부실(副室)이 되면 궁녀로서의 신분을 면하고 승격하게 됨.

정5품 상궁에서 종9품 주변궁까지가 궁녀의 신분에 해당하였지만, 아무런 품계 없이 궁중에서 천역에 종사했던 수사(水賜) 등도 넓은 의미의 궁녀에 해당함. 궁녀라는 용어 이외에도 ‘나인(內人)’, ‘시녀’, ‘궁인’ 등으로도 불림.

궁녀 제도는 태조 6년 조준, 정도전의 건의에 의해 시작됨. 세종대에는 명칭과 품계, 직무까지 명시한 본격적인 여관제도가 설치됨. 세종 12년에는 동궁의 여관제도도 확정됨. 여관제도는 성종 때 『경국대전』에서 내명부로서 확정되어 조선 말기까지 존속함.

보통 궁녀에는 3가지 등급, 상궁·나인·애기나인으로 나뉨. 이들도 입궁시기와 소속부서에 따라서 격의 높낮이에 차이가 있고, 위계질서가 형성되어 있었음.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상궁. 상궁 밑으로는 나인이 있었으며, 이들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였음. 나인 아래에는 애기나인이 있었는데, 이들은 아기나인 또는 생각시라고도 하였음.

표 3 조선시대 궁녀의 품계

정5품	종5품	정6품	종6품	정7품	종7품	정8품	종8품	정9품	종9품
상궁 상의	상복 상식	상침 상공	상정 상기	전빈 전의 전선	전설 전제 전언	전찬 전식 전약	전등 전채 전정	주궁 주상 주각	주변징 주정 주우 주변궁

- 정5품 상궁(尙宮) 왕비를 인도하며, 상기와 전언을 통솔.
 상의(尙儀) 일상생활의 모든 예의와 절차를 맡았으며, 전빈과 전찬을 통솔.
- 종5품 상복(尙服) 의복과 수로 무늬놓은 채장을 공급하고, 전의와 전식을 통솔.
 상식(尙食) 음식과 반찬을 준비하였으며, 전선과 전약을 통솔.
- 정6품 상침(尙寢) 왕을 일상으로 뵈 때와 왕이 옷을 입고 먹는 일의 진행을 맡았으며 전설과 전등을 통솔.
 상공(尙功) 여공(女功)의 과정을 맡았고, 전제와 전채를 통솔.
- 종6품 상정(尙正) 궁녀의 품행과 직무단속 및 죄를 다스림.
 상기(尙記) 궁내의 문서와 장부의 출입을 담당.
- 정7품 전빈(典賓) 손님 접대, 신하가 왕을 뵈 때 접대, 잔치 관장, 왕이 상을 주는 일 등.
 전의(典衣) 의복과 머리에 꽂는 장식품의 수식을 맡음.
 전선(典膳) 음식을 삶고 졸여 간에 맞는 반찬을 만듦.
- 종7품 전설(典設) 장막을 치고 돛자리를 준비하며 청소하는 일과 물건을 베풀어 놓는 일.
 전제(典製) 의복 제작.
 전언(典言) 백성에게 널리 알리고 왕에게 아뢰는 중계구실 담당.
- 정8품 전찬(典贊) 전빈과 같음.
 전식(典飾) 머리를 감고 화장하는 일과 세수하고 머리 빗는 일을 담당.
 전약(典藥) 처방에 따라 약을 달임.
- 종8품 전등(典燈) 등불과 촛불을 맡음.
 전채(典彩) 비단과 모시 등 직물을 맡음.
 전정(典正) 궁관의 질서를 바르게 하는 일을 도움.
- 정9품 주궁(奏宮) 음악에 관한 일을 맡음.
 주상(奏商) 음악에 관한 일을 맡음.
 주각(奏角) 음악에 관한 일을 맡음.
- 종9품 주변치(奏變徵) 음악에 관한 일을 맡음.
 주치(奏徵) 음악에 관한 일을 맡음.
 주우(奏羽) 음악에 관한 일을 맡음.
 주변궁(奏變宮) 음악에 관한 일을 맡음.

궁녀의 선출방법은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 왕의 입장에서는 양가의 딸을 뽑고자 하였고, 양가에서는 이를 피해 조혼의 풍습까지 유발하게 됨. 왕이나 왕비를 모시는 경우는 선출 방법에 다소 예외가 있었고, 먼저 입궁한 궁녀의 가까운 친척 가운데 소개되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음.

입궁연령은 지밀이 가장 어린 4~8세, 침방과 수방은 6~13세, 그 외에는 12~13세가 일반적. 궁녀는 20세 전후에 계례를 치르고 정식 나인이 됨. 나인이 된 후에 15년이 경과되어야 상궁의 자리에 오름, 왕의 후궁이 되면 20대에도 상궁이 될 수도 있었다. 이런 궁녀는 왕의 자손을 낳기 전에는 상궁으로 머물게 되지만, 대신 궁녀의 기본적 임무는 주어지지 않고 왕의 시중만 전담하게 됨. 이 경우를 승은상궁(承恩尙宮)이라 함. 이들이 왕의 자녀를 낳게 되면 내관인 종4품 숙원(淑媛) 이상으로 봉해지고, 독립세대를 구성하게 됨.

(2) 궁녀의 생활

궁녀들은 대체로 어려서부터 수련을 쌓았는데, 지밀나인 등 중요한 직책의 궁녀들은 한글·소학·여사서 등 기본적인 지식을 익히고 공손히 앉고 일어서는 법, 절하는 법, 글쓰는 법 등 궁중생활에 필요한 동작과 용어, 궁체 쓰기 등을 배움. 이러한 수련을 거친 궁녀들 중에서는 높은 교양을 쌓은 자들도 있었는데, 『계축일기』, 『인현왕후전』 등의 궁중문학을 남기기도 함.

전체 궁녀 수는 제도적으로 확정되어 있지는 않아, 초기에는 많지 않았는데 후기로 내려오면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궁중에서 일하는 대가로 지위에 따라 차등있게 월봉과 생활필수품 등을 지급받음, 재정형편에 따라 감해지기도 하는 등 유동적임.

궁녀는 실제로 왕족들이 자신들의 생활상 편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존재. 궁궐 내의 모든 궁녀들은 입궁에서 퇴출까지 원칙적으로 종신제. 그러나 중병 또는 가뭄으로 궁녀방출이 이루어지거나 모시고 있던 상전이 죽는 경우에는 중도에서 궁궐을 나갈 수 있었음.

궁녀의 근무상황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당번과 비번으로 교대함. 시대에 따라 하루 종일 근무하거나 3번으로 나누어 근무하기도 함. 천재를 당하면 여원(女怨)을 풀어주기 위해 궁녀를 내보내는 관습이 있었음. 궁녀는 궁 밖에서는 다른 남자와의 혼인이 금지됨. 방출시녀를 첩으로 삼는 경우 탄핵을 받음. 궁녀는 출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단절됨. 불만이 많음. 궁녀 사이에 동성애(대식)도 존재함.

○ 궁녀 더 알아보기

제조상궁/ 부제조상궁/ 지밀상궁/ 보모상궁/ 시녀상궁/ 일반상궁/ 나인(입궁 후 15년이 지나 관례를 치룬 후의 궁녀들을 지칭.)/

생각시 (지밀 애기 나인을 지칭. 머리를 생으로 묶는다 하여 이름 붙여짐.)/각시 (지밀 생각시 외의 애기 나인들을 지칭.)

궁녀는 정5품 상궁(尙宮)직을 최고로 하여 최하 4,5세의 어린 견습나인(아기나인)까지 있으며 각기 소속된 처소, 직분, 신분에 따라 명칭이 다름.

다양한 궁녀의 명칭은 의식(儀式) 때 직무를 분장(分掌)할 때에 쓰이고 평상시에 는 단지 '상궁', '나인(나인)'의 두 종류로 크게 나뉜.

가. 상궁

상궁은 직첩을 받으면 그날부터는 머리에 첩지(머리 가르마 가운데에 장식하는 것)를 달게 됨. 상궁이 되기 전은 향아(姮娥, 嫦娥; 달 속에 있는 선녀)님이라 부르고 상궁이 되면 비로소 마마님이라 부르고 대접받음. 상궁 첩지를 받으면 궁안에 방을 하나씩 주어 따로 세간을 내줌. 따로 밥짓고 빨래하는 하녀를 두고 살림을 하는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을 각방서리라 함. 이러한 내명부소속의 상궁들은 정5품으로 품 계는 모두 같다. 그리고 그 이상의 품계가 높아지진 않는데 그 이유는 후궁들 중에 가장 낮은 품계의 숙원이 종4품이기 때문.

▶ 제조(提調)상궁 : 제조상궁은 일명 큰방상궁이라고 하여 수백 명의 궁녀 중 으뜸이 되는 상궁으로 권세와 권위가 대단하여 남자관리로 치면 영의정의 지위와 같다고 하겠다. 제조상궁은 단 한사람이며, 자격은 궁녀 중에 연조가 오래 되고 위품이 있고 인격이 높아야 함. 학식이 많고 수많은 궁녀를 통솔할 수 있는 영도력이 있어야 하고 인물도 출중하여야 함. 제조상궁의 임무는 대전 어명을 받들고 내전의 대소 치산(治産)을 주관함. 제조상궁에 대한 음식대접은 임금님의 수라상과 가짓수를 같게 하고 분량만 적게 함. 그리고 큰방 상궁이 궁궐을 출입할 때는 세수간 나인과 비자(婢子)가 따라 다님.

▶ 부제조(副提調)상궁 : 부제조상궁은 제조상궁의 다음 자리로 일명 아랫고(阿里庫, 下庫)상궁이라고도 하며 제조상궁이 세상을 떠나면 그 자리를 이어감. 보석과 의식주에 걸친 왕의 귀중품은 물론 수라에 쓰이는 반상기용인 은기(銀器), 자기(磁器) 및 유기(鍬器)와 비단 등이 있는 아랫 곳간의 물품들의 출납은 부제조상궁의 담당.

- ▶ 대령(待令)상궁 : 대령상궁은 일명 지밀상궁이라고 함. 향시 왕의 곁에서 어명(御命)을 받드는 자세로 대기하고 있음.
- ▶ 보모(保母)상궁 : 보모상궁은 왕자녀의 양육을 맡는 나인들 중의 총책임자. 동궁에 두 명, 그 밖의 궁에는 한 명씩. 왕자녀들은 어릴 때에 이들을 '아지(阿只)'라고 부름.
- ▶ 시녀(侍女)상궁 : 시녀상궁은 궁중의 지밀에서 상시 봉사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행함. 서적 등을 관장하고 글을 낭독하고 글의 정사(淨寫)를 맡고, 대소잔치의 내연에 좌우 찬례(贊禮), 전도(前導), 승인(承引), 시위(侍衛) 등을 거행하고, 각 종실(宗室), 외척(外戚)들의 집에 내리는 하사품에 관한 업무를 관장, 규찰(糾察)하고 그릇과 기타를 다스리는 일 외에 대소 사우(祠宇; 따로 세운 사당집)를 총관하여 곡읍(哭泣; 소리내어 슬피움)도 하며, 왕비와 왕대비의 특사로 그 본택(本宅;친정)에 어명을 받들고 나가기도 함.
- ▶ 특별상궁(승은상궁) : 상궁 중에는 '승은상궁'이라 불리는 이도 있음. 일명 '특별상궁'. 승은(承恩)은 왕의 손이 닿은 것을 일컬음. 자녀를 낳지 못한 경우 승은상궁 또는 특별상궁의 지위에 머뭄. 이들은 일정한 직책 없이 다른 후궁과 같이 왕의 곁에서 왕을 모심. 이들은 나중에 승격되어 귀인이 되기도 함.
- ◆ 감찰(監察)상궁 : 감찰상궁은 궁 안에서 일어난 궁녀들의 음란, 비리, 모함, 사치 등의 모든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또 조사하여 조금이라도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한 궁녀들에게는 가차 없이 처벌하던 상궁.
- ▶ 일반상궁 : 이상의 상궁들 외에 뚜렷이 직함이 붙지 않은 일반상궁들이 각 처소마다 7, 8명씩 있어서 그 아래의 나인들을 총괄하고 처소마다의 모든 업무를 책임지기도 함. 상궁들은 존칭으로 '마마님'이라 부르는데 민가에서는 대가택의 소실(小室)을 높이는 말이기도 함.
- ◆ 세수간(洗手間)상궁 : 세숫물과 목욕물을 준비하던 곳의 책임 상궁으로서, 세수간은 옷칠한 커다란 함지에 따뜻한 물을 담고 목욕을 시키는 일과 내전을 청소하는 일을 함. 한편 세수간상궁은 왕비가 나들이할 때 가마 옆에 서서 시위하는 역할의 중요한 임무도 함.
- ◆ 세답방(洗踏房)상궁 : 세탁과 다듬이질, 다리미질 그리고 염색 등을 담당하던 일명 빨래방의 상궁.
- ◆ 복이처(僕伊處)상궁 : 아궁이를 담당하는 곳의 책임 상궁으로, 침실에 불을 때는 것과 내전에 불을 밝히는 임무를 담당하였으며 세답방에 예속되어 있었으

나 임무가 독립적인 기능을 하던 곳.

- ◆ 침방(針房)상궁 : 왕과 왕비가 옷을 편하게 입도록 하며 또 잘 때는 평안하게 자도록 옷과 이부자리를 만들던 곳인 침방 나인들을 맡아서 총괄 관리 책임지는 상궁.
- ◆ 수방(繡房)상궁 : 왕과 왕비의 옷에 수를 놓거나 장식물을 놓는 일을 담당하는 수방을 총 지휘한 상궁.
- ◆ 수라간(水刺間)상궁 : 수라간은 소주방이라고도 하였는데, 안소주방과 밖소주방으로 나뉨. 안소주방 상궁은 왕과 왕비의 조식 수라상을 관장하였으며 밖소주방 상궁은 궐내의 잔치와 윗분들의 탄일에 잔치상을 차리며 차례 등도 담당함.
- ◆ 기미(氣味)상궁 : 왕과 왕비에게 올려진 수라를 곁에서 한 술씩 미리 먹어 보며 검시하던 상궁. 왕과 왕비를 모해하려 함에 혹시나 수라음식에 해가 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던 절차를 담당하던 상궁.

궁녀 중 엘리트라 할 수 있는 지밀은 왕을 제일 가까이에서 모시기 때문에 후일 왕의 후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았다고 함.

나. 나인(內人)

나인(내인)은 관례를 치르고 성인이 된 궁녀를 이르는 말. 원칙으로는 소녀 때에 견습여관(女官)으로 들어와서 15년이 경과되어야 나인이 됨. 왕이 있는 대전(大殿) 외에도 왕대비(中殿), 대왕대비, 동궁 그 밖의 왕자, 공주의 궁과 그리고 후궁과 별궁에 소속된 여인들까지 속함. 더욱이 왕의 사친(私親)의 사당(祠堂)을 지키는 이들까지 포함됨. 즉 왕과 왕비가 거처하는 궁전을 각전(各殿)이라 하고, 대군, 왕자, 공주, 옹주, 후궁, 신주를 모신 곳을 각궁(各宮)이라 하여 궁인(宮人)이라는 관리를 두고 있음. 왕족들이 사는 궁들은 각기 사유재산과 그밖에 국가에서 내리는 공물(供物)을 가지고 완전히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으므로 그 궁에 소속된 나인들은 물론 그 궁에서 보수를 받음.

- * 지밀(至密)나인 : 대전(大殿), 내전(內殿)
- * 도청(都廳)나인 : 침방(針房), 수방(繡房)
- * 처소나인 : 안소주방(內燒廚房), 밖소주방(外燒廚房), 생과방(生果房), 세답방(洗踏房), 세수간(洗水間)
- ▶ 지밀(至密)나인 : '지밀'은 대궐에서 가장 지엄(至嚴)하고 중요한 곳으로 말 한마디 새어나가지 못한다는 뜻. 왕내외가 거처하는 궁궐 중에서 가장 깊은 곳

으로 침전(寢殿)을 말함. 이들은 우선 왕과 왕비의 신변보호 및 기거(起居), 침(寢), 식(食), 의(衣)등 일체의 시종과 물품관리 및 내시부(內侍府), 내의원(內醫院), 내선사(內膳司) 등과 중요한 교섭을 담당함.

- ▶ 소주방(燒廚房)나인 : 수라간(水刺間)은 소주방이라고도 하며 안소주방과 밖소주방으로 나뉨. 안소주방(內燒廚房)나인은 왕, 왕비의 조식 수라상을 관장하며 주식에 따르는 각종 찬품을 맡아 함. 밖소주방(外燒廚房)나인은 궐내의 대소 잔치는 물론 윗분의 탄일에 잔치상을 차리며 차례, 고사 등도 담당함.
- ▶ 생과방(生果房)나인 : 후식에 속하는 것, 즉 생과(生果), 숙실과(熟實果), 조과(造菓), 차(茶), 화채(花菜), 죽(粥) 등을 만듦. 조식 수라상은 소주방나인을 도와서 거행하며 잔치음식의 다과(茶菓)류는 이곳에서 관장함.
- ▶ 퇴선간(退膳間)나인 : 지밀에 부속되어 있는 중간 부엌인 퇴선간에서 수라를 지으며 안소주방에서 운반한 음식을 다시 데워서 수라상에 올리고 수라상 물림을 함.

다. 그 밖의 궁중에서 일하는 여인들

(왕의 승은을 입는다면 단연 종4품 숙원으로 봉해짐)

- ▶ 무수리(水賜伊) : 각 처소에서 물길기, 불때기 등 험한 잡역을 맡아하는 여인이라 대개 기혼자로 아침저녁 출퇴근함. 앞에 패(牌)를 달고 다니는데 이 패는 조식의 대궐 통근과 각 별궁간 심부름 다닐 때 아무 때나 드나들 수 있는 신분증과 같은 것.
- ▶ 의녀(醫女) : 여의(女醫)라고도 하며 여러 읍의 비(婢) 중에서 뽑아들여 간단한 진맥이나 침술법을 가르치는 여인들로 출산 때 조산부 노릇까지 하였고 궁중 잔치에 춤을 추는 기생 역할도 하여서 일명 약방(藥房)기생이라 불리었고 여자 죄인을 잡아가는 등의 여순경 역할도 함.
- ▶ 비자(婢子) : 불박이로 각 처소나 상궁의 살림집에 소속된 하녀.
- ▶ 각심이(손님방아이, 방자) : 나인들 살림집의 가정부 격인 여인들.

2) 기녀

조선시대의 관기의 설치 목적은 주로 여악(女樂)과 의침(醫針)에 있었음. 연회나 행사 때 노래·춤을 맡아 하였고, 거문고·가야금 등의 악기도 능숙하게 다룸. 관기

는 지방관아에도 팔려 지방관의 위락(慰樂)의 대상이 되기도 함.

중종 때는 사회 풍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 가운데 의녀·창기의 연회 참여를 금지시킨 일이 있는데, 중종은 연회를 할 때 의녀나 창기를 부르는 것을 엄금하도록 사헌부에 명령하고 절목을 만들도록 함. 위반자는 물론 의녀나 창기도 중벌로 다스리도록 함. 그러나 잘 지켜지지 않음.

(1) 기녀의 변천 경위 : 기녀는 의약이나 침전의 기술, 가무의 기예를 배워 익혀서 나라에서 필요할 때 봉사하던 여성들. 대체로 남녀의 접촉을 금하는 유교적 질서 속에서 남성들의 접근이 허용될 수 있는 천인 계층에 속함. 남성들의 잔치에서 흥을 돋우고 위안하는 구실을 겸함. 궁중내의 잔치와 외국사절을 환영하는 잔치에 필요한 여악(女樂)의 담당자로서 기녀를 둠. 그러나 기녀들 중 일부는 사대부나 변경 지방 군사들의 위안부로서의 구실을 맡음.

의녀가 기녀의 역할을 담당하여 약방기생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기도 함.

조선왕조에서는 기녀의 폐지에 대한 논의가 여러 번 있었으나 폐지되지 않음. 오히려 시대가 내려올수록 기녀의 수는 더욱 증가하여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시킴. 연산군대는 전국에서 기녀를 뽑아 올렸고(홍청, 광희) 그들의 생계와 치장을 위해 세금을 늘려 농민과 수공업자들이 큰 피해를 받음.

기녀는 신분상으로는 천인이고, 관비(官婢)에 속해 있었으며, 기부(妓夫)가 있었음. 기부는 대체로 기녀의 의식주를 주선하면서 동거생활을 함. 기부들이 거느린 기녀는 다만 국가에서 주어진 임무만 다하고 일반 사회에는 기예만을 팔고 매음 등은 하지 않음.

기부가 제도화된 것은 국가에서 기녀를 보다 철저히 파악할 수 있고, 기녀의 생계가 보다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 기부의 신분은 대체로 천인, 시대가 내려오면서 각전의 별감, 포도청의 군관, 궁가의 청직이, 무사 등 신분층이 한정됨. 기녀의 종류와 등급도 세분화.

고종대에는 상류사회의 연회에 참석하였던 기생인 일패(一牌), 기생출신으로 남몰래 매춘한다고 하는 은근자(殷勤者)인 이패(二牌), 매춘 자체가 직업인 탐양모리(搭仰謀利)라고 불리는 삼패(三牌)로 구별됨.

(2) 기녀의 인간상 : 기생의 배출지로 이름났던 곳으로는 서울·평양·성천·해주·강계·함흥·진주·전주·경주 등. 시 등 문장으로 유명한 명기로는 황진이·매창·

소백주 등이 있으며, 충절로 유명하기는 평양의 계월향, 진주의 논개, 가산의 홍련 등. 만향과 같이 부모를 극진히 봉양한 효녀. 홍낭·춘절·유지 등과 같이 인연을 맺은 한 남자를 위해 수절하여 절개를 지킨 기녀. 남자를 패가망신하게 만들고 조롱하고 기만하는 기녀 등 다양함.

(3) 기녀의 특기 : 기녀는 천민에 속하지만 시와 서에 능한 교양인으로서 대접받는 등 특이한 존재. 기녀를 관장하는 기관으로는 기생청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가무 등 기생이 갖추어야 할 기본 기예는 물론, 시·서화 등을 가르쳐 그들이 접대하는 상류 사족층의 교양과 걸맞게 연마시킴. 기생청은 후에 권번으로 개칭되어 기생청의 기능을 맡았거니와, 서울과 평양에는 기생학교가 있어 15세에서 20세까지의 처녀를 입학시켜 가무 외에 예의·서예 등을 가르쳐 예능과 교양을 겸비하도록 함.

시가나 서화에 능하거나, 악기나 가무에 능하거나, 또는 재치 있는 말씨나 유머를 잘하여 명성을 남김. 특히 미모에 여러 가지 특기를 겸비한 기녀는 명기로서 이름을 떨치기도 함. 지방에 따라 기녀들이 공통적인 특기가 있었는데, 경상도 안동의 기녀들은 『대학』을 곧잘 읊었고, 관동의 기녀들은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을, 함경도 영흥의 기녀들은 〈용비어천가〉를, 평양의 기녀들은 정조 때 시인 신광수가 지은 〈등악양루탄관산옹마시 登岳陽樓歎關山戎馬詩〉를 많이 읊었다 함. 평안도 의주 및 함경도 북청 기녀들은 말달리며 재주를 보이는 기예를 지니고 있었고, 제주도의 기녀들은 말을 잘 달리는 특기를 가짐.

3) 의녀

(1) 설치 경위와 교육 내용 : 여성들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 의녀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태종 6년 허도의 건의로 동녀(童女) 수십 명을 뽑아 맥경·침구의 법을 가르쳐 제생원에서 사무를 맡아보도록 한 것이 의녀제도의 시초. 필요성은 증가하였는데 공급이 따르지 못하여, 점차 의녀의 수를 늘려나감.

세종 때까지는 중앙에서만 실시되었고, 지방에서도 필요하게 되자 지방에서 10세 이상의 영특한 동녀를 뽑아 제생원에서 교육을 시킨 뒤에 지방에 돌려보내 질병을 치료하게 함. 그런데 지방 의녀제도는 제도적으로 실시되지는 못했고, 세종 17년을 전후해서야 의녀제도가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됨.

세종 16년 의녀들에게 1년에 두차례 사미(賜米)가 결정되는 등 국가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았고, 필요성과 교육성과가 늘어남에 따라서 더욱 조직적이고 철저한 교육방침을 세움. 세조대에는 제생원을 해민국에서 병합하면서, 의녀교육도 해민국에서 맡았고, ‘의녀권징조건 醫女勸懲條件’을 제정하여 학업성적에 따라 포상하고 징계하는 조치를 취함. 성종대에는 ‘의녀권과조 醫女勸課條’라 하여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학습 장려책이 제정됨.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방침에 의해 의녀들은 의학뿐만 아니라 일반교양에서도 높은 지식을 쌓아갈 수 있었음.

(2) 제도상의 정비 : 의녀의 출신 신분은 관비. 의녀를 내의·간병의·초학의 등의 3종으로 나누고 급료를 구분하여 의녀의 과업을 권장함. 성종대에는 먼저 사서를 읽히고 그 뒤에 의술을 가르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고, 『경국대전』에는 의녀의 학업 권장과 선상을 조문화하고 있다. 우수한 3명에게는 월료를 석달동안 지급하고 성적이 나쁜 자는 다모로 삼았다가 성적이 좋아지면 다시 의업에 종사하게 한다고 하였고, 여의 70명을 3년마다 선상하도록 규정함.

영조대에 제정된 『속대전』에는 의녀를 내국 여의, 해민서 여의로 양분하여 그 인원을 정하고, 그 장권(獎勸)의 방법도 달리함. 내국 여의는 궁중에 출입하며 왕비나 대비 등 왕실 여성의 질병 치료에 종사하였고, 해민국 여의는 일반 부녀의 질병 치료에 종사함. 왕실의 존귀한 여성을 치료하기 위한 내의녀 선택을 성종대부터 체계화시켜, 마음씨 등 인물 선정에 꽤 신경을 씀. 내여의는 조선왕조 말기까지 제도적인 시행을 봄.

(3) 의녀의 활동 : 의녀들은 여성들의 질병 치료와 함께 그 질병의 유무를 조사하는 임무도 띠. 의녀가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는 없었음. 여성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증세를 진찰하는 것은 의녀가 하더라도, 그 환자에 대한 처방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남자 의원이 맡음.

그러나 남자의원이 여성 환자의 환부를 직접 만질 수 없었기 때문에, 치통·종기 등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은 직접 치료하였고 시침(施針)하는 일도 직접 함. 이밖에 교육과정에 『산서 産書』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 여성들의 해산에 조산원의 구실도 맡음. 질병 진단, 간호, 조산, 특수한 분야의 치료 등 의료 활동 이외에 의녀들은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다른 임무도 맡음. 법적으로 가려낼 수 있는 신체상의 이상 여부라든가, 여성 죄인에게 약을 내려 죽일 때에 그 임무마저 맡음.

의녀들은 책을 읽어 지식층에 속하며, 전문직 여성. 그러나 출신이 관비인 만큼

성종 말경부터 기생들처럼 연회에 불려나감. 연산군 때에는 더욱 심해짐. 중종대에는 대소 연회에 의녀를 초치하는 것을 법으로써 엄금하고 그 후에도 수차에 걸쳐 의녀들과의 향음 하는 것을 계속 금지. 의녀들로 하여금 창설 당시의 본업에 돌아가도록 엄중 단속함. 그러나 연산군 때 한번 흐려졌던 의녀들의 풍기는 갑자기 시정되지 않고 의녀들은 부인들의 의료와 간호에 종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주연에 참석함. 그리하여 약방기생이라는 이름으로써 공공연하게 의료와 함께 가무를 병행하게 되었던 것.

부호들의 혼수가 극히 사치하다 하여 혼가 납채일에 의녀를 보내어 그 물품들을 검찰하게 함. 궁중이나 사대부 집안의 여성에 관한 범죄를 수색하고 죄인을 체포하기도 함.

4) 무녀

무녀는 선령(善靈)·악령(惡靈)과 직접 통하며 그들을 다룰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지녔다고 하여 인간과 신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일을 직업적으로 함. 인간의 모든 화복(禍福)은 신의 뜻에 따라 좌우되므로, 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녀들을 통하여 신과 접촉하여 재난을 미리 탐지하고 방지한다고 생각. 질병·흉사 등의 근원이 되는 악령을 구축하는 일을 담당함. 무녀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신을 통하여 판단하는 길흉점복(吉凶占卜)의 예언자가 됨.

무는 무당과 박수로 나뉘고, 무당은 무당의 정통인 숙련된 큰무당[大巫] 또는 단골무당과 미숙한 선무당으로 나뉨. 단순히 무당이라 하면 여무(女巫), 특히 가무로써 강신(降神)하는 무녀를 뜻하나, 일반적으로 남무·여무 구별없이 씀.

(1) 무녀의 존속 경위 : 모든 신을 섬긴다는 의미에서 만신이라고도 함. 무녀의 폐단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여, 세종대 도성 내의 무녀들을 성 밖으로 축출하였고, 또 무녀가 중심이 되어 행해지던 야제(野祭)와 산천·성황에서의 제사를 금지함. 그러나 무속은 수그러지지 않았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무(國巫)가 엄연히 존재함. 이들은 왕이나 세자가 병들었을 때 병이 낫기를 기도하거나, 가뭄이 들 때 기우제를 지내기도 함. 궁중을 출입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함.

국가에서는 무녀의 존재는 인정하되, 무녀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물의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국무를 제외한 무녀를 모두 동서활인원에 소속

시켜 병든 사람을 치료하게 함.

이에 대한 반대 의견, 성종의 무녀 축출 등이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별로 실효가 없었고, 조선왕조 말기까지 사실상 무녀의 성안 거주가 가능. 그 이유는 정신적인 이유로서, 무속의 영향을 계속 받아왔으므로 큰 일이 있을 때 무속신앙에 의해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함.

국가에서는 표면상으로는 무속을 금지하면서도 기우제·기양제(祈禳祭)에 무녀를 불러들여 제사를 집행하게 하였고, 궁중 여인들은 국내 명산에 무녀를 보내 제사를 지내도록 하기도 함. 무당에 대한 인식은 민간신앙으로까지 깊이 뿌리내림.

(2) 무녀의 실태 : 무속신앙은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에서 크게 성행하였는데, 송악의 무속은 신사(神祠)를 중심으로 번창함. 이에 무녀들은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었고, 국가에서는 이들에게 무세(巫稅)를 부과함. 세종 5년까지는 무세를 가혹하게 징수함. 무세는 무녀의 원공(元貢)인 정포(正布) 1필이 조선후기까지 존속됨. 서울에서는 동서활인서에서 무녀들을 파악하여 무세를 부과했으며, 지방에서는 관청별로 무세를 징수함. 그리고 여러 가지 명목의 잡세가 첨부되어, 신당세포(神堂稅布)·퇴미세(退米稅) 등을 징수함.

무녀는 수입이 많았고, 무녀의 수도 전국적으로 매우 많았음. 『목민심서』에서 「세집이 있는 마을에도 모두 무녀가 있다」고 할 만큼 무녀가 민간에 고루 퍼져 있음. 무녀들이 여러 가지 무속행사를 통하여 사람들의 재물을 차지하여 치부하는 사례도 자주 보임.

(3) 왕실과 무녀 : 중앙의 궐내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무(主巫)가 있었음. 궁중에 출입할 수 있는 무녀의 주무를 ‘국무’ 또는 ‘국무녀’, ‘국무당’이라고 불렀고, 주읍(州邑)의 주무를 ‘내무녀(內巫女)’ 혹은 ‘내무당(內巫堂)’이라고 함.

국무는 중앙의 성숙청(星宿廳)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아래 많은 무녀를 거느리고 국가나 왕실의 무속 행사에 동원됨. 성숙청에 소속된 무녀들은 주로 기우제 등에 빈번하게 동원됨. 그리고 국왕이나 왕실 가족의 병을 물리치기 위해서 고사를 지냈고, 복을 빌기 위해서도 동원됨.

무녀는 신분상 천인 계층에 속해 그 소생이 관원이 될 수 없었지만, 궁중에서 신임을 받게 되면 부귀영화는 물론이고 그 소생까지 고관이 되었던 경우가 있음. 또한 무녀들은 특정한 인물을 위해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행사도 서슴치 않음.

조선시대, 경계를 넘은 여성들

정 지 영

(이화여자대학교)

조선시대, 경계를 넘은 여성들

◆ 목 차 ◆

1. 조선의 여인,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와 위계
2. 다른 상상, 조선시대 여성의 노출과 외출
3. 나가며

1. 조선의 여인,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와 위계

한국의 “전통적 여성상”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를까? 방안에 다소곳이 앉아 수를 놓거나, 바느질을 한다. 정갈한 표정으로 낮빛을 흘뜨리지 않지만 아주 가끔씩 나지막한 한숨을 쉬기도 한다. 누군가와 말을 나눌 일이 있으면 정돈된 말씨로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이고 은밀하게 드러내고, 몸짓은 매우 조용하면서 느리고 부드럽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혹시 남편이 먼저 죽기라도 하면 흰 옷을 입고 수절하며 죽은 듯 살아간다.

하지만 그러한 이미지와 과거의 현실이 그대로 일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조선시대의 자료를 보면, 국가에서 금지한 음사에 참가해서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오는 사대부집 부녀에서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비구니들에 이르기까지 전형적인 “조선시대 여성”과는 사뭇 다른 여성들을 만나볼 수 있다. 현재의 담론 속에서 조선시대 여성은 박제된 모습이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규범적 여성은 “한국의 전통적 여성상”의 원형으로 간주된다. 조선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교적 규범에서 가장 바람직한 모델로 만든 여성의 모습이 전통 여성의 표본으로 인식된 것이다.

1) 만들어진 ‘이조여인’

조선시대 여성의 모습은 조선시대의 규범에 의해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근대 이후의 한국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역사서술, 담론에 의해 창출된 것이기도 하다. 전

통적 여성상을 이야기 할 때, 그 무대가 된 조선사회는 특히 유교라는 이념이 지배하는 공간이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여성에 대한 논의는 유교에 대한 논의와 결합되어 있다. 조선시대 여성이 한국 전통 여성의 원형이듯이, 과거의 많은 사상, 관념, 이념 가운데 특히 유교가 한국의 전통 이념의 핵심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박제된 ‘이조 여인’의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은 1970년대 국가주도의 개발, 근대화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적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조선시대의 ‘유교’는 ‘한국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지나간 여러 과거의 시간 가운데 유독 ‘조선시대’의 특정한 문화가 우리의 ‘전통’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근대의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민족주의는 유교전통을 매개로 독특한 방식으로 결합되었다.

2) ‘이조여인’은 누구인가?

유교와 여성의 지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조선시대 “여성”의 지위를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지만, 조선시대 여성은 매우 다양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다면 “우리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내는 조선시대의 여성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조선시대에 지위가 낮아지거나 또는 보호를 받은 여성들은 어떤 여성인가.

조선시대 “여성”을 다룬 역사 서술에서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낸 그녀들을 보면, 조선 사회 속에 존재한 여성들 모두를 포함하지 않는다. 오히려 역사 서술의 대상 시기에, 또 역사를 서술하는 역사가가 살고 있는 당대의 가치와 규범 속에서 이른바 “정상적 여성”이라고 간주되는 존재를 염두에 두고 “여성”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성이라고 해서 하나의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으로 묶을 수는 없을 것이다. 여성은 사회적 신분계층에 따라, 혼인 여부에 따라, 경제적 조건에 따라 나뉘고 또 그 생애 주기에 따라 어머니, 아내, 딸, 며느리의 입장에 서게 되기도 한다. 어떤 입장에 서 있는가에 따라 그 처지는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들 사이의 ‘차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여성의 지위가 낮아졌다고 하면, 현실과 상관없는 공허한 대답이 될 수밖에 없다. 조선시대의 여성의 다양한 경험과 그 조건을 이해하려면, 이러한 문제들을 염두에 두면서 가능한 한 세밀한 분석, 여성과 남성이 처한 사회적 조건과 맥락을 고려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담긴 문화적 연계망들을 읽어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보호와 억압의 위계

조선시대 여성에 대한 연구의 대세는 유교화와 가부장제의 확산이라는 흐름 속에서 여성의 지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한 해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에 대해 여성은 억압을 받은 존재로 부각되기도 하고, 반대로 보호를 받고 그 지위를 보장받고 스스로 유교와 가부장제의 수호자가 된 것으로 이야기되기도 했다. 무엇이 사실일까? 조선시대 여성은 억압을 받기도 하고, 보호를 받기도 했다.

조선시대 가부장제는 정상적 여성과 비정상적 여성을 구분해 내고, 그들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통해 만들어지고 유지되었다. 조선후기 가부장제는 모든 여성을 동시에 억압하거나 모든 여성을 동시에 보호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유교가 여성을 보호했다는 주장도 일면 타당할 수 있고, 여성이 스스로 유교적 규범을 습득하고자 했다는 것도 일면 사실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유교문화, 유교적 가부장제 체제 자체가 남녀 평등한 구조를 뒷받침하는 것임을 증명해주는 것은 아니다.

유교적 이념에 기반을 두고 구축된 조선시대의 가부장제체제는 여성에 대한 선택적 보호, 선택적 배제와 억압을 통해 유지되었다. 유교적 지배질서를 강화하는 데 협조하거나, 또는 순응한 경우 그 여성에 대해 철저한 보호와 존중이 이루어졌다.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가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누군가의 부인이 되는 것이었다. 이와 달리 혼인을 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 사회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존재, 그러므로 구제되어야 할 존재로 여겨졌다. 정숙한 여성과 음란한 여성, 혼인한 여성과 독신여성, 정실부인과 첩, 수절한 과부와 재가한 여성, 아들을 낳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은 다양한 위계가 만들어졌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주자학적 질서에 맞게 위계적인 관계로 변화함과 동시에, 여성과 여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차등화하였고 이를 통해 가부장제가 강화되고 유지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정실부인이 남편을 잃은 경우인 과부는 조선시대 유교 이념이 요구하는 수절을 할 때 오히려 사회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는 존재였다. 그러므로 국가의 각별한 보호를 받아 마땅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들은 언제 가부장의 권위를 스스로 누리고자 할지도 모르고, 또 느닷없이 수절의 길을 포기할지 모르는 위험한 여성이었다. 그들 과부는 조선시대가 여성에게 넘지 말도록 요구한 다양한 경계선 위에서 있는 존재였다.

그 경계선 가운데 수절과 재혼의 경계를 넘어 재혼을 한 여성들은 나쁜 여성이었다. 그들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재혼을 하는 여성들이 대체로 선택하게 되는 첩의 자리는 철저하게 정실부인을 중심으로 한 가족질서를 침범하지 못하는 곳에 놓여져 있었다. 가부장적 질서에 순응하고 봉사할 경우에 첩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은 양반 남성의 입장에서 볼 때, 첩은 믿을 수 없는 존재였다. 그녀들은 정상적 가족 질서의 경계선 위에 놓여진 존재, 그리고 언제든 쉽게 배제될 수 있었다. 첩들은 남편을 가지면서도 정상적 결혼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입장에 놓인, 가족 안에 확보된 자리가 없고 그러하기에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경계선 위의 존재였던 것이다.

그러한 경계의 부질없음을 깨닫고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된 여성들은 조선왕조가 표방하는 유교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였다. 그리고 가부장의 권위에 도전하고 또 정절을 잃는 등 경계선을 어지럽힌 여성들의 도피처였다. 국가에서는 그러한 여성들을 배제하여 그들의 영향력이 다른 여성에게 침투하는 것을 봉쇄하려고 했다.

조선시대 가부장제가 강화된 것은 이러한 위계를 통해 가부장적 질서를 바로 잡는 데 방해가 되는 여성들을 사회의 ‘변두리’로 몰고, 그 질서에 따르는 여성들을 ‘중심’에 두는 조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때 그 위계의 최상층에 위치했던 정실부인들, 특히 아들을 낳은 어머니들에 대한 포섭은 가부장의 권위를 단단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그들 정실부인들은 가부장적 질서에 순순히 따르고 그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했기에, 자신들의 입지를 제한적이거나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후기에 가부장제가 사회 속에 자리를 잡아가는 데는 그 질서에 포섭되는 정도에 따라 여성들을 차등화하는 프로젝트가 활용되었던 것이다.

조선후기에 국가는 혼인이라는 절차를 통해, 여성과 남성을 정상적인 가족의 단위로 묶고자 했다. 이는 여성으로 하여금,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과하는 것을 통해 조선후기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적인 여성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는 조치이기도 했다. 논리를 비약하여 말하자면, 결혼장려 정책은 정실부인 만들기이며, 가장과 정실부인으로 구성된 가족을 말단 단위로 하여 유교적 질서가 바로 잡힌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조선후기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권한은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주장은 여성을 쉽게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으로 묶을 때만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양반가의 정실부인인 여성의 권한이 낮지만은 않다는 것에 대해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양반가의 정치의 권한일 뿐이라는 점, 그리고 그러한 권한은 그 여성이 정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따를 때 확보되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2. 다른 상상, 조선시대 여성의 노출과 외출

1) 금지와 규제

조선은 유교라는 이념을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원리로 삼았다. 유교적 예법을 생활에 도입하는 것은 곧 유교 이념과 질서를 현실에 구현시키는 길이었다. 조선시대에 규방여성에 대해서도 이러한 유교적 예법에 맞게 생활하도록 유도하고, 그 질서를 내면화하도록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마련되었다. 친영제(親迎制)의 시행, 재가녀자손금고법(再嫁女子孫禁錮法), 부녀상사(婦女上寺) 금지, 음사(淫祀) 금지, 내외법(內外法) 등이 그것이다. 또 족보 기재, 재산의 상속, 제사의 계승이 적장자 위주로 이루어지는 변화가 나타나면서, 조선시대의 사회는 후기로 가면서 점차 종법질서에 기반을 둔 가부장제가 강화되었다. 이는 여성의 활동을 제한하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 위계를 분명히 하고, 여성의 성을 통제하는 것이기도 했다. 곧 이러한 금지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핵심은 외출과 노출에 대한 규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평교자, 말타기, 걷기, 구경하기, 유람하기, 절에 다니기

이러한 규제는 과연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것이었을까. 그 동안 살아온 방식과 다른 삶을 요구하고 그들의 욕망과 다른 도덕규범에 따른 금지 조항들이 만들어질 때, 여성들은 과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을까. 규제를 만드는 남성 국가가 아니라 그 규제의 대상인 이른바 규방 여성의 입장에 서서 보면, 여성의 삶이 그 규제에 맞게 바뀌었다거나, 또는 그런 규제 때문에 여성이 억압당했다는 결론과는 다른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조선시대 규방 여성들은 친정 나들이를 하기 위해, 친족들과 모임을 갖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로 길을 나섰다. 그리고 국가의 행사를 구경하기 위해서도 길을 나섰다.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여서 놀기 위해 길을 나서기도 했다. 또 스스로 행사를 주관하고 스스로의 믿음을 관철시키기도 했다. 규방 여성은 규방에 머물지 않고 규방의 문지방을 넘어 다녔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끊임없이 여성에 대한 규제 조항을 두고 조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논란은 규제가 쉽게 관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규방의 여성들을 처벌하는 일은 좀처럼 강력하게 시행되지 못했다. 절에 올라가지 말라는 금제를 어긴 경우에, 그것이 강력하게 관철되려면 그들 여성들을 처벌해야 했지만, 부녀들은 “지각이 없으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왕의 입장이었다. 왕은 “부녀자들이 사리를 모르고 그랬다”는 식으로 직접적인 처벌을 피해갔다. 이에 부녀들은 일일이 죄를 주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중들만 그 직첩을 거두는 방식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는 심한 경우에, 여성에게 장 80대의 처벌을 내렸지만 그것도 대개 속전(贖錢)을 받는 것으로 대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간의 관원들은 그 가장(家長)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부녀자의 행동에 대해 징벌할 것을 요청했다. 곧 사리 분별이 없는 부녀를 직접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이들이 금제를 어겼을 때 이에 대한 처벌은 대개 그 가장에게 죄를 주는 것이었다. 부녀를 직접 처벌하지 않고 그 가장을 처벌하는 것이 집안의 가장에 대한 징계라는 점에서 더 무거운 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부녀가 놀러 다닌 것을 국가에서도 규찰하기 어려운데 그것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남편, 곧 가장을 처벌하는 일은 더 현실성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 가장을 처벌한다는 것은 사대부가 부녀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처벌받지 않아도 되는 일임을 의미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직접 죄를 범하지도 않은 가장을 그 부인의 잘못 때문에 처벌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아무도 처벌할 수 없었다. 아니 어쩌면, 그 가장을 처벌하자고 주장하는 당사자들, 또는 그 친인척들이 어쩌면 처벌받아야 할 그 “가장”들일 수도 있었다.

결국 “금하고자 하나 금할 수 없다”는 탄식이 왕의 입에서 끊임없이 흘러 나왔다. 조선시대 규방 여성은 스스로를 꾸미고 드러내려는 욕망을 가진 존재들이었다. 그러한 규범에 그대로 따르는 바람직한 여성들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금제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규방의 여성들이 있었다. ‘규방’이라는 곳은 이른바 그 문지방을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곳이지만, 동시에 은밀하고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내밀한 장소이기도 했다. “규방을 일일이 들여다 볼 수 없으니, 어떻게 규제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규방이 여성들만의 영역이며, 남성 지배자의 직접적 통제가 그 속까지 미칠 수 없었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3. 나가며

조선시대 여성을 몇 가지 전형적 존재로 그려내는 데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왜 조선의 여성은 훌륭한 어머니가 아니면, 정치를 망치는 요부이어야 하는가. 그러한 전형에 들어맞지 않는 여성들의 모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선 여성 가운데 유교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내면화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의 욕망을 발현하고 또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낸 경우를 발굴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다양한 여성들, 여성들의 다층적인 삶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읽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흔적은 가부장제가 사회 구석까지 침투하고 삶의 기본 조건이었던 시기에 그 흐름을 타기도 하고 꺾적을 달리하기도 한 여성들의 이야기일 것이다.

조선시대 규방 여성의 삶은 양반 남성에게 의해, 위로부터 부과된 규제들의 영향을 받지만 그것에 은밀하게 또는 노골적으로 맞서고 대응해 온 역사를 감추고 있기도 하다. 국가와 양반 남성의 규제가 규방 여성들의 욕망과 생활을 바꾸는 과정은 매끄럽고 단선적인 것이 아니었다. 조선왕조의 규방 여성에 대한 규제는 그녀들을 바꾸기도 하고, 바꾸지 못하기도 했다.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통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때로는 그들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낳기도 했다. 그것은 당시의 규방 여성들이 그들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욕망을 표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규방은 단순히 양반 여성을 격리시킨 유폐의 공간이지만, 여성들만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소통되는 여성들의 장이기도 했다.

조선후기 풍속화에 그려진 女俗과
여성의 美意識

이 태 호

(명지대학교)

조선후기 풍속화에 그려진 女俗과 여성의 美意識

◆ 목 차 ◆

1. 머리말
2. 여성의 야외활동 확산
3. 일에서 놀이로 변화한 여성의 풍속
4. 복식에 표출한 여성의 미의식
5. 맺음말

이 글은 한국고전여성문학회,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집, 2006. 35~79 페이지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1. 머리말

18세기 조선의 사회와 문화는 이전에 비해 두드러진 변모상을 보인다. ‘새로운’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릴 만큼 변화의 폭이 큰 문화지형을 형성하였다.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타고 사상을 비롯해 문학, 음악, 미술, 복식, 음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전과 다른 형식이 속출했다.¹⁾ 조선후기 들어 눈에 띄게 성장한 경제력이 그 새로운 물결을 뒷받침하였을 것이다.

미술분야에서 회화사의 경우 사실정신이 부각하였고, 朝鮮風의 진경산수화와 풍속화가 유행하였다.²⁾ 풍속화는 기록화와 함께 당대의 사회현상을 비교적 소상히 읽게 해주는 시각자료이다. 예를 들어 신윤복의 <美人圖>와 《蕙園風俗畫帖》(간송미술관 소장)은 수준 높은 예술성을 지닌 동시에 여성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문화사료이다. 특히 이들 신윤복 그림의 여성 의상과 복색에는 실재감이 넘친다. 작품의 제작시기인 1810년대의 양식을 알려줄 뿐 아니라, 그 전후의 변화상을 추정하는 데

1) 임형택, 『실사구시의 한국학』, 창작과 비평사, 2000, 227~358면.

2) 이태호, 『조선후기 회화의 사실정신』, 학고재, 1996.

도 유용하다.³⁾ 풍속도에 그려진 조선후기 여성들은 푸른색과 흰색의 고상한 조화를 선호했다. 이는 동시기 청화백자의 유행과 맞물린 색채 조합이기도 하다. 여기에 빨강·노랑·연두색 등의 화사한 곁들임도 조선 여성의 품위 넘치는 색채감각이다.

조선후기의 미의식을 대표하는 상징적 형상으로 흔히 백자 달항아리를 든다. 경기도 광주의 분원에서 만들어진 18세기 달항아리의 외모는 둥글고 풍만하며 좌우가 약간 비대칭으로 정형화되었다.⁴⁾ 자연스런 형태감과 색감을 지닌 백자 달항아리는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조형물이자 조선 문화의 특질을 집약한 예술작품으로 꼽힌다. 그런데 달항아리 형태는 ‘달’이 아닌 40~50대 아줌마의 엉덩이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40~50cm 높이의 당당하고 둥근 선 맛이 그러한즉, 쓰임새도 여성의 생활과 관련이 깊다. 궁중이나 저택에서 장을 담았던 그릇으로, 장이 뻗은 흔적의 항아리도 전해 온다.

백자 달항아리의 기형은 복식에 나타난 여성 미의식과도 무관하지 않다. 달항아리의 둥근 형태와 선 맛이 당시 여성들의 풍성한 치마와 닮아 있기 때문이다. 상체의 선을 저고리 밖으로 드러내면서, 여러 겹 속옷을 끼입어 걸치마를 한껏 부풀게 만든 上薄下厚의 패션 감각과 상통한다. 양자는 조선후기 사람들이 지향한 美의 공통분모인 셈이다.

백자 달항아리의 당찬 형태감, 억지스럽지 않은 이지러짐, 담백하고 따스한 백색의 표면 질감 등은 감성을 중요시 여긴 조선후기 문예의 새로운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宋詩의 산문적 절제미보다는 낭만성이 풍부한 唐詩를 선호하고, 문학은 물론 연행에서 구속됨이 없는 천진난만함이나 마음 가는 대로 흥취와 신명을 추구한 양상과 통한다. 사람의 타고난 재능을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과거시험에 골몰했던 문인보다, 얌매임 없는 여항인이나 농부의 시에서 도리어 뛰어난 예술성을 만나게 된다고 토로했을 정도이다.⁵⁾ 조선후기 예술이 대상을 과장하는 조형미나 빠른 리듬의 음악성을 추구했던 만큼, 창작자나 향수자도 개인의 감정[欲]이나 취미[僻], 그리고 개성[怪]을 미덕으로 여겼다. 여성의 의상은 그러한 당대의 문예와 정서적으로 교감하면서 몸매의 아름다움을 적극 표출하도록 디자인되었던 것이다.

3) 이태호·양숙향, 「간송미술관 소장 《蕙園風俗畫帖》을 통해 본 19세기(순조~고종년간) 민간의 복식과 생활상」, 『강좌미술사』 15호, 한국불교미술사학회·한국미술사연구소, 2000, 203~205면.

4) 국립고궁박물관, 『백자 달항아리』, 눌와, 2005.

5) 박명희, 『18세기 문학비평론』, 경인문화사, 2002, 52~175면.

2. 여성의 야외활동 확산

대체로 유교이념을 채택한 조선시대 이래의 전통사회는 남존여비 의식이 강했다고 믿는 편이다. 그런데 근래 여성사 관련 연구에 의하면, 적어도 고려의 전통이 잔존했던 16~17세기까지는 재산상속부터 여성이 남성과 대등한 대우를 받았다.⁶⁾ 해남의 고산 윤선도 집안에 내려오는 녹우당 고문서에 따르면 17세기까지 딸에게도 시문학과 서화교육이 이루어졌고, 재산을 아들 딸 차별없이 고르게 분배하기도 했다. 심지어 딸이 승계하여 외손이 제사를 지내는 집안도 있었다고 한다.

남성을 우대하는 힘의 불균형은 16세기 이후 사림세력이 성장하면서 정착된 성리학적 이념과 관련 깊다고 보는 게 통설이다. 성리학은 음양론이나 天地論 같은 평등개념에서 비롯되었지만, 陽과 天을 강조하면서 부계중심 사회가 구축되는 데 한몫하였다고 본다. 조선초기까지는 남자들이 처가살이를 하는 혼례풍습에 따라 ‘장가 간다’는 말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중기 이후부터 소위 여성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⁷⁾ 17세기 이후 가부장적 질서가 고착화되면서 장남이 선조의 제사를 맡았고, 동시에 장자 상속의 전통이 뿌리를 내렸다. 가부장적 의식과 문화 속에서 “부녀자들은 밖에 나다니지 말라” 내지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한다”와 같은 내외법을 생성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남녀가 자연스럽게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노래하고 춤추던 풍습이 유교적 법도 아래 음사로 치부되었다.⁸⁾

이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여성사에서 조선후기는 유교윤리에 따른 여성생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시기이다.⁹⁾ 하지만 조선후기 여성문화가 반드시 그러한 기록들에 합치되지는 않는다. 풍속화를 비롯한 문예사료는 엄정한 유교관이나 禮敎의 굴레에서 벗어나 상당히 개방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18세기 영·정조 연간의 문화는 유교적 여성관이 자리 잡히는 한편, 그 통념을 넘어서는 풍부한 감성의 여성미가 발산된 시기이다. 그 때 여성들은 동시기 문화변동과 궤를 같이 하며 독서

6) 문옥표, 「분제기를 통해 본 여성 재산상속의 변화」, 『조선양반의 생활세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 이순구, 「조선시대의 성리학과 여성」,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 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2006.

7) 이순구, 위의 글, 167면.

8) 위의 글, 183면: 이순구에 의하면 “세종 13년(1431) 7월 대사헌 신개는 채봉나례(彩棚儺禮)나 성대한 행사가 있을 때 부녀자들이 거리낌없이 구경하는 것이 중국에 대해 웃음거리가 될 테니 금지하자는 상소를 올린다. 그 후로도 거리 행사 관람 행위가 부도(婦道)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세종 26년과 32년을 거쳐 성종 24년(1493)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고 한다.

9) 이순구, 위의 글, 181-187면.

와 글쓰기, 다양한 경제활동, 천주교와의 만남 등을 통해 ‘여성문화의 새로 쓰기’를 이루었다.¹⁰⁾ 성리학 관점의 윤리적 제약을 탈피하려는 여성의 활동상은 18~19세기 기록화나 풍속화에 여실하다. 예컨대 18세기 궁중기록화에는 외출한 여성들이 대거 그려지고, 정조대 왕명으로 금지했던 여성들의 가체는 19세기 초 신윤복의 풍속화에서도 쉽게 찾아진다. 어명조차 무시된 셈이니, 그 유행 정도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18세기 들어 진전된 사실적 묘사기량이나 진경산수화와 풍속화의 유행은 기록화의 형식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궁중기록화는 실재감 나도록 현장을 서술하는 사실적 표현방식이 자리를 잡는다. 전통적으로 수직과 수평의 권위적이고 단조로운 기록화에 사선식으로 부감한 동적인 구도가 적용되었고, 행사장 주변의 실경산수가 배경으로 그려졌다. 또 참여인사들만 도식적으로 그려 넣던 방식에서 벗어나, 행사를 구경하는 일반 서민들이 등장함으로써 풍속화다워진다. 구경꾼 속에는 여성도 포함되어 있어, 당대 여성들의 야외활동과 양상이 유추된다. 이러한 변모상을 반영한 작품이 숙종대 제작된 《耆社契帖》(1719~20년)과 정조대 그려진 《華城陵行圖屏》(1796년)이다.

《기사계첩》(국립중앙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등 소장)은 숙종 45년(1719) 4월 17일과 18일에 70세가 넘는 중2품 이상 관료들의耆老所, 곧耆社의 현직 혹은 은퇴 관료들에게 베푼 연회를 기념하여 제작한 서화첩이다.¹¹⁾ 숙종이 회갑을 맞아 친히 기사에 입사함에 따라 여느 때보다 잔치가 커졌다. 총 50면의 계첩 내용은 契帖序, 숙종의 御製와 御帖跋文, 행사에 배석한 人名, 행사그림인 <御帖奉安圖>·<崇政殿進賀箋圖>·<景賢堂錫宴圖>·<奉盃歸社圖>·<耆社私宴圖>, 10명의 耆臣 좌목과 眞影, 기신들의 祝詩, 계첩을 제작하는 데 참여한 監造官·書寫官·畫員의 명단 순이다. 초상화와 행사장면은 金振汝, 張泰興, 朴東普, 張得萬, 許倬 등 도화서의 화원들이 담당하였다. 참여한 기신들에게 한 첩씩 주기 위해 총 열두 첩을 제작하느라 다음해인 1720년에야 완성되었다.

행사그림 <奉盃歸社圖>에는 창덕궁에서 열린 연회를 마친 뒤 임금이 내린 잔을 받들어 기로소로 돌아가는 장면이 담겨 있다. <봉배귀사도>는 계첩의 첫머리에 실

10) 정혜은, 「봉건체제의 동요와 여성의 성장」,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 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 위의 책, 225-250면.

11)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특별전 도록, 『耆社契帖』, 1976. : 이 행사에 참여한 원로 耆臣은 領府事 李濡와 領議政 金昌集을 비롯하여 金字杭, 黃欽, 崔奎瑞, 姜錕, 漢萬朝, 李喜溥, 鄭泊告, 申鉉, 任壁 등이다.

린 <御帖奉安圖>와 함께 관리들이 3열 횡대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상하의 두 열은 행렬을 관람하는 구경꾼들이다. 중앙의 세 열에 그려진 10명의 원로대신들은 사모관대의 정장차림으로 가마를 타고 이동 중이다. 그 앞에는 악대와 오방색의 처용과 무동들이 선도한다. 남녀노소가 삼삼오오 모여 있는 구경꾼들은 가족 단위이다. 화면의 아래 열을 뒷모습으로, 윗 열을 앞모습으로 부감한 실재감 있는 행렬도의 연출 방식이 눈길을 끈다.

행사진행과 무관한 구경꾼의 등장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¹²⁾ 기존의 궁중기록화에는 행사의 순간을 재현했을 뿐 구경꾼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사계첩>의 행사 그림은 민간의 구경꾼이 그려진 최초의 궁중기록화인 셈이다. 상하의 구경꾼들은 대부분 궁궐 근처에 거주하는 원로 고관들의 집안사람들일 것으로 추정되며, 여성도 포함되어 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있거나 가족들과 어울려 행렬을 관람한다. <봉배귀사도>의 전체 구경꾼 88명 중 여성은 15명으로 17%이다. 여성들은 장옷이나 쓰개치마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이다. 당시 여성 관련 문헌기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저고리의 길이는 17세기와 마찬가지로 긴 편이다. 모두 청색·백색·황색·녹색·갈색 등을 조화시켜 맵시를 낸 치마저고리 차림들이다.

<기사계첩>의 마지막 행사그림은 <耆社私宴圖>이다. 차일이 처진 기로소 건물 안에는 10명의 대신들이 두 열로 마주 앉아 임금이 내린 잔에 술을 받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마당에서는 오방색의 처용무가 악대의 연주에 맞추어 진행된다. 그 오른쪽에서 흥을 못 이겨 춤을 추는 두 노인은 허름한 복장으로 미루어 상민이다. 아래쪽 좌우에 자리한 구경꾼들 사이, 여성은 보이지 않는다. 여성들의 야외 나들이가 일정하게 허용되면서도, 관청 출입은 제한되었던 모양이다.

<華城陵行圖屏> (국립고궁박물관, 삼성미술관 리움 등 소장)은 1795년 윤 2월 9일부터 16일까지 화성에서 벌어진 행사장면을 담은 8폭 병풍이다. 여덟 폭 병풍은 <奉壽堂進饌圖>·<洛南軒養老宴圖>·<華城聖廟展拜圖>·<洛南軒放榜圖>·<西將臺夜操圖>·<得中亭御射圖>·<還御行列圖>·<漢江舟橋還御圖>로 구성된다. 비단에 치밀한 먹선묘와 채색의 대형 병풍이다.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와 비명에 간 아버지 사도세자의 회갑년을 맞아 현릉원을 참배하고 마련한 대대적인 이벤트였다.¹³⁾

12) 이태호·백대웅, 「옛 그림과 우리 음악 3 - 숙종조 기사계첩」, 『가나아트』, 1989. 1·2 ; 이태호, 「조선후기 풍속화와 기록화에 나타난 연주장면」, 『한국학연구』 7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5, 94~115면

13) 박정혜, 「<수원능행도병> 연구」, 『미술사학연구』 189호, 한국미술사학회, 1991, 27~67면.

화성행궁의 연회장면 <봉수당진찬도>와 화성 전경을 포착한 <서장대야조도>를 제외한, 나머지 6폭에는 행사를 관람하는 남녀 구경꾼들이 등장한다. 이 구경꾼들 탓에 행사 분위기는 더욱 실감난다. 화면 구성에서도 <서장대야조도>와 <환어행렬도>, <한강주교환어도>의 경우 기존의 권위적 궁중기록화 형식과 달리 사선구도로 장대한 행사 광경을 펼쳐 놓은 그림이다. 그 중 <환어행렬도>와 <한강주교환어도>에는 야외행사를 구경하는 거대한 무리가 담겨 있다.

《華城陵行圖屏》의 구경꾼은 당시의 경기도 사람들이다. <한강주교환어도>는 노량진에 배를 이어 가설한 舟橋 위의 행렬을 대상으로 삼은 그림이다. 윗부분 노량진의 구경꾼들 속에 집단을 이룬 여성들이 보인다. 여성들은 장옷이나 쓰개치마를 착용하고, 대개 초록색과 파란 쪽물색의 차림이다. 아랫부분은 강 건너 유림들이 어가를 맞이하는 장면으로, 여성은 보이지 않는다.

윗부분에 자리한 구경꾼은 총 인원 358명이고, 여성은 137명으로 38.2%이다. 《기사계첩》에 비해 20%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러한 여성 비율의 상승은 조선후기의 여성들의 야외활동 증가 현상으로 해석된다. 구경꾼 사이에 좌판을 벌여놓거나 간이천막을 치고 간단한 음식을 파는 주모의 모습은 당시 여성들이 직접 경제활동에 참여했음을 방증한다.

<환어행렬도>에는 궁궐로 돌아오는 길에 시흥행궁에 들어서는 어가행렬이 담겨 있다. 중간 부분이 혜경궁 홍씨의 가마이다. 궁녀들이 천막을 두른 가마 주위를 둘러싸고, 그 외곽은 창과 칼로 무장한 병사들이 호위해 이동한다. 궁중 여인들의 옷 색깔은 짙은 쪽물 치마에 분홍 혹은 초록 저고리를 받쳐 입어 화려하다. 행렬 상하 주변에 구경꾼들이 그득하고, 행렬의 규모에 걸맞게 궁중 사이에서 주모들이 눈에 띈다. 전체 구경꾼 566명 중 여성이 161명으로 28.4%를 차지한다. 도성 근교인 노량진의 여성들보다 참여율이 10%정도 떨어진다. 도성과 가까운 노량진 쪽의 여성들이 시흥지역 여성들보다 적극적으로 임금의 행차를 관람하러 나온 셈이다.

여성 참여율뿐만 아니라 옷의 색채에서도 차이가 난다. 시흥 여성들의 옷 색깔은 노량진의 화려함에 비해 옅은 쪽물 혹은 황색 계열의 자연 소재로 단조로운 편이다. <한강주교환어도>와 <환어행렬도>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민간 여성의 경우 초록색과 남색의 푸른색 계열을 선호하였고, 궁중 여인들은 민간보다 화사한 복색으로 권위를 나타내었다. 이런 수도권 여인 미의식이 동시기 풍속화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3. 일에서 놀이로 변화한 여성의 풍속

풍속화는 인간의 생활상을 그림의 대상, 곧 예술적 소재로 삼은 회화작품을 일컫는다. 조선후기 풍속화는 18세기 전반 恭齋 尹斗緒(1668~1715)와 觀我齋 趙榮祐(1686~1761) 같은 문인화가에서 시작하여 18세기 후반 檀園 金弘道(1745~?)에 이르러 조선적 전형이 완성되었다.¹⁴⁾ 윤두서는 인물화를 그릴 때 모델을 세워놓고 ‘實得’하는 창작태도를 보였고, 조영석은 ‘卽物寫眞’의 현장사생을 중요하게 여겼다. 김홍도는 이들을 토대로 정묘한 대상 묘사의 ‘曲盡物態’의 경지를 이룩하였다.¹⁵⁾ 김홍도는 민중의 노동현장부터 시정의 생활상, 남녀의 애정표현에 이르기까지 畫材를 확대하고 회화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그 바통을 19세기 초반의 蕙園 申潤福이 이어받아 사실성 뚜렷한 풍속화의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1710~50년대에 활동한 윤두서와 조영석으로부터 1780년대 김홍도까지의 풍속화와 1810~20년대 신윤복의 풍속화를 비교해 보면, 일 풍속에서 도시의 유흥 풍속으로 변화하였다. 윤두서와 조영석에서 김홍도까지의 풍속화에는 직접 경제활동을 나선 여성 또는 가사노동이 주로 등장하는 데 비해, 신윤복의 풍속화에는 나들이나 놀이를 즐기는 여성들이 중심을 이룬다. 특히 후자는 가부장적 사회이념이나 민간 복식을 규제하던 어명이 지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 여성들이 그것들을 무시한 채 상당히 능동적인 삶을 피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조선후기 풍속화는 모든 생활사를 엮어낼 만큼 포괄적이진 못하다. 하지만 삶의 형태와 그 정서를 읽는데 최선의 문화사료인 셈이다. 특히 복식사에서는 복장의 구성이나 착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1) 일 풍속도

(1) 생산활동

恭齋 尹斗緒는 풍속화의 선구자이다. <짚신삼기>나 <나물 캐는 여인> 같은 농촌의 생활풍속과 <목기깎기> 같은 수공업 풍속을 다루었다. 당시 정권에서 소외된 남인계 지식인인 윤두서의 대사회적 인식과 실사구시의 창작태도는 조선후기 사실주

14) 이태호, 「조선후기 풍속화의 발생과 문인화가의 속화」·「조선후기 풍속화의 유행과 퇴조」, 『조선후기 회화의 사실정신』, 앞의 책, 136~286면.

15) 이태호, 「18~19세기 회화의 조선풍·독창성·사실정신」, 위의 책, 12~13면.

의 회화의 스승격이다. 윤두서의 사실적 묘사력은 그의 대표작인 <자화상>(이상 해남 녹우당 소장)을 비롯해 <심득경초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과 말 그림 등에 잘 나타난다. 그러한 창작태도로 주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담아 민중의 생활상을 작품화하는 데까지 발전시킨 것이다.

<나물 캐는 여인>은 조선시대 여성의 노동을 담은 최초의 그림인 동시에, 조선후기 최초의 풍속화이다. 1713년 이후 윤두서가 해남 시절에 그렸던 작품이다. 첫 풍속화가 여성의 생활상을 포착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여성의 노동이 문인화가의 눈길을 멈추게 했고, 여성이 예술표현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위상 변화와 여성상에 대한 새로운 발견의 징표라 할만하다.

까실한 질감의 모시 바탕에 연한 담묵의 맛을 잘 살린 수묵화 소품이다. 두 여인이 나물 캐는 비탈에는 간소한 필치의 갈대와 잡풀, 자갈이 묘사되어 있다. 얇은 먹으로 처리한 먼 산이 아련하게 배경을 이루고, 그 왼쪽으로 제비 한 마리가 나는 전원 속 봄날의 한때이다. 삼회장저고리 차림의 반가 여성이 서민여성과 함께 산기슭에서 쭉을 캐는 장면이다. 삼회장저고리 차림의 여인은 고개를 돌려 놓치고 지나온 것이 없나 살핀다. 소매를 접은 저고리에 망태기와 칼을 든 여인은 잡풀 사이에서 쭉을 찾아 허리를 굽힌 자세이다. 두 여인의 저고리는 허리를 가릴 정도로 품이 길고 넉넉하다. 이같이 긴 저고리는 1730~50년대 조영석이나 윤용의 풍속화에서도 여전하다.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지는 변화는 가체의 얹은머리와 함께 1780년대 김홍도 풍속화의 여성에서 뚜렷해진다.¹⁶⁾

윤두서의 손자로 할아버지의 화풍을 이어받은 靑阜 尹榕(1708~1740)의 <挾籠探春>(간송미술관 소장)은 농촌 여성의 당찬 모습을 그린 수작이다. 윤용도 조부 윤두서와 마찬가지로 남인계 집안의 전통에 따라 官路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 예술방면에 재능을 보였으나, 33세로 요절하였다.

<挾籠探春>은 《集古今畫帖》에 포함된 紙本水墨畫로, 紫霞 申緯(1769~1845)의 칠언시가 달려 있다.¹⁷⁾ 화면 속 뒷모습의 여인은 망태기를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자루가 긴 낫을 든 채 먼 봄 들녘을 응시한다. 차림새로 보아 끌베러 나선 참이다. 수건으로 머리를 싸매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치맛자락을 허리에 말아 올려 속바지를 드러낸 모습은 영낙없는 시골 아낙네이다. 속바지 아래로 드러난 건장한 종아리와

16) 양숙향·김나형, 「조선후기 풍속화에 나타난 민간의 생활유형별 복식문화와 사회상」-단원 김홍도의 《풍속화첩》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15권 1호, 2004, 25면.

17) 雨苗風葉綠董 織手青絲出漢宮 滿眼蒼生總如此 思看塗抹畫圖中 紫霞題

짚신 속의 발, 호미를 쥔 손과 팔뚝의 소략하고 어수한 묘사는 농촌 아낙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탁월하게 포착한 것이다. 발밑의 길섶 풀 처리는 간소한 붓질인 데 비해, ‘君悅’이라는 字를 짚은 먹의 힘찬 필선으로 커다랗게 써 넣은 점도 인상적이다.

윤용의 <挾籠探春>은 인간의 뒷모습을 주제로 삼은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근경에 뒷모습의 인물을 배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관람자의 시선을 그림 속으로 끌어 들이는 효과를 본다. 마치 화면을 연극 무대의 한 장면처럼 연출하는 구성 방식이다. 이는 르네상스가 내건 휴머니즘 가치와 연계되는 기법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탈리아의 지오토 같은 작가의 종교화가 대표적인 선례이다. 그 영향이 중국을 거쳐 조선에 전해졌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구체적인 증빙 자료는 알려진 바 없다. 한편으로는 18세기 조선 문인들의 인간에 대한 자각의 결과가 아닐까 싶다. 이와 같은 윤용의 시점은 김홍도나 신윤복의 풍속화에 이르러 보편적 양식으로 자리 잡는다.

김홍도의 대표적인 풍속도로는 30대의 작품인 《行旅風俗圖屏》(1778년)과 《風俗畫帖》(이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이 꼽힌다. 여덟 폭의 비단에 그린 수목담채화 《행려풍속도병》 가운데 목화밭에서 일하는 여성을 담은 <破鞍興趣>와 포구에서 魚物을 떼어 장사하는 여성을 담은 <賣塩婆行>, 두 점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담겨 있다. 상민층 여성들은 어려운 살림살이를 보완하기 위해 것처럼 농어업이나 수공업과 같은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했다.¹⁸⁾ 양반 여성에 비해 주체적인 삶을 꾸린 것이다.

김홍도가 30대 중후반 종이에 엮은 담채를 써서 그린 수묵소묘격인 《풍속화첩》 중 <자리짜기>나 <길쌈>은 여성의 생산활동을 담은 예이다. <자리짜기>는 아들을 공부 시키면서 일하는 부부의 생활상을 보여준다. 조선후기 들어 길쌈이나 자리짜기 등 특산물을 만들어 부를 축적한 서민들의 교육열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한 풍속도이다. 물레질 하는 부인 옆에서 사방관과 흡사한 관을 쓴 채 자리를 짜는 남편은 몰락한 양반으로 짐작된다. 길쌈은 예로부터 여성에게 농업 못지않게 중요한 생산 활동이었다. “남자는 밭 갈고 여자가 길쌈하는 것은 천하의 대업이다. 밭 갈지 않고 어찌 먹으며 양잠하지 않고 어찌 옷을 입을 수 있겠는가”라는 조선시대 위정자들의 통념은 당시의 성 역할 분담 형태를 대변해 준다.¹⁹⁾ 또 직조 노동이 대체로 여성의 몫이었음은 기록뿐 아니라 <길쌈>같은 그림으로도 확인된다.

18) 최원오, 「조선후기 판소리 문학에 나타난 하층 여성의 삶과 그 이념화의 수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 6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121면.

19) 이순구, 「조선시대 여성의 일과 생활」,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2006, 206~208면.

馬君厚(18세기 후반 활동)의 <村女採種>(간송미술관 소장)은 농사와 가사 노동을 겸해야 했던 농촌의 여숙을 담은, 종이에 그린 수묵담채화이다. 마군후는 중인층의 여항문학을 선도했던 千壽慶의 송석원시사에 참여한 시인이자 화가이다. <촌녀채종>은 1791년 작품으로, 텃밭에서 호미질하는 여인과 아기에게 젖먹이는 여인이 담소하는 모습을 포착한 그림이다. 이 작품이 보여주듯이, 소규모의 밭농사는 여성들의 몫이었다.

서민여성이 돈을 버는 주요 경제활동 중 하나는 예나 지금이나 음식을 파는 일일 게다. 앞서 《화성능행도병》의 여성들처럼 좌판이나 차일을 친 이동 주막 형태로 운영하기도 했다. 주요 길목에 고정된 주막 역시 ‘주모’인 여성의 역할이 컸다. 김홍도의 <주막>과 신윤복의 <酒肆舉盞>가 그런 내용이다. 양자는 김홍도의 1780년대와 신윤복의 1810년대 사회상의 변화를 살피게 한다. 김홍도의 <주막>은 식사를 위한 시설로 초가 건물이다. 넉넉하게 생긴 젊은 주모는 어린 아이를 돌보면서 손님을 맞는다. 초림을 쓰고 손가락질하는 이는 보부상이고, 맨머리에 담배를 피워 문 남성도 보부상을 보좌하는 짐꾼으로 여겨진다.

신윤복의 주막에는 가체의 주모를 둘러싼 여섯 명의 남성들이 가득하다. 주모는 쪽물치마에 연한 옥색 소지의 반회장저고리 차림이고, 19세기 초 남성상의 전형적 캐릭터를 배열해 놓은 듯하다. 왼쪽부터 젊은 기동서방과 포도부장 별감, 한량들, 무관과 의금부 나장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19세기 경제활동에서 주체가 되었어야 할 계층이나 대낮부터 주막에 모여든 셈이다. 두 작품 모두 주막이라는 단일 주제를 다루고 있어, 30여 년에 걸쳐 성장한 경제력의 변화까지 확인시켜 준다. 초가의 주막이 반가를 개조한 기와건물로 바뀌었고, 푸짐하게 밥을 퍼주던 주모가 미모의 기생형으로 변하였다.

조선시대 여성 중 일선에서 경제활동을 했던 직업인으로는 무녀도 빼놓을 수 없겠다. 신윤복의 <巫女神舞>는 당시의 무속행위를 담은 그림이다. 무녀들은 제도권의 끊임없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조선말기까지 그다지 줄어들지 않았다. 정약용이 『牧民心書』에서 “세 집이 있는 마을에도 모두 무녀가 있다.”라고 했을 만큼 일반화되어 있었던 모양이다. 유교국가인 조선사회였지만 무조건 무속을 배격할 수만은 없었다. 그 중요한 요인은 무녀에게 거두는 세금인 즉, 무세가 적지 않은 액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⁰⁾ 신윤복의 그림 속 무녀는 부채를 든 양반 남정네 차림으로

20) 이순구, 앞의 글, 222-223면.

양팔을 벌린 춤동작을 보인다. 비록 천민이지만, 전문 직업인으로서 여성의 당찬 포즈이다.

(2) 가사노동

풍속화에 그려진 가사노동의 여인상으로 觀我齋 趙榮祐(1686~1761)의 <村家女行>(간송미술관 소장)와 <바느질>(《麝臍帖》, 개인소장)이 18세기 전반의 대표작이다. 조영석은 윤두서 직후에 활동하며 조선후기 풍속화를 이끈 문인화가였다. 윤두서와 달리 노론계로 벼슬길에 올랐으며, 정선과 이웃해 살며 두터운 친교를 나누었다. <村家女行>는 고목과 부엌 모퉁이를 배경으로 방아 찹는 여성을 담은 소품이다. 소략하나마 현장감을 살린 수묵담채화이다. 종이 바탕의 소품에 간결하고 담담하게 처리하여 현대적인 감흥을 자아낸다. 얼핏 박수근 그림을 연상시킨다. 화면 왼편에 “관아재의 필법은 매양 신묘한 경지에 들어가니 보는 사람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觀我齋之筆法 每每入神妙 觀者胡不愛之. 雲水道人)”라고 쓴 雲水道人的 상찬이 달려 있다. 어머니가 두 딸과 함께 정심한 표정으로 <바느질>하는 장면은 소묘풍이면서도 담채 효과가 어우러져 그런대로 회화성을 드러낸다.

남정네들의 농사일과 바깥일을 조력하는 역할 중 하나로 음식을 해 나르는 일 또한 서민층 여성들의 중요한 가사노동이었다. 1730~40년대 조영석의 <새참>(《사제첩》)과 1780년대 김홍도의 <새참>(《풍속화첩》)을 통해서도 그 일이 풍속화의 소재로 뿌리 내렸음을 알 수 있다. 두 화가의 작품은 화면구성의 변화가 뚜렷하다. 조영석은 인물들을 일렬횡대의 수평구도로 배치하여 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던 반면, 김홍도는 원형구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현장감을 돋우었다. 또 김홍도의 <새참>은 식사중인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개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여성 등 일화거리가 첨가되어 있다. 이러한 민중 삶의 소소한 일상을 담은 풍속화가 당시에는 ‘俗畵’라 불리며 경시받기도 하였다. 두 <새참>의 화풍상 형식적 차이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남에게 보이기 꺼렸던 조영석 시대와 달리, 예술적 주제로 공인받게 되는 김홍도 시대가 화면을 열린 분위기로 변화시켰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²¹⁾

전통시대 우물은 여성들의 주요 일터이자 모임 장소였다. 마을의 공동우물은 아낙네들이 모여 정보를 나누는 공간이었고, 때로 외간 남성들과 대면할 수 있는 장이기도 했다.²²⁾ 김홍도의 <우물가>와 신윤복의 <井邊夜話>는 모두 우물가에서 벌

21) 이태호, 「조선후기 풍속화의 발생과 문인화가의 속화」, 앞의 책 및 『풍속화』 하나, 대원사, 1995.

어지는 풍속을 대상으로 삼은 그림이다. 두 작품에는 공히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이 함께 한다.

김홍도의 <우물가>에는 물을 길는 두 여성과 가슴을 드러낸 채 물을 얻어 마시는 남성이 등장해 있다. 남녀의 수작이 못 마땅한 듯 뒤돌아보며 눈을 흘기는 나이든 여성도 보인다. 원편 아래에서 오른편 위로 사선구도로 배치된 인물들 사이에서 다른 긴장감이 배어 나온다. 그런 각각의 표정이 그림 읽는 재미를 배가시킨다. <우물가>의 남성은 갓의 형태와 철릭 차림으로 미루어 무관직이나 경아전 같은 하급관료로 여겨진다. 절제를 미덕으로 삼던 양반남녀의 방만해진 행태를 표현한 듯하다. 동시에 하급관료의 무례한 행색은 성리학적 봉건질서가 와해되어 가고 있음을 적절히 웅변해준다.

신윤복의 <정변야화>는 공동 우물이 아니라 어느 대갓집 뒷곁에 있음직한 모습이다. 보름달이 흰한 초저녁, 단원화풍으로 그려진 언덕 아래 우물에서 물을 길다가 대화를 나누는 여성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앞치마를 두른 것으로 보아 하녀들이다. 짚신에 민저고리를 입고, 꽤나 큰 엷은머리이다. 서있는 여성은 쪽색 치마를, 우물에 쭈그러 앉은 여성은 연두색 저고리 차림이다. 두 여인을 훑쳐보는 사방관의 양반 사내가 음흉스럽다.

개울가의 빨래터 역시 우물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일터이자 남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다. 김홍도와 신윤복의 빨래터 그림이 그 좋은 예이다. 김홍도의 <빨래터>에는 바위를 은폐삼아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여인들의 치마 밖으로 드러난 속살을 훑쳐보는 사내가 보인다. 반면 30년 후에 그린 신윤복의 <溪邊佳話>에는 빨래터 여인들을 내놓고 바라보는 남성이 배치되어 있다. 활과 화살을 든 것으로 보아, 사냥중이거나 활터에 가는 한량인 모양이다. 또 다른 신윤복의 빨래터 그림 <漂母逢辱>은 할머니가 걸옷을 벗기려 하고 젊은 승려가 안 벗으려고 실랑이하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변주한 작품이다.

신윤복의 아버지로 화원이었던 逸齋 申漢枰(1726~?)의 家事 그림으로는 젓먹이는 여인을 담은 <慈母育兒>(간송미술관 소장)가 전한다. 갓난아이에게 젓을 먹이는 엷은머리의 여인을 중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사내아이와 주저앉아 빨간 주머니를 매만지는 여자아이를 정면으로 포착한 그림이다. 덩달아 젓을 먹으려는 형을 어머니가 야단쳐 우는 것은 아닐까. 젓먹이는 여인의 다소곳한 자세와 젓을 빨며 한

22) 강명관, 『조선 사람들, 혜원의 그림 밖으로 걸어나오다』, 푸른역사, 2002, 49면.

손으로 다른 젓꼭지를 잡아당기는 아이의 표정에 따뜻한 모성애가 감돈다. 꾸밈없이 드러낸 가정생활도로서, 세월을 초월한 어머니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예이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 풍속화의 드문 소재이지만, 신윤복이 초기에 즐겨 다룬 가사노동의 여인풍속도가 아버지에게서 비롯되었음을 말해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다림질>이나 1805년에 그린 <저자길>이 그 계열에 속한다. <저자길>은 자료에 따라 ‘어물장사’라는 제목이 붙어 있으나 반회장저고리의 여성을 어물장수로 보기는 어렵다. 나름대로 치장하고 장터에 다녀오는 아낙네가 저자길에서 만난 노파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포착한 그림이다.

2) 놀이 풍속도

(1) 나들이

인습에 따라 여성들이 외출하는 것을 삼갔지만, 조선후기 풍속화에는 여성들의 나들이 그림이 꽤 많다. 앞서 정조대 《화성능행도병》에서 언급했듯이 실제로는 개별 혹은 집단의 나들이가 적지 않았다. 신윤복의 비단에 그린 수목담채화 <쓰개치마를 쓴 여인>, <전모를 쓴 여인>, <장옷을 입은 여인>(이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에서 여성들은 하나같이 얼굴을 가린 복색이다. 그런데 실제 《혜원풍속화첩》에는 얼굴을 드러내고 외출한 여성이 대부분이다.

<쓰개치마를 쓴 여인>은 1805년 가을에 그린 것으로 밝혀져 있어 기준작이 된다. 쓰개치마를 쓴 여성이 허름한 기와집 담벼락을 지나는 뒷모습을 포착한 그림이다. 배경의 사선식 화면운영과 인물처리에서 개성적 필치가 역력하다. 이 작품을 보면, 신윤복 시대의 여성들은 낮뿐 아니라 밤에도 나들이를 즐겼던 모양이다. 이는 김홍도의 풍속도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다. 여성들만의 외출 장면이 신윤복에 의해 다루어진 점에서도 시간차가 확인된다. 정조대에 비해 규제가 느슨해지고 방만해진 순조대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일면 자유로워진 여성들의 삶이 표현된 신윤복의 풍속도에서, 근대성의 맹아가 엿보이는 것은 그 때문이다.²³⁾ <전모를 쓴 여인>은 반회장저고리에 쪽물 치마폭을 끌어 올려 허리춤에 묶고 흰 속바지를 들어낸 채 걷는다. 당시 유행의 첨단을 보여주는 전모와 거들치마로 멋 부린 기생으로 추정된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의습과 인물묘사가 동일 수법인 <애기 업은 소녀>, <거문고 줄매기>, <저잣길> 등도 모두 같은 시기의 작품으로 생각된다.

23) 이태호, 「조선후기 풍속화의 유행과 퇴조」, 앞의 책.

신윤복의 <路上托鉢>은 탁발에 나선 절집 사람들과 조우하는 불나들이 여성들을 담은 그림이다. 불버들이 싱그러운 풍경 속의 <尼僧迎妓>는 제목과 달리 기녀라기 보다 하녀를 대동한 양반가나 부유층 여성이 녹색 장옷을 걸치고 여승을 만나는 장면이다. 하녀도 상당한 크기의 가채머리이다. 영조나 정조가 가채 금지령을 내렸음에도, 계층을 불문하고 그토록 고집스레 가채를 사랑했던 양상을 읽게 해준다.

<聞鍾尋寺>에는 흰 치마에 삼회장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말을 타고 山寺에 막 도착한 정경이 담겨 있다. 아들을 낳기 위해 백일기도라도 하러 온 모양이다. 후사를 얻기 위해 당시 여성들은 흔히 무속인이나 사찰을 찾았다.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칠거지악 중 하나였으니, 여성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그 바람에 억불의 기치가 드높던 조선시대에도 불교가 저변화하며 세를 이어갔는지 모른다. 그런 만큼 조선시대 불교는 여성 불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불교 배척을 국시로 천명했던 조선초기부터 여성들의 사찰 출입은 적극 억제되었다.²⁴⁾ 그러나 19세기 풍속화에서 확인되듯이 여성들의 사찰 출입은 그치지 않았고, 도리어 여성들의 ‘上寺’ 혹은 ‘回寺’ 풍습이 횡행하였다. 심지어 머리에 첩지를 장식한 양반가의 부녀자가 승려와 성회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춘화가 그려지기도 하였다.²⁵⁾

신윤복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단오풍정>은 여성들만의 산수풍류를 보여준다. 단오날 창포에 머리감고 그네 타는 풍속이 주제이면서, 여성들의 목욕 장면이 노골적으로 그려져 한국회화사상 첫 누드화의 면모도 지닌다. 치마로 부끄러운 부분만 겨우 가린 채 상하체의 나신을 드러낸 왼쪽 여성은 배가 나온 자연스런 몸매이다. 개울가에 앉아 팔뚝의 때를 미는 여성의 일그러진 표정이 생생하다. 여인들의 가려진 음부의 형상을 고목 등치에 상징화시켜 놓은 발상에서 신윤복다운 재치가 확인된다. 바위 사이에 몸을 숨긴 채 훑쳐보는 두 동자승이 화면에 감도는 낭만적 분위기를 고양시킨다. 언덕 위 거목그늘에는 그네 타는 빨강치마에 샛노란 저고리의 여성과 나무 아래서 가채인 다리를 매만지는 여인이 자리해 있다. 짧은 저고리 아래로 젖가슴을 드러낸 채 빨랫감을 이고 오는 여성도 등장한다. 단오풍정의 이모저모를 놓치지 않은 그림이다. 왕도정치를 꿈꾸었던 조선의 유학자들은 성정을 닦는 방편의 하나로 전국의 명산대천을 기행하고 자연풍류를 즐겼다. 신윤복의 <단오풍정>

24) 『太宗實錄』 4年 12月 乙亥：一，佛氏之道，以離世絕俗爲宗；婦女之義，以正靜自守爲主。以故國家嚴立法令，凡婦女上寺者，痛行禁斷，以明風教，近來法令廢弛，婦女上寺，絡繹於道。宣淫失節，職此之由，甚非明時之令典也。願令攸司，婦女上寺者，勿論父母追會，一皆禁斷，以正風俗

25) 이태호, 『미술로 본 한국의 에로티시즘』, 여성신문사, 1997, 153~170면.

은 자연친화적 삶이 남성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嫠婦耽春>에는 누렁이와 바둑이가 교미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두 여인이 등장한다. 흰 소복차림의 여인과 땀기머리를 늘어뜨린 처녀가 민망한 장면을 구경하는데, 유경험자와 무경험자의 표정이 사뭇 다르다. 담장너머 만개한 벚꽃에 교신중인 참새들은 신윤복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암시해준다. 신윤복이 이처럼 속된 그림을 그리는 바람에 도화서에서 쫓겨났다는 얘기가 전한다.

(2) 남녀 어울림

남녀의 어울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했던 인지상정에 해당한다. 특히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남녀가 어울려 춤추고 노래하는 일을 즐겼다. 그러던 것이 조선시대에 유교적 지배이념이 강화되면서 남녀칠세부동석 같은 남녀유별이 강제되었으나, 후기에는 그마저도 깨졌음을 신윤복의 풍속도들이 잘 보여준다. 김홍도의 몇몇 풍속도나 兢齋 金得臣(1754~1822)의 《행려풍속도병》(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중 <野宴> 같은 그림에도 관기로 추정되는 여성들과 한때를 보내는 사대부층의 풍류가 담겨 있다. 그러나 남녀간의 다양한 어울림을 본격적으로 다룬 화가는 역시 신윤복이다.

<聽琴賞蓮>에는 세 쌍의 남녀가 등장한다. 담장이나 축대, 연못의 규모로 미루어 비중 있는 중앙부처의 후원일 게다. 1810~20년대 들어 이처럼 관아까지 외부 여인들을 불러들인 사실은 유교적 예교질서가 와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회장저고리의 여성과 민저고리의 두 여성이 세 양반들과 어울려 노는 모습이다. 곱방대를 들고 있는 여인은 민저고리에 사각의 검은 모자차림이다. 이는 가니마를 쓴 의녀가 관리들의 유흥에 동원되었음을 말해준다. 유득공은 『京都雜志』에서 기생의 종류로 內醫院・惠民署의 의녀, 工曹와 尙衣院의 針線婢를 꼽았으며, 그중 내의원 의녀는 검은 비단으로 만든 가니마를 쓰고, 나머지는 검은 베로 만든 가니마를 쓴다고 하였다.²⁶⁾ 각각 다른 자세로 그려진 남성 중 서있는 사람은 안동포로 잘 차려 입은 품새로 보아 관아의 수장이 아닌가 싶다. 세 쌍의 남녀 인물들은 각기 다른 세 가지 유형으로 포착되어 있다. 이처럼 신윤복은 신분과 계층, 연배에 맞는 전형을 만들어 내는 데 탁월하였다. <舟遊淸江>도 절벽 아래 흐르는 강물에 배를 띄우고 선유를 즐기는 세 쌍의 남녀가 그 주제이다. <청금상련>과 동일한 남녀의 유형으로

26) 강명관, 앞의 책, 115면.

형상화한 것이다. 이 그림들과 같은 풍조는 이미 영조시대부터 불거진 문제였다.²⁷⁾

<年少踏青> 역시 세 쌍의 남녀가 봄나들이 가는 장면이다. 봄바람에 휘날리는 장옷 자락과 연분홍 진달래가 흥건한 계절색을 암시해준다. 여성들이 모두 말을 탄 반면 남성들은 걷는다. 말 위의 여성에게 곱방대를 건네는 젊은 남성의 다소곳한 동작도 재미있거니와, 마부의 병거지를 빼앗아 쓰고 자청하여 마부로 나선 남성의 모습도 가관이다. 엉겁결에 병거지를 빼앗긴 마부는 차마 양반의 갓을 쓸 수는 없어 손에 든 채 뽀루뽀루한 표정으로 뒤흔든다. 여성들은 기생일까, 양반 남성들이 연상의 애인들과 봄나들이 나선 장면이다.

쌍옥 놀이의 <雙六三昧>, 투호 놀이의 <林下投壺>, 야밤에 데이트하다가 검문을 받게 된 남녀를 담은 <夜禁冒行> 등에도 양반층과 기녀와의 어울림이 담겨 있다. <納涼漫興>은 춤을 추는 장면을, <春色滿園>은 두 쌍의 서민층 남녀가 길거리에서 조우하는 장면을 포착한 것이다. 깊은 밤 은밀한 만남을 갖고 있는 남녀의 모습을 담은 <月下情人>에는 ‘야삼경 밤에 두 사람 마음은 두 사람만 안다(夜三更兩人心事兩人知)’는 기생 梅香의 짓구대로 애뜻함이 그득하다. 매향은 허균의 애인으로도 유명하고 그 묘가 부안에 현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⁸⁾

<雙劍對舞>의 경우 기방에서 벌어진 유흥을 담은 예이다. 네 쌍의 남녀가 삼현육각을 불러 검무를 추고 감상하는 장면이다. 화면 왼편 위쪽을 보면, 쌍검무를 감상하던 기생 하나가 길다란 곱방대로 옆에 앉은 남성에게 은근한 마음을 전한다. 이를 모르는 척 한쪽 무릎을 세우는 나이 든 양반의 자세와 이들의 수작에 당혹해하며 머리를 긁적이는 나이 어린 양반의 표정을 잡아낸 신윤복의 솜씨에 탄복하게 된다. <遊廓爭雄>은 그 기생을 놓고 싸움하는 老少 양반을 그린 작품이다.

<月夜密會>는 궁궐을 지키는 장교가 연인과 입맞춤하기 직전의 순간을 포착한

27) 『英祖實錄』 14年 12月 己亥：郭外尼舍，已乖斥左道之義，而複房幽室，便作閨寡淫奔之窟，請東郊兩尼舍，竝令京兆即日毀撤。近日士大夫，名檢掃地。娼家妓房，便作奔走之場，針婢醫女，各占風流之案，甚至閭巷良女，姿色稍麗，則身在法從，要路劫幣，舉世傳說，貽羞簪紳。

“성곽(城廓) 밖의 이사(尼舍)는 이미 좌도(左道)를 배척하는 뜻에 어긋나는 것인데, 그 복방(複房)과 유실(幽室)이 문득 여염(閭閻) 과부들이 음분(淫奔)하는 소굴이 되고 있으니, 동대문 밖 교외의 두 이사를 모두 경조(京兆)로 하여금 즉일로 훼손(毀撤)하게 하소서. 근일에 사대부(士大夫)들의 명검(名檢)이 땅을 쓴 듯이 없어졌습니다. 창가(娼家)와 기방(妓房)이 문득 분주하게 출입하는 장소가 되었고, 침비(針婢)와 의녀(醫女)들이 각기 풍류(風流)의 자리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항(閭巷)의 양녀(良女) 가운데 자색(姿色)이 조금 고우면 법종(法從)과 요로(要路)에 있는 몸으로 돈으로 탈취하는 일들이 온 세상에 말이 전파되어 잠신(簪紳)들에게 수치를 끼치고 있습니다. ...”

28) 이승수, 「허균과 매향」, 『거문고 줄 꽃아 놓고』, 돌베개, 2006.

장면인데, 그 옆 담장에 친구를 그려 넣은 재치가 돋보인다. <少年剪紅>의 주제는 이웃집 유부녀를 홀리는 젊은 유생이다. 한 손은 이미 남성에게 준 채 다른 한 손으로 뒷머리를 긁으며 엉덩이를 살짝 뺀 아낙네의 자세가 절묘하기 그지없다. 괴석과 함께 백일홍이 만개한 정원은 세도가로 추측케 하나, 잡풀이 자란 담장은 점차 영락해져 가는 가문의 위세를 암시한다. <靑樓消日>은 남성을 옆에 두고 생황을 붙던 여성이 갑자기 들어선 다른 여성을 보고 놀란 듯한 표정이 생생한 그림이다. <妓房無事>에서는 갑작스런 방문객 앞에서 남성의 아랫도리를 이불로 황급히 덮고 판청 부리는 여인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 집안의 울창한 나무로 보아 추운 계절이 아니다. <三秋佳緣>은 매파 할머니가 국화밭에서 인연을 맺어주는 장면의 그림이다. 소녀는 삼희장저고리차림이다. 양반가의 딸도 경제력을 갖추지 못하면 기방으로 나서야 했던 현실을 암시해준다.

이처럼 신윤복은 다채로운 계층의 남녀가 만나고 놀이하는 모습을 꼼꼼하게 재현해냈다. 조선후기, 특히 19세기 초에 이르러 방만해진 양반사대부들의 애정행각에 동원되었던 기생이나 의녀, 서민층 여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면서도 정밀하게 포착한 것이다.²⁹⁾

이러한 양상은 19세기 들어 조선사회에도 남녀의 성희를 담은 춘화가 등장하는 배경이다. 춘화는 중국의 경우 17세기 초부터, 일본에서는 18세기부터 유행했던 반면, 조선에서는 19세기 초반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 듯하다. 동아시아 문화지도의 변천상으로 볼 때, 김홍도나 신윤복 같은 뛰어난 역량의 풍속화가들에 의해 수준 높은 에로티시즘이 창출되었을 법하다. 헌데 그들의 진작으로 확인되는 춘화는 밝혀진 게 없다. 조선말기에는 일본과 중국의 춘화가 수입된 만큼, 조선 춘화는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조선보다 일찍부터 발달하여 대중화된 明·淸시대의 춘화는 ‘春宮畵’라 일컬어지듯이 호화로운 궁정취향의 집단 성희를 주대상으로 하였다. 에도시대에 발달한 일본 춘화는 우끼요에[浮世繪] 판화풍이 중심을 이루며 과장미가 지배적이다. 이에 비해 조선의 춘화는 중국이나 일본의 그것과 달리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편이며, 야외를 배경으로 하는 자연 친화력도 지닌다.³⁰⁾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후기 춘화첩은 적은 양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정서를 읽기

29) 이태호·양숙향, 앞의 글, 203~250면.

30) 이태호, 『미술로 본 한국의 에로티시즘』, 앞의 책, 153~170면.

에 충분한 편이다. 이들은 대개 신윤복 화풍의 배경과 인물화법이어서 신윤복이나 그 후배의 작품으로 여겨지고, 제작시기는 1820~50년 사이로 추정된다. 늙은 부부의 성회를 비롯하여 땡기머리 소년 소녀, 두 소녀와 한 청년, 반희장저고리나 삼희장저고리를 입은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사대부층 남자들이 주를 이룬다. 고관택 부인을 상징하는 첩지장식의 여성이 고승과 함께 하는 장면은 일부 반가 여인들의 방만함을 드러낸 듯하다. 청년과 중년 부인의 관계를 그린 작품도 있다. 진달래가 핀 봄날 으스스한 곳에서 삼희장저고리의 양반가 여인이 곰방대를 물고 젊은 남정네의 품에 안겨 성회를 즐기는 그림이 그 사례이다.³¹⁾

춘화에 다양한 계층이 등장함은 수요층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소규모이거나 춘화의 확산은 19세기에 오면서 봉건적 사회가 변화되는 시대상을 반영한다. 근대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퇴폐와 향락이 확산되고 도시문화에 늘어난 유곽이나 성의 상품화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문화를 주도한 계층에는 양반층뿐 아니라 체제의 문란과 부패풍조에 편승하여 치부했던 서울 및 지방 관아의 하급 관료나 향리, 부민층 호사가들까지 포함된다.

춘화첩은 인간의 원초적 모습을 담은 예술작품으로 당시 사회를 단순히 유교적 잣대로만 파악하지 않고 인간이 살았던 역사로 복원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문화사료이다. 이처럼 춘화에는 시대상은 물론이려니와 유교적 신분사회의 이중성에 대한 풍자와 질타도 담겨 있다.

3) 독서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요조숙녀는 蓮翁 尹德熙(1685~1776)의 <독서하는 여인>한 점정도에서 만난다. 아쉽지만 조선시대 여인들의 학문세계를 짐작할 수 있는 그림은 극히 드물다.

기록상으로는 17세기 중반 이후 일부 여성들은 연작소설이나 시를 쓰는 등 문예 활동에 참여한 흔적이 적지 않다. 또 18세기 이후에는 貫冊家가 번성하여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일반 서민층까지 소설을 읽는 문화가 형성되었다.³²⁾ 조선시대 여성들의 문예적 소양은 당대 여성교육이 제공하는 수준을 뛰어넘는다. 대표적인 예로 친정 오라버니들과 이기철학에 대해 논의를 벌였던 任允摯堂(1721~1793)이나, 강화

31) 『한국의 춘화』, 미술사랑, 2001.

32) 정창권, 『향량, 산유화로 지다』, 풀빛, 2005, 221면.

학파의 계보를 보여주는 申芙蓉(1732~1791),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며 적극적인 교육을 받았던 김창협(1734~1808)의 딸, 친정에서의 교육과 더불어 시어머니도 시문을 남기는 가풍에서 살았던 姜靜一堂(1772~1832), 친정 외숙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南貞一軒(1840~1892) 등을 들 수 있다.³³⁾

자신의 생활체험을 백과사전식 저술로 남긴 여성들도 있다. 憑虛閣李氏(1759~1824)의 『閨閣叢書』, 빙허각 이씨의 외숙모인 李師朱堂(1739~1821)의 『胎教新記』 등은 구체적이며 꼼꼼한 기록정신을 보여준다. 이들은 또 조선시대 여성들의 학문세계가 철학적인 주제에서부터 조리법, 태교법, 가정살림 운영법 등의 실용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음을 알려준다.³⁴⁾

윤덕희의 18세기 중엽 그림 <독서하는 여인>(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은 비단에 그린 연한 담채의 수묵화이지만, 가체에 삼회장저고리차림이다. 따라서 당시 경학이나 소설에 심취해 있던 양반가의 여성상을 염두에 두고 그린 것이다. 그런데 윤덕희의 <독서하는 여인>은 오롯이 조선적인 그림이라 하기 어렵다. 조선의 복식을 차용하고 있으나, 배경에는 중국적 색채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여성들 사이에 독서풍속이 일반화되기 이전의 상황을 반영한 탓이 아닌가 싶다.

4. 복식에 표출한 여성의 미의식

17~18세기 경제력 성장에 힘입어 일부 서민들도 일정한 부를 축적하였다. 이 시기 富民層은 물론 서민여성들까지 옷맵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현상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여성들은 전반적으로 상체의 선을 살린 저고리와 풍성하게 부풀린 치마, 그리고 가체의 큰 머리모양을 선호하였다. 색채의 경우 청백색을 기조로 삼아 색채감각의 다채로운 변화를 꾀하였다.

이러한 트렌드를 추구했던 조선후기 여성을 언급할 때, 흔히 그 주도층으로 기생을 든다. 사실 여성의 옷차림을 기녀가 좌지우지했다는 기록이 적지 않다. 기생은 관기로 시작하여, 시문학·서화를 즐기며 문인 사대부와 문화적 취향을 공유하였다.

33) 조혜란, 「조선시대 여성들의 학문과 예술」, 『조선여인의 삶과 문화』, 서울역사박물관, 2002, 171면 ; 박무영·김경미·조혜란, 『조선의 여성들,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 돌베개, 2004.

34) 조혜란, 앞의 글, 174면.

사대부 관료의 소실로 들어앉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기생의 운명을 안고 한평생을 살았다.

조선후기에는 기녀들이 계층을 뛰어 넘어 삼회장저고리를 입은 경우도 없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삼회장저고리는 반가 부녀자의 전유물로서 기녀와 서민 여성은 착용할 수 없었다고 한다.³⁵⁾ 不染子 金喜謙(18세기에 활동)의 <石泉閒遊>에는 관기로 여겨지는 두 여성이 삼회장저고리 차림이다. 石泉 田日祥(1700~1753)이 1748년 경상도 절도사 시절 관기들과 여흥을 즐기는 장면을 그린 일종의 풍속도이다. 그림의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혹시 18세기 중엽에 저고리 형식의 혼돈이 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회화성이 떨어지는데다 거문고 연주자가 민저고리를 입은 반면, 술과 음식을 나르는 여성들이 도리어 삼회장저고리 차림이다. 과연 당대 풍습을 정확히 반영한 그림인지 의심스럽다.

김홍도가 그렸다고 전해지는 <安陵新迎圖>는 안릉현감의 부임행차 장면을 담은 기록화이다. 행렬의 구성원 속에 삼회장저고리 차림의 기녀 네 명이 포함되어 있다. 또 엷은머리를 하지 않고 짙은 남색 삼회장저고리에 초록색 장옷을 걸친 여인의 위에도 ‘妓’라고 쓰여져 있다. 김홍도의 그림으로 보기에는 필법이나 제작시기가 떨어지고, 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미국의 피바디에섹스 뮤지엄 소장품으로 19세기 초의 <평안감사연회도>에서도 평안감사 부임잔치에 참여한 관기들과 구경꾼들이 발견된다.³⁶⁾ 관아의 여인들은 대부분 화려한 삼회장저고리 차림이다. 빨간색 치마에 초록색 저고리, 남색치마에 분홍색 혹은 노란색 저고리의 화려한 옷이다. 기생들이 삼회장저고리를 입는 경우는 이처럼 특별한 행사 때로 한정되었지 않나 싶다. 관기와 달리, 구경 나온 서민여성들의 의상은 엷은 쪽물이나 천연 소재로 입어 대조를 이룬다.

1) 의상의 형태미

조선후기 여성의 복식은 기능성에서 실질적인 경향을 추구했고, 이는 전반적으로 동시기에 부상한 실학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기도 한다.³⁷⁾ 또한 실용화와 함께

35) 석주선, 『한국복식사』, 보진재, 1992, 437면.

36) 『유길준과 개화의 꿈』 -미국 피바디에섹스박물관 소장 100년 전 한국풍물, 국립중앙박물관·조선일보사, 1994.

37) 양숙향·김용서, 「조선후기 여자 일상복의 변천에 관한 연구」 - 실학자의 복식관과 풍속화를 중심으로, 『복식』 39권, 한국복식학회, 1998, 167~179면.

여성스러운 미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었다. 풍속화를 보면, 여성 복식에 하체가 풍만하고 상체가 가녀린 여성의 몸매를 최대한 살리려는 ‘上虛下實’ 혹은 ‘上薄下厚’를 미인의 자태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³⁸⁾ 작은 상체에 비해 하체가 풍성해야 몸매의 S라인이 제대로 드러난다고 보았고, 더욱이 튼실한 하체는 아기를 잘 낳는 체형으로 여겼던 모양이다. 그러한 관념 속에서 기녀가 사대부가 여성의 복식을 취하고, 사대부가의 여성들이 기녀의 매혹적인 의상을 따라 입는 풍조가 중국에는 서민층에게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³⁹⁾ 부를 축적한 계층이 늘어나면서 사치풍조가 만연하고 신분제가 느슨해지는 사회 분위기와 함께 한 현상이라 하겠다.

‘上虛下實’을 추구한 여성복식의 형식미는 당대 실학자들의 비판에서도 유추된다. 예컨대 박제가는 “적삼은 날이 갈수록 짧아지고 치마는 날이 갈수록 길어지기만 하는데 이런 모양으로 제사나 빈객을 대접할 때 행사하니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⁴⁰⁾ 또 이덕무는 “지금 세상 부녀자들의 옷을 보면, 저고리는 너무 짧고 좁으며, 치마는 너무 길고 넓으니, 의복이 요사스럽다. …… 대저 복장에 있어서 유행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기녀들의 아양 떠는 자태에서 생긴 것인데, 세속 남자들은 그 자태에 매혹되어 그 요사스러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처첩에게 권하여 그것을 본받게 함으로써 서로 전하여 그것을 본받게 한다. 아! 詩禮가 닮이지 않아 규중 부인이 기생의 복장을 하도다! 모든 부인들은 그것을 빨리 고쳐야 한다.”고 피력하였다.⁴¹⁾

신윤복의 <미인도>(간송미술관 소장)는 그러한 조선후기 상류층 여성의 전형적인 의상미를 보여준다. 비단 바탕에 고운 필치의 초상화 수법으로 그린 사실화로서 신윤복의 원숙한 기량이 빛을 발한다. 그 때문에 인물화 연구에서만 아니라 조선후기 여성의 복식 형태와 색채의 연구에서도 예외 없이 언급되는 작품이다. 단정히 빗어 넘긴 머리에 알맞은 크기의 가체를 하고, 쪽물 들인 회청색 치마에 받쳐 입은 남자 주색의 삼회장저고리는 단출한 듯하면서 호사하다. 그와 조화된 자주색 땃기와 옆구리의 붉은 색띠는 미모를 한층 돋보여 줄 뿐 아니라 우리 옷의 형태와 더불어 색채미를 한껏 자랑한다. 다리를 살짝 벌려 풍성한 배추형의 치마 밖으로 흰 버선발

38) 김영자, 「한국 복식미에 표현된 에로티즘에 관한 연구」, 『복식』 21권, 한국복식학회, 1993, 157~175면.

39) 김나형·김용서, 「朝鮮後期 妓女服飾이 一般婦女子 服飾에 미친 影響」, 『복식』 39권, 한국복식학회, 1998, 113~123면.

40) 박제가, 『北學議』, 內篇, 女服; 양숙향·김용서, 앞의 글에서 재인용.

41) 이덕무, 『靑莊館全書』 卷三十 士小節 第六 婦儀 - 服飾; 양숙향·김용서, 앞의 글에서 재인용.

하나를 살짝 내민 뺨시와 고개를 약간 숙인 표정에 교태스러움이 배어난다. 신윤복이 화제로 “높은 의자에 걸터앉은 여인의 가슴 속에 감추어진春意 어찌 붓끝으로 능란하게 傳神할 수 있으리오(盤礴胸中萬化春, 筆端能興物傳神)”라고 써놓은 칠언시처럼 색정이 가득한 여인상이다.

그동안 대체로 <미인도>의 주인공을 기생으로 여겨왔으나, 삼희장저고리를 입었으니 사대부가의 여인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⁴²⁾ 이덕무가 한탄한 규중부인일 지도 모르겠다. 신윤복의 《혜원풍속화첩》에 실린 30점의 그림을 분석할 때, 삼희장저고리를 입은 여성은 양반가의 여인으로 확인되는 3명밖에 없다. 봉건적 위계질서에 의해 규정된 복식제도가 여전히 강고했음을 말해준다. 특히 <미인도>의 경우 초상화 형식으로 그려졌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기녀의 초상화에 대한 기록으로는 華山館 李命基(1756~?)가 그린 기녀도 소품에 대한 豹菴 姜世晃(1712~1791)의 畫評이 있는 정도이다. 강세황이 회양에서 만난 25세의 仙玉이라는 기생을 회상하며 쓴 ‘題李命基所寫丹蟾小像’이 그것이다.⁴³⁾ 이외에 기녀의 초상화와 관련된 기록은 과문하다. 양반가의 여성 초상화도 그리기 어려웠던 시대에 기녀의 초상화를 제작하는 것은 더욱 희귀한 일이지 않았을까. 당대 현실의 구석구석을 정확히 담아낸 리얼리스트 신윤복이 대상의 신분을 혼동하여 그리지는 않았을 터이다.

(1) 가체머리

조선후기 여성들은 상체의 선을 최대한 드러내고 머리는 커다란 얹은머리 가체로 마무리했다. 가체는 궁중 여인의 풍습이었으나 벌써 성종대부터 민간에도 전파되고, 조선중기 이후에는 경제성장과 함께 계층의 구분 없이 착용하는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⁴⁴⁾ 후기의 가체 값은 서울의 집 한 채보다 비싼 7000전을 호가할 정도로 매우 비쌌다고 한다. 혹시 여성들에게 가체를 마련해 주어야 했던 관료들을 탐관오리로 만든 요인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고가였다. 19세기에 삼정을 문란시킨 중층적 요인을 뜯어보면, 가체를 비롯한 여성들의 사치풍조와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42) 이태호, 「조선후기 풍속화의 유행과 퇴조」, 앞의 책, 256~257면 : 신윤복의 <미인도>를 기생일 것으로 보았으나 이 논고에서 바로잡는다.

43) 강세황, 『豹菴遺稿』.

44)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 3권 -의식주, 살아있는 조선의 풍경, 역사비평사, 2006, 72~73면.

英祖代의 加髻禁止令⁴⁵⁾에 이어 正祖代에도 가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⁴⁶⁾ 양반부녀자의 가체 착용이 소멸되지 않자 정조대에는 花冠을 권장했다.⁴⁷⁾ 헌데 그 때문에 18세기 말경 가체가 사라 것으로 보는 견해는 재고되어야 한다. 신윤복의 <미인도>는 1810년에서 20년 사이에 그려진 19세기 초반 작품이기 때문이다. 신윤복의 그림 외에도 19세기 인물화나 풍속화 속 가체는 더욱 크고 화려해졌다. 삼희장저고리 차림의 여성이 가체가 크고 무거워 두 손으로 받쳐 든 모습으로 그려진 <미인도>(해남 녹우당 소장)도 전한다. 이를 보면 가체는 어명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았다. 적어도 순조 연간까지는 머리모양을 과장하는 경향이 지속되었다고 생각된다. 결국 1850년을 전후한 시기에 퇴조한 것으로 추정되며, 주요한 이유는 불편함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 이후 행사치레에 따라 화관을 쓰거나 쪽진 머리가 보편화되어 근대로 이어진 것이다.

(2) 저고리

1710년대 윤두서의 <採艾圖>와 1730~40년대 윤용의 <挾籠採春>, 그리고 1730~50년대 조영석 <村家女行>에 나타난 여성의 저고리는 모두 유사하게 헐거운 형태이고, 길이는 허리춤에 닿을 정도로 길다. 1780년대 그려진 <우물가>를 비롯한 김홍도 풍속도의 저고리에 오면서 급격히 짧아지더니, 1810년대 신윤복의 <端午風情>에 이르면 젖가슴조차 가릴 수 없게 되었다. 1700년대까지 대략 42cm에서 78cm정도 되었던 저고리 길이가 1800년대에 27cm로 짧아지고 동시에 소매통이 좁아진다. 100여 년의 시간적 간격에 저고리 형태와 길이에 커다란 변화를 보인다. 조선 중·후기 이후 저고리는 계속해서 短小化가 진행된 것이다.⁴⁸⁾

저고리는 덧대는 장식에 따라 삼희장저고리, 반희장저고리, 민저고리로 나누어진 다. 그중 끝동, 고름, 결마기에 색형걸을 댄 것을 삼희장저고리라 한다. 상체를 작게

45) 『英祖實錄』 33年 11月 己丑 : 上語及酒禁, 仍敎曰: “今之可禁者, 婦女髻髻也。” 知經筵洪鳳漢曰: “人家婚禮, 買髻者多至敗產, 禁令一下, 滿城必鼓舞矣。然一定邦制, 然後始可禁也。” ; 『英祖實錄』 33年 12月 甲戌 : 命禁中外婦女髻髻, 代以後髻, 朝臣堂下官時服, 勿用紅袍, 依舊制從青綠色。… 常賤人則仍用髻。髻命婦、士族禮服, 亦禁金珠及龍鳳釵, 以示抑奢侈正名分之意, 頒諭中外。使士族婦女, 勿復加髻, 堂下官戎服外, 着綠袍, 一遵舊典。; 『英祖實錄』 34年 12月 庚子 : 命禁髻髻, 許以宮樣, 凡諸他樣, 并嚴禁。

46) 『正祖實錄』 3年 9月 乙丑 : 上曰: “禁髻髻, 乃所以祛侈風, 而若出花冠, 則飾以珠玉, 其費殆有過焉。” 亮行曰: “雖用髻髻, 禁其太侈, 使不得過費, 則此雖下策, 而亦無妨矣。” 亮行曰: “民生困悴, 專由於侈風之漸盛,

47) 『正祖實錄』 3年 4月 庚申 : 上曰: “天下事, 先治其本, 然後末流之弊可正。近日, 侈風漸盛, 不特髻髻一事。若使在朝之臣, 皆能克戒侈習, 專尚節儉, 則髻髻等事, 不期禁而自禁。且既禁髻髻之後, 當用花冠之制, 而飾以珠翠, 其費殆過於髻髻。尙爾越趨者, 此也。”

48) 류재운·전혜숙, 「조선후기 여자 저고리의 短小化와 상징적 의미」, 『복식』 39권, 한국복식학회, 1998, 5~19면.

보이도록 하기 위해 결마기를 대고 색띠로 보완한 것이다. 반회장저고리는 양반가 부녀자와 서민 여성이 고루 입는 옷으로, 끝둥과 깃에 별색의 형짚을 댄 형태이다.⁴⁹⁾ 신윤복 《풍속화첩》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반회장저고리는 기생으로 여겨지는 여성들이 주로 착용하였다. 다른 색을 더하지 않은 민저고리는 단출하고 소박하여 서민층의 복식으로 본다. 조선후기 풍속화에 나타나는 저고리의 형태도 세 가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한편 조선후기 저고리는 상체에 딱 끼도록 조여 입어 벗을 때는 바느질한 솔기를 뜯어야 했다고 한다. 입을 때는 다시 꿰매 입는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최대한 상체를 드러나도록 만든 디자인이다. 이에 대해 이덕무는 “새옷을 입으려면 옷소매에 팔을 넣기가 몹시 어려워 한번 팔을 구부리기만 하면 솔기가 터진다. 심하면 입고서 얼마 안 되어 팔에 기운이 돌지 않고 팽팽하여 벗기가 어려워서 옷소매를 찢고서야 벗게 되니 어찌 그리 요사스러운가” 라고 하였을 정도이다.⁵⁰⁾

저고리가 짧아지면서 자연히 젓가슴 가리개용 허리띠가 쓰였다. 짧은 저고리는 허리선을 그대로 드러내어 하체를 더욱 풍만해 보이도록 해주었다. 때론 선정성을 자아내지만, 여성들이 신체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고 표출하려는 의식의 변화를 반영한다.⁵¹⁾ 이를 한국복식에 나타난 에로티즘적 특징으로 지적하기도 한다.⁵²⁾ 특히 18세기 전반까지 입었던 길고 넉넉한 품의 저고리와 비교해 보면 설득력이 없지 않다.

(3) 치마

풍성한 치마는 다리가 짧은 조선 여성의 신체적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이 되었다. 속치마를 여러 겹 껴입어 치마의 윤곽을 부풀렸는데, 많은 경우 10여 가지 이상의 속옷을 입기도 했다. 속옷의 종류에는 속치마, 대습치마, 속속곳, 바지, 다리속곳, 너른바지 등이 있었다.⁵³⁾ 치마의 착용 양태를 보면, 길고 폭이 넓은 치마가 불편했던 듯 치마폭을 허리춤에 묶는 거들치마로 입었다. 거들치마는 자연스럽게 속바지를 드러나게 한다. 신윤복 풍속화의 여성들을 보면, 맵시의 하나로 정착된 듯

49) 김인경, 「해원 신윤복 풍속화에 표현된 복식미의 연구」, 『복식』 25권, 한국복식학회, 1995, 8면.

50) 이덕무, 『靑莊館全書』; 양숙향·김용서, 앞의 글에서 재인용.

51) 심화진·윤혜성, 「조선후기 풍속화에 나타난 치마·저고리에 관한 연구」, 『복식』 50권, 2호, 한국복식학회, 2000, 130~131면.

52) 김영자, 「한국 복식미에 표현된 에로티즘에 관한 연구」, 『복식』 21권, 한국복식학회, 1993, 173면.

53) 조효순, 『한국복식풍속사연구』, 일지사, 1995, 223~236면.

하다. 또 거들치마는 걷거나 일할 때 긴 치맛자락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형태이기도 하다. 옷맵시와 간편함 때문에 반가 부녀와 기녀들이 외출시에는 거들치마를 입었다.⁵⁴⁾

18세기 프랑스의 여성패션이 조선후기와 비슷하여 흥미롭다. 18세기 프랑스 풍속도의 여성은 조선의 여성보다 더 심하게 허리를 조이고, 철사나 나무를 덧대 부풀린 치마를 입었다. 머리에 가발을 쓰고 모자와 각종 장신구를 착용한 점도 유사하다. 상체는 조여 입고 하체는 풍만하게 하여 몸매의 S라인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러한 스타일이 유행하면서 프랑스 직물산업이 번창하였고, 프랑스의 혁명과 자본주의의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할 정도이다.⁵⁵⁾ 18세기 유럽의 경제발전에 가속도를 붙게 한 여성 미의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 하는 대목이다. 서양과 조선이 근대 사회로의 이행을 모색하던 동시대에 미의식을 공유하는 것이라면 무리일까.

치마저고리를 기본으로 한 조선후기의 복식미는 허리선을 드러내는 것이다. 저고리가 짧아지면서 치마와의 중심 공간은 자연스럽게 허리가 된다. 노출된 허리를 더 가늘게 보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치마를 과장시켜 부풀리게 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⁵⁶⁾ 또한 신윤복의 풍속화 속 여성들의 신체 곡선을 강조하는 저고리의 단소화는 인간의 본성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도 생각된다. 흰 천을 두른 허리와 걸어 올린 거들치마의 표현은 관능적인 느낌을 살려 디자인한 복식미라는 주장도 가능하게 한다.⁵⁷⁾

2) 의상의 색채미

우리나라 복식은 전통적으로 상하로 나뉜 투피스 패션이다. 바지저고리 혹은 치마저고리의 투피스는 이미 고구려 고분벽화부터 등장한다. 고구려 패션부터 남녀 모두 상하를 같은 색으로 입는 경우는 드물다. 아래위가 다른 색깔의 콤비네이션 전통은 색채감각을 키우는 동시에, 염색을 발달시키는 동인이기도 했을 게다.

조선후기 여성복식의 기본색은 블루이다. 1746년(영조22) 『속대전』에서는 “文武

54) 심화진·윤희성, 앞의 글, 134면.

55) 이지은, 『귀족의 은밀한 사생활』, 지안, 2006, 211~229면.

56) 김인경, 앞의 글, 16면 : 김인경은 강혜원의 『의상사회 심리학』(교문사, 1985)의 “부인의 의복이란 오직 고운 맵시를 귀하게 여겨서 가는 허리를 남에게 자랑해 보이려고 하므로 위의 옷이 밑의 치마에 덮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대목을 인용하여 조선 여성의 복식미의 중심이 허리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57) 김인경, 위의 글, 18면.

士庶人은 청색을 숭상하라”는 규정과 맞물린다.⁵⁸⁾ 푸른색 강조는 오방색 중 동쪽 색깔에 해당되는 데서 나온 것이다. 조선시대 이전부터 중앙을 중국으로 여기고 조선은 동쪽인 푸른색의 땅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고려·조선의 관복도 청색을 주조색으로 삼았다. 또 五行에서 靑色은 木에 해당하고, 생명을 상징하며 발전·창조·신생·불멸·희망 등을 의미하는 陽色이다.⁵⁹⁾ 적색과 더불어 辟邪의 색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⁶⁰⁾

한양을 비롯한 도시의 풍속도를 그린 신윤복의 《蕙園風俗畫帖》 30점은 착용상태는 물론이러니와 복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⁶¹⁾ 사대부가의 여성과 기녀의 옷을 애써 구분하지 않고 그렸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신윤복은 분명히 신분을 의식하고 그렸다고 생각된다. 저고리 종류에 드러난 리얼리티가 그러하다. 양반가 여성의 삼회장저고리는 드물고, 대부분 반회장저고리 차림이다. 그리고 서민층은 소박한 색채의 민저고리를 주로 입고 있다.

화첩 30점에 그려진 전체 여성 70명 중 확실한 삼회장저고리를 입은 여성은 세명뿐이다. <端午風情>에서 적색 치마에 노란 삼회장저고리를 받쳐 입은 젊은 여성이 그네를 탄다. 양반가의 색시 차림이다. <聞鐘尋寺>의 말을 타고 산사를 찾는 귀부인과 <三秋佳緣>에서 젊은 유생의 짝으로 매파에게 이끌려 나온 댕기머리 소녀가 삼회장저고리 차림의 행색으로 미루어 볼 때, 반가 여성임에 분명하다. 나머지 대부분은 기생이나 서민층 여성이다. 반회장저고리 차림이 29명이고, 민저고리 차림이 27명이다. 기타 11명은 옷을 갖추어 입지 않은 상태이거나 가려져 있어 정확치 않다.

신윤복의 《蕙園風俗畫帖》에 나타난 여성의 고운 의상색은 그 시절의 색채감각 그대로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30점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 여성 70명 중 52명이 블루계통의 쪽물 염색 옷을 입어 74%를 차지한다. 이 중 옅은 옥색이 10명, 진한 남색이 20명, 중간색이 22명이다.

푸른색은 인류생활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해온 색이다. 근래 색채학 연구자에 의하면 여자는 44%, 남자는 45%가 푸른색을 가장 선호하는 색깔이라고 답했다고

58) 한국고문서학회, 앞의 책, 89면.

59) 金容勳, 『韓民族의 色彩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2, 10면.

60) 金禧慶, 『朝鮮의 鬼神』, 동문선, 1990, 420면 ; 전혜숙·김숙경, 「조선시대 여자 혼례복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0권 2호, 복식문화학회, 2002, 63면.

61) 이태호·양숙향, 앞의 글, 203~250면.

한다.⁶²⁾ 보통 인디고 블루로 분류되는 쪽물 염색은 서아시아지역에서 수천 년 전부터 발달하여 가장 사랑받는 색으로 정착된다.⁶³⁾ 우리나라에서도 일찍이 발달한 쪽물 염색은 조선후기 여성들의 낭만적이면서도 고귀한 색채감각의 바탕을 이룬 셈이다. 그러나 안료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던 것 같다. 동양에서는 14세기 원나라에 이르러서야 코발트 물감이 개발되어 청화백자가 만들어졌다. 서양에서는 18세기 중반이 이후에야 일반적인 유화용 코발트 블루가 만들어졌다.

조선후기 여성들이 즐겨 입던 흰 저고리와 쪽색치마의 조화는 생활 속에서 추구한 미의식을 잘 보여준다. 세계인이 동경했던 파리 여성들의 세련미가 블루 치마에 화이트 블라우스로 대표되었던 점을 염두에 두면, 조선후기 여성들이 색채감각이 현대 파리지엔느에 못지않았다고 하겠다. 이처럼 조선후기 여성들은 푸른색 계열을 가장 선호했으나, 쪽물염색은 당시 고가의 사치품에 가까웠다. 짙은 쪽색을 보면 우리도 강도 높은 노동과 자본이 필요한 염색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지 않았나 싶다. 그런데 19세기 내내 가내수공업에 벗어나지 못한 채 퇴조하고 말았다. 동시기에 풍속화가 쇠퇴하는 경향과 함께 한 듯하여 안타깝다.⁶⁴⁾

또한 짙은 쪽물치마와 분홍색 저고리는 그 배색만으로도 관능적인 미감을 발산한다. 분홍색은 이꽃이라 불리는 홍화 염색으로 낸 색채이다. 특히 쪽물치마에 받쳐 입은 연두색조의 초록저고리는 조선 여성들만의 독특한 조화미라 생각된다. 연두색이나 옥색 반회장저고리에 자주색 띠, 빨간색 끈 등을 가미한 단조로우면서도 명량한 감각은 조선후기 여성들이 색채의 마술사였던 것 같다. 푸른색이 대체로 어스색과도 잘 어울리는 편에 속한다면, 연두색은 다른 색과 조화시키기 어려운 색인데도 불구하고 멋스럽게 소화하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조선후기 여성들은 빨강·파랑·초록·노랑 등 원색을 활용하면서도 튀지 않는 색채감각을 연출할 줄 알았다. 앞서 《화성능행도병》의 궁중여인들이나 춤꾼들의 화려한 색채감각을 살펴본 바 있다. 다채로운 색채의 의상은 민간의 회혼례 같은 행사에서도 입었다. 이는 혼례 때 입는 신부의 붉은색 활옷과 자수무늬를 통해서 알 수 있다.⁶⁵⁾

작자 미상의 18세기 후반 <회혼례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는 행사장면의 현장감을 전달하기 위해 대각선 구도로 비스듬히 부감하였다. 결혼 60돌을 맞은 부부의

62) 에바 헬러, 이영희 옮김, 『색의 유혹』, 예담, 2002, 39~85면.

63) 한광석, 『쪽물들이기』, 대원사, 1997, 14~29면.

64) 이태호, 『풍속화』, 돌, 대원사, 1996, 86~122면.

65) 전혜숙·김숙경, 「조선후기 여자 혼례복에 관한 연구」, 앞의 글, 160~177면.

회혼례에 참여한 집안 여성들의 복식에서 빨간색·남색·초록색·파란색 등 화려한 색깔이 눈에 띈다. 이러한 화사함이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 즉 정조 후기에 서 순조대까지 양반가에 퍼져있던 또 다른 색채 감각이라고 생각된다. 이들은 불화나 민화, 건물의 단청에서 빨강, 초록, 노랑을 배색하는 전통과도 통한다.

이와 더불어 여성들의 노리개와 비녀, 뒤꽂이, 떨잠, 신발 등 화려한 치레거리를 보면 여간 호사스럽지 않다. 또 색동은 빨간 치마차림의 여자 아이뿐만 아니라 사내아이의 옷에도 쓰였던 만큼, 어려서부터 다채로운 색채감각을 훈련받을 수 있었다. 여성 미의식은 복식이나 장신구에 한정되지 않고, 당시의 문화 전반에 색채감각을 일깨워 주었지 않았을까.

5. 맺음말

조선후기 풍속화나 기록화에 등장하는 ‘여성’에는 어머니 혹은 아내의 이미지가 적다. 그보다 일과 놀이, 변화하는 일상생활이 예술적 대상으로 주목받았다. 이들은 조선시대 여성에 대하여 폐쇄적이며 부계 중심에 놓린 문화였다고 인식해온 상과 달리, 상당히 주체적이고 활달하였음을 확인케 해준다.⁶⁶⁾ 또 조선후기 풍속화는 조선의 여성들이 생활 속에서 인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선을 살리는 형태와 색채감각을 간직한 문화사료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비록 상하층의 복식이 혼돈된 사례도 없지 않으나, 김홍도와 신윤복 같은 대가의 풍속도에는 계층구분이 정확한 편이다.

조선후기 여성의 의상 형태는 불편을 감수하면서 신체미를 극대화한 것이다. 크게 과장한 머리모양과 몸에 달라붙는 저고리의 短小化, 그리고 상체와 상반되게 거추장스레 부풀린 치마의 풍성함이 그러하다. 이러한 달항아리 같은 복식의 형상미, 곧 여성 미의식은 어명이나 제도도 무시한 디자인을 낳았다. 또 이는 당대 사대부 중심의 사회가 추구한 성리학적 법도나 禮의 ‘정숙함’과도 거리가 멀다. 치마를 걷어 올려 허리에 묶고 속바지를 드러내고 나다니는 거들치마는 실용적일 수는 있으나, 역시 정숙하지 않다. 아름다움을 뽐내는 한 인간으로서 여성성을 찾으려 했던 결과이다. 회장저고리의 세련된 색채감각과 함께 몸매 선을 강조한 ‘상허하실’의 복

66) 박무영·김경미·조혜란, 앞의 책.

식 형태가 동시기 유럽에서 유행한 여성들의 복식과도 유사하여 흥미롭다.

삼회장저고리는 상류층 여성들의 옷이었던 만큼 풍속화에서도 사례가 드물고, 관기들의 경우 주요 행사 때 착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녀를 비롯한 그림 속의 여성들은 반회장저고리 차림이 많다. 기생은 양반가 여성의 복식을 패션화하고 새로운 유행을 창출하는 그룹이었다. 또 조선후기 여성 의상은 노란색 저고리와 빨간색 치마, 연두색 저고리와 쪽빛 치마, 지초색 저고리와 쪽빛 치마 등 여러 가지 색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다. 거기에 삼작노리개나 뒤꽂이, 떨잠, 비녀, 신발 등의 장식을 더하여, 미적 감각을 보완하게 된다. 흰색과 푸른색으로 이루어진 寒色 바탕에 다채로운 장식과 색띠를 덧붙여 산뜻하게 조화시킨 연출력도 돋보인다. 이와 달리 서민가 여성들은 염색하지 않고 섬유의 원소재 색이나 담박한 노란색 민저고리와 치마를 주로 입었던 듯하다. 이들은 모두 조선후기 여성의 고상하면서도 품격 높은 미적 감각이다. 나아가 오랜 역사를 통해 구현된 우리 민족의 색채감각이라 해도 무방하다.

풍속화의 다채로운 복식은 계층간 차이를 보이거나, 의상의 색에는 계층을 불문하고 靑色, 곧 당시 상당한 값을 치러야 했던 쪽물 염색이 압도적이다. 풍속화뿐만 아니라 기록화에서도 여성들의 저고리나 치마의 색으로는 흰색에 청색계열의 조화가 가장 많이 눈에 띈다. 푸른색을 유독 애호했던 조선후기의 여성 미의식인 썸이다. 이 배색은 흰색 바탕에 코발트 블루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청화백자의 유행과 동시대성을 지닌다. 조선의 白雲이 흐르는 투명한 가을하늘 靑天아래 살던 심성에서 유래했을까. 자연을 닮은 민족색의 아름다움을 조선 여성들이 그 같이 服色에 구현한 것이다.

한국문학 속의 여성이미지

정 창 권

(고려대학교)

한국문학 속의 여성이미지

- 일기, 편지, 비문, 소설 등으로 보는 한국 여성사 -

◆ 목 차 ◆

1. 한국 여성사에 대한 오해
2. 16세기: 여권 존중의 전통
3. 17세기: 변화하는 여성현실
4. 한국 여성사의 저력

1. 한국 여성사에 대한 오해

우리는 흔히 옛날엔 온통 남자들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아무런 권리도 가질 수 없었다고 말한다. 전통적인 여성상도 그저 자기를 들어내지 않고 묵묵히 한평생을 숨죽이며 살았던 한(恨) 맺힌 여성상만을 떠올릴 뿐이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려고 고분 분투했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상을 거론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심지어 그와 같은 여성사가 유사(有史) 이래 아무런 변함없이 계속되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부장제 사회와 여성관은 17세기 이후인 조선 후기에야 비로소 형성된 것이었다. 즉, 완전한 남성 지배와 여성 종족은 5천년 한국 역사에서 아주 최근의, 그리고 비교적 짧은 기간의 현상이었다는 것이다¹⁾.

오늘은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한국 여성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요즘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할 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특히 우리는 《미암일기(眉巖日記)》를 토대로 주자학적 가부장제가 정착되기 이전의 생활상을 아주 재미있게 재구성한, 정창권의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를 가지고 살펴보자.

1) 우리가 아는 한국 여성사는 불과 2, 3백년 전에 형성된 것이다.

2. 16세기 : 여권 존중의 전통

16세기까지만 해도 한국은 열린 사회였다

한국 여성사는 임진왜란, 특히 1623년 인조반정을 기점으로 크게 달라졌고, 18세기 후반 이래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암흑기로 접어들더니, 20세기인 일제시대에 이르자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가 가장 절정에 이르고 말았다²⁾.

사실 16세기까지만 해도 한국은 상당히 개방적인 사회였다. 이 시기엔 비록 제한적이거나 신분 상승이 가능하였고, 유교·불교·도교 사상이 공존했으며, 고대로부터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여권(女權) 존중의 전통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 시기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집으로 가서 혼례를 올리고 그대로 눌러 사는 장가와 처가살이 혹은 남귀여가(男歸女家)와 친정생활을 하였다. 곧 딸과 사위가 친정 부모를 모시고 사는 시대였다. 그들은 보통 자녀들이 다 클 때까지 친정에서 살다가 느지막이 시댁으로 가곤 하였다. 그리하여 가족관계에서 아들과 딸을 가리지 않았고, 친족관계에서 본손과 외손을 구별하지 않았다. 다음은 《조선왕조실록》 성종 2년(1471) 5월 사간원 대사간 김수녕이 임금한테 시사(時事)를 아뢰면서 주장한 것인데, 그와 같은 사정을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로 장가들고 처가살이를 하는 풍습이 있어서 이성(異姓)간의 친분과 의리가 동성(同姓)과 다름이 없습니다. (중략). 대저 한 집에서 양육하므로 어려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서로 형제, 숙질, 조손(祖孫)이라 하니, 그 은혜와 정이 어찌 동성의 친족과 다름이 있겠습니까?”.

이에 따라 재산을 아들과 딸이 균등하게 상속받았고, 조상의 제사도 서로 돌려가며 지내는 윤희봉사를 하였다. 남녀의 권리와 의무가 서로 동등했던 셈이다. 또한 여성의 바깥출입도 비교적 자유로웠을 뿐 아니라 학문과 예술 활동도 장려되었다. 조선 전기에 설씨부인, 조선 중기에 신사임당·송덕봉·허난설헌·황진이·이매창·이옥봉 등 명실상부한 여성예술가들이 대거 출현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2) 이는 한국 장애인사 마찬가지였다. 인간의 이성이 중시되는 근대로 올수록 사회적 약자층이 더욱 살기 힘들어지다니, 참으로 아이러니컬하지 아닐 수 없다.

돈독한 부부에

이처럼 제도적·관습적으로 여권 존중의 전통이 유지되었기 때문인지, 조선 중기엔 남녀간의 애정 표현도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다³⁾. 또 여항의 평범한 부부들도 자유롭게 애정을 표현하며 애뜻한 부부애를 누렸다.

【사례1】 부부가 시를 주고받다

선조 2년(1569) 9월이었다. 이즈음 미암은 외교 담당 부서인 승문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며칠 췌 계속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숙직하고 있었다. 때마침 날씨도 눈이 내리다가 비가 내리는 등 갑자기 추워졌다. 이에 못내 걱정하던 덕봉이 새로 지은 비단이불과 항상 입는 단령을 보자기에 써서 미암에게 갖다 주도록 한다.

전혀 뜻밖의 물건을 받은 미암은 부인의 정성에 그만 감동하고 만다. 그래서 임금에 하사한 술상과 이러한 시를 지어 덕봉에게 보낸다.

눈이 내리니 바람이 더욱 차가워	雪下風增冷
그대가 추운 방에 앉아 있을 것을 생각하노라.	思君坐冷房.
이 술이 비록 하품(下品)이지만	此醪雖品下
차가운 속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으리.	亦足煖寒腸.

그러자 덕봉도 이러한 화답시를 지어 보낸다.

국화잎에 비록 눈발이 날리지만	菊葉雖飛雪
은대(승문원)에는 따뜻한 방이 있으리.	銀臺有煖房.
차가운 방에서 따뜻한 술을 받으니	寒堂溫酒受
속을 채울 수 있어 매우 고맙소.	多謝感充腸.

이날밤 미암이 6일만에 비로소 퇴근하고 돌아오는데, 일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부인과 옛새를 떨어졌다가 만나니 반가웠다!’

3) 이달이나 최경창 등의 감미로운 애정시, 황진이나 이매창, 홍량 등의 솔직하고 대담한 시들을 생각해보자.

【사례2】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선조 3년(1570) 미암은 홍문관 부제학에 제수되어 서울로 올라와 근 4개월째 홀로 관직생활을 한다. 그런데 하루는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라는 내용의 시를 지어 약간의 선물과 함께 고향에 있는 덕봉에게 보낸다. 비록 예순이 가까운 나이지만 떨어져 있는 부인이 더욱 보고 싶고 소중하게 느껴져서, 그 마음을 시로 표현하여 보낸 것이었다.

그러자 이 해 4월 26일, 덕봉이 곧바로 아래와 같은 화답시를 지어 보낸다.

스스로 원결마냥 물욕이 없다 하더니,	自比元公無物慾
어찌하여 오경(새벽 3~5시)까지 잠 못 이루시오.	如何耿耿五更闌.
옥당(홍문관)의 금마가 비록 즐겁다지만,	玉堂金馬雖云樂
추풍에 마음대로 돌아오는 것만 하겠소.	不若秋風任意還.

원결(719~772년)은 중국 당나라 때 시인으로 인격이 고결하고 민중의 고통에 깊은 관심을 보여 백거이(白居易) 등 후세의 사회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미암은 평소 원결처럼 물욕이 없다고 자처했던 듯하다. 그래서 덕봉은 우선 미암에게 원결처럼 물욕이 없다고 말했으면서 어찌하여 밤늦도록 잠 못 들고 방황하느냐고 묻는다. 그런 다음 임금 가까이서 벼슬하는 것도 즐겁겠지만, 가을에는 사직하고 돌아와 고향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것만 하겠느냐고 말한다. 즉 굳이 객지에서 혼자 방황하지 말고 가을에는 사직하고 돌아오라는 것이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으나, 얼마 뒤에 미암은 또다시 편지를 써서 덕봉에게 보낸다. 3~4개월 동안 독숙(獨宿)하면서 일체 여색(女色)을 가까이하지 않았으니, 당신은 갚기 어려운 은혜를 입은 줄 알라고 자랑하는 내용의 편지였다.

이에 덕봉은 1570년 6월 12일 다음과 같은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낸다. 이 편지는 매우 유명하고도 흥미로우므로 전문을 읽어보도록 하자.

답문절공서(答文節公書)⁴⁾

옆드려 편지를 보니 갚기 어려운 은혜를 베푼 양 하였는데 감사하기가 그지없소.

단 군자가 행실을 닦고 마음을 다스림은 성현의 밝은 가르침인데, 어찌 아녀자를 위해 힘쓴 일이겠소.

4) 문절공은 미암은 시호이다.

또 중심이 이미 정해지면 물욕이 가리기 어려운 것이니 자연 잡념이 없을 것인데, 어찌 규중의 아녀자가 보은하기를 바라시오.

3~4개월 동안 독숙(獨宿)을 했다고 고결한 체하여 은혜를 베푼 기색이 있다면, 결코 담담하거나 무심한 사람이 아니오.

안정하고 결백하여 밖으로 화채(華采)를 끊고 안으로 사념(私念)이 없다면, 어찌 꼭 편지를 보내 공을 자랑해야만 알 일이겠소.

결에 지기의 벗이 있고 아래로 권속과 노복들이 있어 십목(十目)이 보는 바이니, 자연 공론이 퍼질 것이거늘, 꼭 힘들게 편지를 보낼 것까지 있겠소.

이로 본다면 당신은 아마도 겉으로 인의를 베푸는 척하는 폐단과 남이 알아주기를 서두르는 병폐가 있는 듯하오.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 의심스러움이 한량이 없소.

나도 또한 당신에게 잊지 못할 공이 있소. 가볍게 여기지 마시구려.

당신은 몇 달 동안 독숙을 하고서 붓끝의 글자마다 공을 자랑했지만, 나이가 60이 가까우니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크게 이로운 것이지, 결코 내게 갚기 어려운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오.

하기사 당신은 귀한 관직에 있어서 도성의 만인이 우러러보는 처지이니, 비록 수개월 동안의 독숙(獨宿)도 사람으로서 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오.

나는 옛날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사방에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당신은 만리 밖에 있어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며 슬퍼하기만 했소.

그래도 나는 지성으로 예에 따라 장례를 치루면서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했는데, 곁에 있는 사람들이 “묘를 쓰고 제사를 지냄이 비록 친자식이라도 이보다 더할 순 없다.”라고 하였소.

삼년상을 마치고 또 만리의 길을 나서서 멀리 험난한 길을 갔는데 이것을 누가 모르겠소. 내가 당신한테 했던 이런 지성스런 일이 바로 잊기 어려운 일이오.

당신이 몇 달 동안 독숙한 공을 내가 한 몇 가지 일과 서로 비교하면, 어느 것이 가볍고 어느 것이 무겁겠소.

원컨대 당신은 영원히 잡념을 끊고 기운을 보양하여 수명을 늘이도록 하시오.

이것이 내가 밤낮으로 바라는 바시오. 나의 뜻을 이해하고 깊이 살피기를 엿드려 바라오.

송씨 아뢴.

이 편지를 읽고 난 미암은 “부인의 말과 뜻이 다 좋아 탄복을 금할 수 없다!”라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순순히 인정한다.

여기서 우리는 미암의 태도에 좀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는 참 자상하고 개방적인 남편이었다. 예컨대 덕봉이 먼 길을 오면 다과를 준비하여 10리 밖까지 마중을 나갔으며, 몸이 아프면 휴가를 내어 곁에서 직접 간호했다. 그리고 나라에 특별한 구경거리가 있으면 딸을 데리고 나가서 구경하도록 권하고, 아들을 미리 보내 방을 따뜻하게 해놓고 기다리도록 했다. 또 나중에는 덕봉이 지은 시를 모아 《덕봉집(德峯集)》이란 시집을 내주기도 하였다.

미암이 세상을 떠난 지 8개월 뒤인 1578년 1월 1일, 덕봉도 향년 58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한다. 그녀가 갑자기 생을 마감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서로 ‘지우(知友: 나를 알아주는 친구)’라고 여길 정도로 금슬 좋게 지냈던 자신의 동료로 잃어버린 슬픔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사례3】 남들도 우리처럼 어여뻐 여기고 사랑할까요?

끝으로 1586년 이응태의 부인이 쓴 한글 편지를 살펴보자. 이 편지는 비록 죽은 남편의 무덤에 넣어준 것이지만 16세기 사람들의 정감어린 부부생활을 잘 보여주고 있다.

원이 아버지에게

당신은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가 희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였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어린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당신은 나에게 마음을 어떻게 가져왔고, 또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왔나요. 함께 누우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지요. ‘어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뻐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와 같을까요?’ 어찌 그런 일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십니까.

당신 여의고는 아무리해도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빨리 당신께 가고 싶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수가 없고, 서러운 뜻 한이 없습니다. 내 마음 어디에 두고, 자식 데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와서 말해주세요. 꿈속에서 당신의 말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넣어 드립니다. 자세히 보시고 나에게 말해 주세요. 당신은 내 뱃속의 자식 낳으면 보고 말할 것이 있다 하고서 그렇게 가시니, 뱃속의 자식 낳으면 누구를 아버지라 하라는 겁니까.

아무리한들 내 마음만 같겠습니까. 이런 슬픈 일이 하늘 아래에 또 있겠습니까. 당신은 한곳 그곳에 계실 뿐이지만, 아무렴 내 마음 같이 서럽겠습니까. 한도 없고 끝도 없어, 다 못쓰고 대강만 적습니다.

이 편지 자세히 보시고, 내 꿈에 와서 모습 자세히 보여주시고, 또 말해 주세요. 나는 꿈에 당신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몰래 와서 보여 주세요. 하고 싶은 말이 끝이 없지만 이만 적습니다.

1586년 6월 1일 아내가

이처럼 16세기 사람들은 평소에도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뻐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라고 자신의 사랑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다정다감한 부부생활을 하였다. 그래서인지 사랑하는 남편이 하늘로 돌아가자 아내도 함께 따라가게 해달라고 말하고, 그것이 용이하지 않자 남편에게 꿈속에 서나마 모습을 보여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다.

3. 17세기 : 변화하는 여성현실

16세기만 해도 한국 사회는 상대적으로 개방적이었고, 여성들의 힘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17세기 중반 이후인 조선 후기에 이르러 유학 가운데 성리학, 더 나아가 주자학이 전사회적으로 침투하면서, 요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완고한 가부장제(가족제도 포함)와 그에 따른 한 맺힌 여성사가 비로소 형성되었다.

조선 후기엔 가족제도가 ‘할아버지(祖)→아버지(父)→아들(子)’로 이어지는 부계(父系) 적장자(嫡長子) 위주로 변화였고, 친족제도도 모계와 처계를 배제한 부계만으로 한정되었다. 혼인제도 역시 이전과 전혀 달리 결혼 후 여자가 남자집으로 옮겨가 사는 친영(親迎)과 시집살이로 바뀌었으며, 재산상속도 남녀균분에서 점차 아들 중심으로 바뀌어 갔다.

이처럼 여성이 권리를 잃어감에 따라 그 사회적 지위도 하락되어 갔는데, 그리하

여 시간이 흐를수록 전 사회계층에 남자는 높고 귀하며 여자는 낮고 천하다는 남존여비(男尊女卑) 의식이 팽배해져 갔다. 또한 결혼 전의 남녀유별과 외출금지, 결혼 후의 이혼과 재혼 금지, 출가외인 등 각종 제도와 이념으로써 여성의 행동을 단속하기도 하였다⁵⁾.

한편, 16세기만 해도 한국 여성들은 결혼 후에도 계속 책을 보고 글을 썼다. 그래서 신사임당, 송덕봉, 허난설헌 등 유명한 여성예술가가 계속 등장하였다. 그러나 17세기 이후엔 완고한 가부장제가 정착하면서 여성들의 창조적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를 예외로 취급하거나 철저히 금하였다. 심지어 실학자인 이덕무조차도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부인들은 마땅히 경서(經書)와 사서(史書), 《논어》, 《시경》, 《소학》, 《여사서》 등을 대강 읽어 그 뜻을 통하고, 여러 집안의 성씨와 조상의 계보, 역대의 나라 이름, 성현의 이름자를 알면 족하다. 부질없이 시사(詩詞)와 같은 글을 지어 바깥에 전파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엔 여자가 지식이 많고 문장에 능하면 팔자가 세다는 속담까지 성행하였다.

이처럼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이름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 대표적인 여성이 아마 안동김씨가 아니었을까 한다.

안동김씨(1679~1700)는 유학자이자 문장가인 농암 김창협과 연안이씨의 셋째딸로 태어났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용모가 단정하고 총명하여 아버지에게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

나이 11살에 아버지를 따라 서울 근교의 영평 백운산에 은거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남동생 승겸과 함께 십수 권의 책을 배웠는데, 문리(文理)가 빨리 트여 혼자서도 《주자강목(朱子綱目)》을 막힘없이 읽었을 뿐 아니라 날마다 문을 달고 책에 몰두하여 거의 침식을 잊을 정도였다. 아버지는 그것이 가련하고 기특해서 굳이 말리지 않고 혼자서 말하였다.

5) 17세기 중반 이래 완고한 가부장제의 정착은 근본적으로 문벌(門閥) 사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즉 문벌 사회의 도래로 가문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지배층이 자기 가문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그것을 적극 수용하면서, 점차 전사회적으로 확산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 여성들은 여권을 상실함은 물론 사회참여의 길도 막힌 채, 오직 집안에서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가문보조자로서의 역할만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이 딸의 성품이 정숙하니, 비록 학문을 하더라도 해가 되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유교 경전인 《논어》, 《상서》 등을 대강 가르쳐 주었다. 한데 그 공부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도, 그녀의 뛰어난 이해력은 경서 전체를 읽은 사람도 따를 수 없을 만큼 탁월하였다.

이후로도 그녀는 6년여 동안 아버지와 더불어 고금의 일과 성현의 언행을 논하면서 산중세월을 보냈다. 숙부 김창흡 등도 그녀를 매우 사랑해서 더불어 얘기하며 여사(女士), 곧 여성선비로 대접했다. 일찍이 그녀는 형제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남자로 태어난다면 다른 소원은 없다. 그저 깊은 산중에 띠집을 짓고 책을 백 권이고 천 권이고 쌓아놓고서 호젓하게 늙어 가면 그만이로다.”

하지만 이런 그녀도 오진주란 사람과 결혼한 뒤로는 그만 손에서 책을 놓고 만다. 오씨 가문에 출가하여 7년여를 살았지만, 오씨 식구는 물론 남편조차도 그녀가 책을 펴고 읽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마침내 1700년 7월 17일, 그녀는 아들 하나를 낳고 22살의 젊은 나이에 유질(乳疾: 유방암인 듯)로 요절하고 말았다. 세상을 떠날 무렵, 그녀는 남편한테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한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 후세에 남길 어떤 공덕도 이를 길이 없으니, 차라리 일찍 죽어서 아버님께 몇 줄의 비문을 얻어 묘석(墓石)에 새기게 된다면, 그 편이 더 나을 듯…….”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 세상을 위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으니, 차라리 일찍 죽어 자기를 알아준 아버지의 비문을 얻어 영원히 살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가슴悶클한 말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그녀의 행적은 아버지 농암 김창협이 <망녀 오씨부 묘지명(亡女吳氏婦墓誌銘)>이란 짤막한 글로 기록하여 후세에 전함으로써 오늘날 우리들에게 조금이나마 알려지게 되었다.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이루어진 셈이었던 것이다.

4. 한국 여성사의 저력

한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시기, 곧 17세기 중·후반에 여성지식인들이 국문 장편 소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소설문화를 형성했다는 점이다. 즉, 위와 같은 처지의 여성들이 소설을 통해 막힌 현실의 출구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필자의 책을 참조하기로 하고⁶⁾, 여기에선 필자의 한 경험담을 통해 그것들의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보기로 하자.

대학원 석사과정 때이던가? 성남의 한국정신문화연구원(지금의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학술대회 겸 전시회를 연다기에 선배와 같이 애써 참석한 적이 있었다. 그곳의 장서각에 조선시대 왕실관련 고문헌이 많이 소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늦은 오후, 마침내 장서각의 철문이 열리고, 참석자들은 ‘와~’하고 감탄하면서 안으로 밀려들어가 자유롭게 고문헌을 열람하였다. 나는 원래 생각대로 고소설을 중심으로 죽 살펴보았다. 그런데 서고의 한 모퉁이를 돌아갈 무렵, 어디선가 당당하면서도 애절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를 살려내라! 나를 살려내라!”

주위를 돌아보니, 사람이라곤 전혀 보이지 않았다. 누굴까? 나는 뭔가를 잘못 들었으려니 생각하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려 하였다. 하지만 발목에 족쇄를 채운 듯, 도무지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다. 그와 함께 웬지 모를 소름이 온 몸에 짝 돋았다.

그 순간, 내 눈에 선명히 들어오는 책이 있었다. 바로 180권 180책 <완월회맹연(玩月會盟宴)>으로, 지금 내 기억으로는 당시 서고 몇 칸을 짝 채우고 있었던 듯하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나는 어쩔 곁에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는데, 신비롭게도 그제야 발걸음이 떨어졌다. 그 학술대회는 이틀 연속 열리기로 했으나, 나는 웬지 무섭고 두려워서 선배를 졸라 그날 저녁에 곧장 서울로 돌아오고 말았다.

이후 나는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되었고, 마치 운명처럼 여성관련 연구에 들어서게 되었다. 요즘은 많이 활성화되었으나 당시만 해도 이 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나는 혼자서 여성학, 여성사, 여성문학 등의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어 나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과 팀을 이루어 매주 1회씩 근 3년을 함께 공부하였다.

그 과정에서 유독 내 눈에 들어오는 작품이 바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만났던 <완월회맹연>을 비롯한 국문 장편소설이었다.

본디 이것들은 17세기 중후반에서 20세기 전반기까지 유한 계층의 여성들이 읽었던 것인데, 대개가 수십에서 수백 권에 이르는 대 장편소설이고, 그 종류도 수십 종에 이른다.

6) 정창권, 《한국 고전여성소설의 재발견》, 지식산업사, 2002

1960년대 이후 비로소 세상에 널리 공개되었으나, 한때는 중국소설의 번역본으로 알려지다가 그후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소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작가층도 처음엔 남성들이 지었을 것이라고 막역히 추측했는데, 요즘 들어선 규방의 여성층이 지었다는 기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다행히 이 작품은 아래와 같은 기록이 발견되어 18세기 초, 중반 전주이씨란 여성이 지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완월은 안검제의 어머니가 지은 것인데, 궁중에 흘려보내 명예를 높이하고자 하였다’⁷⁾

전주이씨는 대사간을 지낸 이언경과 안동권씨의 2남 8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는데, 여사(女士) 곧 여성선비의 풍모가 있었다. 숙종 20년(1694)에 출생하여 영조 19년(1743)에 죽었는데, 슬하에 안관제·안검제 등 3남 1녀를 두고 있었다. 그녀의 시댁인 순흥안씨 집안도 결코 만만치 않은 문벌가문이었다. 시아버지는 왕세제인 영조의 교육을 맡은 시장원을 역임했고, 남편 안개는 28살에 생원시를 일등으로 합격하고 이후 40여년 동안 관직생활을 하였다.

끝으로 이 작품의 내용은 어떠한가? 과연 분량에 걸맞는 질적 수준을 갖추고 있는가? 우선 과거 고전소설을 많이 읽기로 유명한 故김기동 선생님은 이 작품을 읽는데 무려 2년이 걸렸다고 한다. 다행히 나는 현대 활자본으로 읽었는데, 그것으로도 하루 18시간 이상씩 거의 매일같이 읽어나가니 꼬박 6개월이 걸렸다. 길고 긴 독해과정, 나는 때론 답답함을, 때론 통쾌함을 느끼며 언제부터인가 작품과 혼연일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만큼 <완월회맹연>은 시종일관 나를 매료시켰던 것이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 대 가문을 둘러싼 여러 가족들의 세상사는 이야기, 특히 여성들의 인생이야기가 매우 리얼하면서도 풍부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겪었을 법한 ‘부부갈등’을 주요한 소재로 다루고 있다. 그리하여 요즘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 아내들이 얘기하는 생활철학, 곧 ‘인자해라’, ‘술을 적게 마셔라’, ‘부인한테 잘해라’ 등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다.

결국 나는 이 작품으로 박사논문도 내고 책으로도 펴내었다. 하지만 솔직히 작가

7) 이미 18세기 초, 중반에 규방의 여성소설가가 180권 180책의 대 장편소설을 짓고, 게다가 궁중에 들여보내 자신의 명예를 높이하고자 하다니, 참으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와 작품을 제대로 살려내었다고는 보지 않는다. 특히 작품의 번역과 출판 작업을 해야 하는데, 여태까지 그것을 하지 못해 못내 죄송스러울 따름이다. 박경리의 <토지>보다 무려 150여년 이상이나 앞서고, 당시로선 세계 최고의 작품을 도서관 고문헌실에 그대로 묵혀둬야 하다니, 생각할수록 가슴이 미어질 뿐이다⁸⁾.

8) 나는 이 작품이야말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12기 박물관대학 상반기과정

우리 역사 속 여자의이야기

- 조선시대, 여자들은 어디에 있었나? -

-
- 발행일 : 2010.05
 - 발행인 : 장 성 욱
 - 발행처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전시교육과
406-050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25
TEL. (032) 440-6734
FAX. (032) 440-8871
<http://museum.incheon.go.kr>
 - 인 쇄 : 예일문화사(Tel.032-881-7171~3)
-